

བོད་ཁྱི་གོས་ཐུག་ 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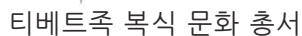
티베트족 복식

III

한국어판

루훅 더다
티베트 복식 문화
박물관





པ་ཏེ། བྱིད། རྒྱན། །

티베트족 복식 III

ལྷོ་ཁོ་རེ་ཡ།

한국어

བྲག་མགོ་ཉི་དར་བོད་ཀྱི་གོས་སྒྱུ་རིག་གནས་བཤམས་སྟོན་ཁང་།

루훙 더다 티베트 복식 문화 박물관

머리말

인류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언어와 문자, 음식, 그리고 의복은 언제나 각 민족 문화를 지탱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상징이 사라진다면 그 어떤 민족도 명목만 남은 뿐 실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수많은 민족의 전통문화가 극심한 변화를 겪으며 심지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외딴 오지조차 현대 문화의 충격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티베트인들이 이러한 전례 없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점차 버린 채 속되고 편리한 유행을 좇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훌륭한 전통은 통째로 버려지고, 민족 문화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입던 의복과 부모님 세대의 풍습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거의 사라졌으며, 이 기억을 간직한 어르신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며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고, 심사숙고 끝에 의복과 장신구를 시작으로 전통 문화를 구하고 보호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티베트 복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채로우며, 그 색채는 자연과 깊이 호응합니다. 파란색은 푸른 하늘과 호수를, 빨간색은 불을, 노란색은 땅을, 초록색은 초원을 나타내며, 이처럼 대자연은 인간에게 다양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아울러 티베트 장신구에 자주 쓰이는 금, 은, 산호, 마노, 호박 등 ‘칠보’는 단순한 장식적 기능을 넘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몸을 보호하며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티베트 고원의 자연환경은 지역별 복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지대 목축 지역에서는 두꺼운 가죽 외투를 입고, 반농반목 지역에서는 양모 재질의 푸루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저지대 농업 지역에서는 가볍고 얇은 천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이처럼 의복은 단순한 문화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휘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선대 어르신들께서는 티베트의 의복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송첸 감포, 문수보살의 화신인 트리송 데첸, 금강수보살의 화신인 트리랄파첸 등 역대 찬푸와 파드마삼바바, 비말라미트라, 산타락시타와 같은 위대한 성취자들의 가피를 받고 전해 내려온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청정한 민족 복식을 입는 것은 추위를 막고 몸가짐을 장엄하게 하며 보살의 신성한 가피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복식 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저는 2018년 1월 ‘더다 티베트 복식 문화 박물관’을 설립하고, 많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수차례 캄, 암도, 위짱 등 지역으로 조사단을 보내 고대 티베트 복식을 수집하고 현지 어르신들과 인터뷰하며, 이러한 복식의 제작 과정, 재질 분류, 역사적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수집된 유물은 박물관에 진열, 전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을 수집하는 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관련 자료가 문서화되지 않는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미래에 널리 전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사 결과, 국내외 티베트 복식 연구는 대부분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티베트 전역의 복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티베트 고원 복식 연구소’를 설립하여 티베트 각지의 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총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 권씩 출간하여 지역별 티베트 복식을 소개할 계획이며, 제 고향인 루훬부터 시작해 점차 티베트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티베트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우리는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티베트 어르신들이 구술한 제작 기법, 배경 이야기, 관련 속담과 수수께끼 등을 충실히 기록하여 자료의 엄밀성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추측성 내용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복식에 대해서는 한 지역의 특색 있는 복식을 기준으로 소개하며 다른 지역의 책에서 중복하여 다루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미숙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학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우리 세대가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이를 기억하고 이해할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티베트 복식은 티베트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 다양성을 증명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티베트 문화를 보호하는 것은 곧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동 노력 덕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달지

2024년 6월 4일

서문

티베트족 복식 문화 시리즈 총서의 하나인 《티베트족 복식 III》은 청장고원 동남쪽 가장자리 지역에 전승되어 온 특색 있는 전통 티베트족 복식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수록 범위는 윈난성 디칭장족자치주(迪庆藏族自治州)와 쓰촨성 량산 이족 자치주 무리장족자치현(木里藏族自治县)이다.

이들 지역은 진사강(金沙江)과 란창강(澜沧江) 유역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는 차마고도의 중요한 통로이자 역참이었다. 과거 토번(吐蕃) 왕조의 관할에 속하기도 했으나, 이후 남조(南诏)와 대리(大理) 등 여러 정권의 통치를 차례로 받았다. 또한 오랜 기간 여러 민족과 함께 거주해 온 까닭에, 이 지역의 복식은 위짱(卫藏), 캉바(康巴) 등 티베트 문화권 복식 요소를 융합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타 민족 복식의 영향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유의 특색을 지닌 전통 복식을 훌륭하게 계승, 보존해 오고 있다.

연구 작업은 6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우선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지에 직접 들어가 엄밀하고도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현지의 민간문화 전승자와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들을 특별히 인터뷰하였으며, 그들이 구술한 전통 복식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여 글로 정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역은 물론 동일 지역 내에서도 동일한 복식에 대한 명칭과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반복적인 분석과 심층 비교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지역 구분과 문화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윈난성 더친현(德钦县), 상그릴라시(香格里拉市), 웨이시현(维西县) 및 쓰촨성 량산주 무리현(木里县)을 중심으로 한 10여 개 지역의 특색 있는 복식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6장의 내

용을 통해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번즈란(奔子栏) 남녀 복식, 양라(羊拉) 여성 복식, 더친(德钦) 남녀 복식, 타청(塔城) 여성 복식, 바주(巴珠) 남녀 복식, 니시(尼西) 남녀 복식, 우징(五境) 여성 복식, 젠탕(建塘) 여성 복식, 둥왕(东旺) 여성 복식, 니루(尼汝) 여성 복식, 거잔(格咱) 여성 복식, 나무이(纳木依) 여성 복식, 지쑤(机素) 남녀 복식, 수뤄(水洛) 여성 복식, 마오뉴핑(牦牛坪) 여성 복식, 러바무(热巴舞) 공연 복식 등이 포함된다. 책에서는 이러한 전통 복식의 종류, 색채, 공예 기법, 착용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복식들은 서로 다른 해발고도와 기후 등 자연 조건의 산물인 동시에, 지역의 농목업 생활 방식, 상무역 교류 및 문화 교류의 결정체이다. 종합적으로, 본서는 상기 지역 복식을 다섯 계통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더친과 양라 등 란창강 계통, 번즈란, 우징, 니시, 타청 등 진사강(金沙江) 계통, 둥왕, 거잔, 니루 등 고산 협곡 지대 계통, 젠탕 계통, 그리고 무리 계통이다. 이들 지역은 해발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복식 재질로 삼베, 모직, 면포, 비단, 금사 벨벳, 공단 등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가 주로 사용되며, 색채 또한 화려하고 장식성이 뛰어난 특징을 보인다. 특히 러바(热巴), 창두(唱嘟), 셴쯔(弦子), 귀좡(锅庄) 등 풍부한 민간 가무 문화 속에서 공연자가 착용하는 특정 복식은 현지 복식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복식과 민속문화가 서로 긴밀히 의존하며 공존하는 관계를 잘 보여 준다.

또한, 본서는 가능한 한 깊이 있고 세밀하게 복식의 전체와 부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재질, 구성, 변천, 방직 공예 및 이와 관련된 민속적 금기, 민간 가요 및 전설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록하였다. 복식 및 각 부위의 명칭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현지 고유의 발음을 보존하였으며, 방언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티베트어 공통어 표준에도 부합하도록 하였다. 티베트어 초고의 작성과 수정, 최종 원고 확정에 이르기까지 십여 차례의 엄밀한 교정을 거쳤으며, 이후 한문, 영문 등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편집위원회는 각 어휘와 용어를 반복적으로 교정,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문식 표현과 유사한 어휘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현지 원음에 따라 보존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용어 사용, 서술 방식, 논리 구조 등이 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원형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힘썼다.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은 전문 촬영팀이 현지에 직접 들어가 촬영한 것이다. 현지 주민들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얻은 뒤, 현지인이 전통 복식의 착용 방식을 정확히 재현하여 착용하면 촬영팀이 이를 촬영하였고, 아울러 복식의 각 부위별로 따로 촬영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하면서도 정교한 시각적 효과를 구현하였다.

복식은 단순히 추위를 막고 아름답게 꾸미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미적 감각을 전승하는 정신적 상징이기도 하다. 본서에 수록된 전통 복식은 소재의 선택, 색상 배합, 도안과 문양, 재단과 봉제 기법 등 여러 측면에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상과 아름다운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본서 집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전문가와 학자, 지역 지식인, 민간 문화 전승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서에 혹시라도 착오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

2026년 1월 13일

목 차

머리말	001
서문	004
01. 번즈란(奔子栏) 복식	009
02. 양라(羊拉) 여성의 복식	039
03. 더친(德钦) 복식	052
04. 타청(塔城) 여성의 복식	071
05. 바주(巴珠) 복식	085
06. 니시(尼西) 복식	104
07. 우징(五境) 여성의 복식	121

08. 젠탕(建塘) 여성의 복식	134
09. 둥왕(东旺) 여성의 복식	169
10. 니루(尼汝) 여성의 복식	185
11. 거잔(格咱) 여성의 복식	205
12. 나무이(纳木依) 여성의 복식	218
13. 지쑤(机素) 복식	234
14. 수뤄(水洛) 여성의 복식	253
15. 마오뉴핑(牦牛坪) 여성의 복식	271
16. 러바무(热巴舞) 공연 복식	284
용어집	304

01

ཀོང་ཕེད་ར་བའི་གོས་རྒྱ།

번즈란(奔子栏) 복식





① 셔츠
속셔

② 겹치
견사 셔츠

③ 푸루포
푸루포

④ 허리띠
허리띠

⑤ 바지
바지

⑥ 장화
금사 벨벳 장화



- | | | | | |
|---------------------|-------------------|---------------------------------|------------------------------|----------------------------|
| ① ལག་རས།
두건(락래) | ② མགོ་དགེས།
고삐 | ③ སྒོ་ཁྱ།
귀걸이(속나) | ④ སྒྲོ་གོས།
상의 | ⑤ སྒྲོ་ཕྱོང་།
조끼(푸똥/각똔) |
| ⑥ གཤུ།
가우함 | ⑦ རྩང་ཚེ།
똥찰 | ⑧ སྒྲ་རགས།
허리띠 | ⑨ ཐྱེང་བ།
목걸이 | ⑩ སིང་སྒྲི།
쌍쌍 |
| ⑪ ལག་ཉྱེ།
팔찌(락녹) | ⑫ ལག་རས།
손수건 | ⑬ སྒྲུ་མོ་རས་སྒྲུ།
치마(난모/래남) | ⑭ གཡས་ཉྱེ་དངུལ་ཐྱ།
애혜/응굴파 | |

번즈란(奔子栏)은 과거 쓰촨성 바탕(巴塘)의 관할이었으나, 현재는 더친현(德钦县)에 속한 하나의 진(镇)이다. 이 지역은 바이마설산(白马雪山) 산기슭과 진사강(金沙江) 유역에 위치하며, 차마고도 상의 중요한 역참지였다. 평균 해발고도 약 2000m로, 건조하고 더운 하곡인 건열하곡 기후에 속하며, 생활방식은 반농반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번즈란의 복식문화는 귀창(锅庄)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힘입어 충분히 중시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남성의 복식

번즈란 지역 남성 복식은 캄바 지역 복식의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면서도 선명한 지역적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복식은 모자, 건사 셔츠, 포, 허리 띠, 바지, 장화 등의 의복류와, 귀걸이, 가우함 등의 장신구로 이루어진다.

머리 스타일

과거 남성들은 머리카락을 세 가닥으로 땋았으며, 젊은이들은 여기에 붉은색 실을, 연장자는 검은색 실을 엮어 길게 이어 붙였다.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땋은 머리에 옥반지와 상아 고리를 끼워 장식한 뒤, 이를 머리 위로 감아 올렸다. 이러한 머리 스타일을 '가까' 혹은 '고찌'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에는 소수의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자

현지 방언으로 모자는 ‘화’ 또는 ‘히와’라 불린다. 과거 혼례 때 신랑은 짝다 모자를 쓰고 신부는 속샤 모자를 썼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금화 모자를 쓴다. 남성들은 말을 타고 멀리 갈 때나 추운 겨울철에는 여우 가죽 모자를 썼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는 서양식 모자인 양모를 쓰는 남성이 많으나, 법회나 혼례 등의 자리에서는 대다수 남성이 금화 모자를 착용한다.





금화 모자는 당초 상인들에 의해 위짱 지역에서 유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현지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모자의 겉감은 금단으로 제작하고, 안감은 과거에 모직을 썼으나 지금은 일반 천 등을 사용하여 봉제하며, 속층은 펠트로 만든다. 모자 몸체에는 여러 줄의 물결무늬 금선이 장식되어 있다. 모자에는 크기가 다른 네 개의 모자 귀가 달려 있는데, 그 안쪽은 과거에 수달 등의 모피로 만들었으나 현재는 주로 인조모를 사용하며 색상은 모두 검은색이다.

금화 모자를 쓰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째, 두 개의 큰 모자 귀나 작은 모자 귀를 각각 앞뒤로 향하게 쓰는 방식이다. 둘째, 큰 모자 귀 하나를 모자 안으로 접어 넣고 쓰는 방식이다. 셋째, 모자 귀를 전후좌우에 정확히 맞추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여 쓰는 방식 등이다. 현지의 연장자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어떤 모자이든 천이나 산호 구슬 꿰미로 만든 속이 빈 매듭 장식을 모자 꼭대기에 달아야 했다고 한다. 귀창 노랫말에도 ”머리에는 꼭지 달린 모자 쓰고, 몸에는 백색 푸루를 두르고, 발에는 무지개 장화 신었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자 꼭지가 중요한 장식이자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견사 셔츠

상체에는 긴 소매의 흰색 견사 셔츠를 입는데, 이는 매우 길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 지에는 다음과 같은 귀창 노랫말이 전해진다. “장사가 한 해 좋지 않아도 또 한 해는 좋아지니, 셔츠는 설산에 햇빛이 비치는 듯해야 장사가 한 해 잘된다.” 이는 곧 셔츠가 태양이 설산을 비추듯 희고 밝아야 좋다는 뜻을 담고 있다.

포(긴 겹옷)

과거에 남성들은 현지의 면양 털로 짠 비지포나 모직포 등을 입었다. 오늘날 격식있는 차림을 할 때는 대개 적갈색 푸루포를 입는데, 그 깃 가장자리에는 ‘따콕’이라 불리는 청색 또는 녹색의 테두리 장식을 두른다. 60세 전후의 연장자들은 평상시에 검은색 천으로 된 포를 입는다.

허리띠를 맬 때 포의 밑단은 반드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복식 착용법은 과거 궁정 귀족과 관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귀족과 관료들은 평소에 육체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 특히 관리나 큰 스승을 맞이할 때 영접하는 이는 포의 밑단을 발목 부근까지 길게 늘어뜨려 입는 풍습이 있었으며 이는 공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지역은 연중 기후가 온난한 편이므로 주민들은 주로 비교적 얇은 푸루나 천 소재의 옷을 입는다.



허리띠

이들의 허리띠는 주단(綢緞) 허리띠, 양모 허리띠, 그리고 자차(嘉察) 허리띠 세 종류로 나뉜다. 일상생활에서 남성들은 주로 면양 털로 짠 양모 허리띠를 맨다. 격식있는 차림을 할 때 남성들은 포 위에 두 줄의 허리띠를 매는 관습이 있다. 먼저 자차 허리띠를 매어 허리 뒤 쪽에서 매듭을 짓고 끝자락을 길게 늘어뜨린다. 이어 자차 허리띠 위에 장식용으로 주단 허리띠를 매어 허리 앞에서 매듭을 짓는데, 이러한 매듭법을 '전결(前結)'이라 부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주단 허리띠 한 줄만을 맨다.





바지

하의로는 흰 천이나 견사로 만든 통이 넓은 바지를 입는다. 바지 밑단을 장화 안으로 넣고 장화 끈으로 고정하며, 통통하고 넓은 바지가랑이는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장화

발에는 가죽 장화나 금사 벨벳 장화를 신는다. 남성용 장화와 여성용 장화는 제작 방식과 색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남성용 장화의 앞쪽 몸통 부분은 검은 가죽으로 만들고, 옆면과 장화 목 부분은 검은색 금사 벨벳으로 만든다. 통상적으로 남성용 장화에는 코가 하나만 있고, 여성용 장화에는 코가 두 개가 있어, 현지 방언에서는 각각 '단코 장화'와 '쌍코 장화'로 구분하여 부른다. 남성용 장화의 밑창은 여러 겹의 천을 겹치는 방식과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는 방식이 있다. 장화 앞코 좌우, 뒤꿈치, 그리고 앞쪽 몸통 부위에는 흰 가죽으로 봉제한 길상 문양이 있으며, 또한 대보(大宝)의 여섯 장식 가운데 왕비의 귀걸이를 상징하는 문양 등이 장식된다. 장화 밑창에는 쇠징을 박아 춤을 출 때 달가닥거리는 소리를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밑창을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현지의 귀좡 노랫말에는 "장사가 한 해 좋지 않아도 또 한 해는 좋아진다. 장화 끈에는 새 발자국 무늬가 있



어, 장사가 한 해 좋아진다. 장사가 한 해 좋지 않아도 또 한 해는 좋아진다. 장화는 공작의 깃털처럼 화려하여, 장사가 한 해 좋아진다. 장사가 한 해 좋지 않아도 또 한 해는 좋아진다. 장화 밑창에는 36개의 징이 박혀 있어, 장사가 한 해 좋아진다.”라고 노래한다. 이는 장화가 복식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잘 보여준다.

과거 이 지역 사람들은 뛰어난 염색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면양 털, 면직물, 삼베, 모직 등에 현지의 황토나 대황 등을 염료로 사용하여 염색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장에서 기성품 천을 사서 옷을 만들며, 과거처럼 직접 실을 짓고 옷감을 짜는 일부터 시작하여 옷을 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생태 균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지금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연장자들은 색상이 지나치게 화려한 의복은 입지 않는다. 만약 집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기면, 현지 풍속에 따라 고인의 옷을 깨끗이 씻은 뒤 태워서 애도와 존경을 나타낸다.



장신구

왼쪽 귀에는 은 귀걸이를 착용한다. 귀걸이의 갈라진 부위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아 장식하는데, 현지인들은 이를 '산호 삼첩(三疊)'이라 부른다. 이는 현지 귀왕 노랫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장사가 한 해 좋지 않아도 또 한 해는 좋아진다. 귀걸이 산호 삼첩하니 한 해 장사 잘 되리"라는 구절이 있다. 가격이나 재질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귀걸이는 비교적 귀중한 장신구에 속한다. 옛날 귀족들은 두 개의 귀걸이를 착용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큰 것은 오른쪽 귀에 작은 것은 왼쪽 귀에 달았다. 이러한 착용 방식은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연장자들의 구슬로만 전해진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남성들은 목에 작은 가우함을 걸며, 먼 길을 떠날 때는 불탑과 가피 물품 등 성물을 담은 큰 호신용 가우함을 거드랑이 아래로 비스듬히 메기도 한다. 왼손에 착용하는 상아 팔찌는 장식일 뿐만 아니라 중풍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진다. 허리 오른쪽에는 현지에서 '인도(印度) 들소 칼'이라 불리는 단도를 찬다. 이러한 장신구들은 보통 설날이나 연회 등 성대한 행사에서만 착용하며, 번즈란 귀왕을 출 때는 어떠한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는다.



번즈란은 독특한 건축과 귀창 등 풍부한 민속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한 데 어우러져 독특한 복식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는 현지인들의 미적 감각과 가치관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여성의 복식

여성의 전체 복식은 두건, 상의, 조끼, 치마, 허리띠, 장화 등의 의복류와 귀걸이, 목걸이, 가우함, 팔찌, 씽씽, 뚱찰 등의 장신구류로 구성된다. 이 복식은 현지의 유명한 번즈란 귀왕 춤을 출 때 반드시 갖추어 착용해야 하므로, 이를 '귀왕복'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찌

과거 이 지역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세 가닥으로 땋았으며, 땋은 머리끝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털실을 엮어 넣었다. 이어 머리 위 시계 방향으로 한두 바퀴를 감아 올렸으며, 땋은 머리의 끝자락에 남은 술은 왼쪽 귀 뒤편으로 늘어뜨렸다. 이러한 머리 모양을 '고찌'라 하며 길상의 차림새로 여겨졌다. 오늘날은 직접 머리를 땋는 경우가 드물며, 대신 검정, 파랑, 노랑, 분홍 등의 털실을 세 가닥으로 땋아 머리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의 고찌를 사용한다. 과거에는 생활 여건의 제약으로 털실의 품질과 색상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각의 색에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파랑은 하늘을, 노랑은 태양을, 분홍은 무지개를 상징한다.

두건

고씨 위에는 길이 약 4m, 폭 약 8~10cm의 붉은 천으로 된 두건을 평평하게 감아 두르는데, 이를 현지에서는 '락래'라 부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두건의 한쪽 끝으로 정수리를 덮은 뒤에 감아올렸다고 하는데, 이는 혼례 때 신부가 붉은 천으로 머리를 가리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방식이 거의 사라지고, 고씨와 두건을 함께 꿰매어 바로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미혼 여성은 붉은색 두건을, 중년 및 노년 여성은 검은색 두건을 감았다. 현재는 이러한 구분이 거의 사라지고 대체로 붉은색 두건을 사용한다.





상의

상체에는 황색, 적색, 청색 등의 주단으로 만든 상의를 입으며, 천으로 된 형태도 존재한다. 밑단 안쪽에는 술 장식이 달린 흰 견사 천을 덧대어 장식하는데, 이를 ‘찌렌’이라 한다. 이는 과거 현지 여성들이 견사 셔츠를 입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장식적인 형태로 간소화되었다.



조끼

과거 여성들은 상의 위에 현지에서 ‘푸똥’ 또는 ‘각똥’이라 불리는 조끼를 겹쳐 입었다. 이는 주로 검은색 금사 벨벳으로 제작하며, 깃 부분에는 ‘깨논’이라 불리는 비단 테두리 장식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금선이 더해진다. 오늘날의 조끼는 대부분 금사 비단으로 제작하며, 좌우와 앞뒤에 트임을 낸다. 트임의 가장자리에는 ‘커랑’이라 불리는 천으로 구름무늬를 수놓는다. 이러한 트임은 부와 권세 등을 상징하는 길상적 요소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귀족 등 부유한 가문을 제외한 일반 가정 여성의 조끼에는 보통 트임을 내지 않았으나, 이후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트임을 내는 풍습이 점차 유행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엄격한 기준이 없으며 보통 2~4개의 트임을 낸다.

치마

하의로 입는 치마는 ‘난모’ 또는 ‘래남’이라 불린다. 과거에는 양모로 직조한 뒤, 이를 물에 담가 적신 상태에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주름을 잡아 눌러 만들었다. 오늘날 격식있는 차림을 할 때 여성들은 흰 천으로 만든 주름이 많은 긴 치마를 입으며, 치마의 중앙에는 적색, 녹색, 흑색 등이 어우러진 무지개 문양을 장식한다. 전통 관념에 따르면 황색은 존귀한 색상이기에 하의 등 아래에 걸치는 의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에는 권력과 지위를 가진 귀부인만이 검은색 치마를 입을 수 있었다.

전해지기로는, 번즈란 여성 복식은 나시족(纳西族) 공주인 장사추전(姜萨秋珍)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녀가 티베트로 향하던 중 이곳을 지나다 귀창 춤에 깊이 매료되어 현지인들과 사흘 밤낮을 함께 춤추었으며, 떠나기 전 완전한 복식 한 벌을 남겨두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현지 복식이 어느 정도 나시족 복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전해진다.







허리띠

허리에는 일반적으로 자차 허리띠와 주단 허리띠 두 개의 띠를 맨다. 먼저 치마 위에 자차 허리띠를 매어 허리 뒤에서 매듭을 짓고, 긴 끝자락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그다음 주단 허리띠를 겹에 입은 조끼와 씽씽 위에 느슨하게 매어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서 매듭을 짓고, 끝자락은 약간 늘어뜨린다. 이 띠는 동시에 씽씽과 똥찰 등의 장신구를 고정하는 기능을 한다.



장화

현지 여성의 전통 티베트 장화는 앞코가 두 개인 쌍코 장화로,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어 밑창을 만들고, 모직 등을 사용하여 장화 몸통과 윗부분을 제작한다. 이외에도 금사 벨벳 등의 재질로 만든 장화도 있다.

장신구

귀걸이는 현지에서 ‘속나’라 불린다. 과거에 여성들은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은귀걸이를 착용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금귀걸이를 한다. 두 귀걸이는 ‘나독’이라 불리는 은사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두건과 땀은 머리 사이를 지나가면서 귀걸이의 무게감을 덜어주고 귓볼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목에는 터키석, 산호, 천주 등을 섞어 꽤 긴 목걸이와 은제 육각형 가우함 등을 착용한다. 손목에는 현지에서 ‘락록’이라 불리는 은팔찌와 상아 팔찌를 착용한다.

또한 여성들은 ‘쌍쌍’이라 불리는 한 쌍의 은제 가슴 장식을 착용하는데, 이는 어깨를 거쳐 가슴 앞으로 늘어뜨린다. ‘똥찰’이라 불리는 은 장식은 목에 건 가우함의 끈에 고정하여 등 뒤로 늘어뜨린다. 이 중 쌍쌍은 네 줄의 꽃 모양 은사슬이 차례로 길상결, 쌍어(双鱼), 나비 등의 장식을 연결한 것이며 끝부분에 작은 은방울이 달려 있다. 똥찰은 세 줄의 꽃 모양 은사슬을 나란히 배열하여 길상결 모양의 장식을 연결한 것으로, 그 위에는 터키석, 진주, 산호 등의 보석이 박혀 있고, 아래로는 일곱 줄의 은사슬이 나란히 늘어져 있으며 끝에는 구슬이 꿰어져 있고 맨 끝에는 다양한 색상의 술이 장식되어 있다. 귀짱 춤을 출 때 이러한 장신구들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 부딪히며 반주와 같은 소리를 내어 춤 동작을 통일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귀짱 춤을 출 때 오른손에는 가운데에 손가락 고리가 달린 사각형의 흰색 손수건을 드는 관습이 있는데, 이는 과거의 혼례 풍습과 관련이 있다. 신부가 붉은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며 부모와 고향을 떠나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던 데서 유래했다. 오늘날 귀짱을 출 때 손수건은 빠질 수 없는 장식품이 되었다.

과거 여성들은 허리에 은제 조각 장식 허리띠를 착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붉은 가죽이나 모직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은방울을 박은 형태였다. 오늘날에는 결혼식 이외의 경우, 귀짱을 출 때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허리 오른쪽에는 현지에서 ‘애헤’ 또는 ‘응굴파’라 불리는 은 장식을 늘어뜨리는데, 이는 비단 띠를 바탕으로 터키석과 산호를 박았으며 끝부분에는 바느질주머니가 달려 있다.

현지에는 여성 복식과 관련된 많은 노래가 전해진다. ”라싸 아가씨 차림새 예쁘기도 하지, 머리장식엔 곱게 땃은머리 빠지지 않네. 라싸 아가씨 차림새 예쁘기도 하지, 귀 장식엔 붉은 산호 빠지지 않네. 라싸 아가씨 차림새 예쁘기도 하지, 목 장식엔 좋은 gau 빠지지 않네. 라싸 아가씨 차림새 예쁘기도 하지, 몸에는 아름다운 상의 빠지지 않네. 라싸 아가씨 차림새 예쁘기도 하지, 허리엔 은 장식 찹마 빠지지 않네. 라싸 아가씨 차림새 예쁘기도 하지, 허리엔 자차 허리띠 빠지지 않네. 라싸 아가씨 차림새 예쁘기도 하지, 발에는 티베트 장화 빠지지 않네.”



전반적으로, 진사강 유역의 복식은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윈난성 디칭의 튀딩(拖顶), 샤뤄(霞若) 등지의 남녀 복식과 머리 닿는 방식은 번즈란과 대체로 유사하다.

번즈란 복식은 차마고도 문화의 정수를 집약하고 있다.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확고한 전통 의식을 바탕으로 복식과 가무 등 민속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보호해 왔다. 바로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 복식은 오늘날 윈난 지역을 대표하는 복식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02

གཡག་རྩེ་བུད་མེད་ཀྱི་གོས་རྒྱ།

양라(羊拉) 여성의 복식





- | | | | | |
|---|-------------------|----------------------|---------------|---------------|
| ① མགོ་རྒྱུན།
머리장식 | ② རྩ་ལོང་།
귀걸이 | ③ རྩལ་ལེན།
셔츠 | ④ སྤྱ་བ།
포 | ⑤ གཤུ།
가우함 |
| ⑥ ཆབ་མ་ལྷུགས་ཐག
조각 장식 허리
띠(찰마 짝탁) | ⑦ སྒྲ་རགས།
허리띠 | ⑧ བང་བཀལ།
앞치마(방법) | | |



양라(羊拉)는 더친현에 속한 하나의 향(乡)으로, 서북쪽은 티베트 망캉현(芒康县)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진사강을 사이에 두고 쓰촨성 바탕현(巴塘县)과 마주하며, 남쪽으로는 번즈란(奔子栏) 등지와 이어진다. 티베트어로는 '양하(央哈)' 혹은 '양라(羊拉)'라 불리지만, 일반적으로는 양라라고 칭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곳의 지형이 야크의 뿔과 비슷하여 '양라(羊拉, 야크 뿔이라는 의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양라향의 평균 해발고도는 약 3,200m이며 고원 온대 기후에 속한다. 이 지역의 복식은 더친의 일부 지역 및 티베트 망캉 등지와 대체로 유사하나, 일부 의복과 장신구의 명칭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별도로 기록한다.

전체 복식은 셔츠, 포, 허리띠,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류와 머리장식, 산호 삼첩 귀걸이, 부찌, 가우함, 조각 장식 허리띠, 로중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과거에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분홍색, 검은색, 녹색 등의 실띠와 함께 세 가닥으로 땋아 '고찌' 혹은 '쫓무'라 불리는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머리에 두르고 끝자락의 술은 오른쪽 귀 뒤편으로 늘어뜨렸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혼례 때 신부는 타인에 대한 예를 표하기 위해 땋은 머리를 머리에 두르지 않고 허리띠 안으로 밀어 넣어 고정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분홍색, 청색, 녹색 등의 색실을 세 가닥으로 땋아 만든 '까죽'이라 불리는 가체용 실다발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착용하며, 이때 술의 끝자락은 왼쪽 귀 뒤편으로 늘어뜨린다.



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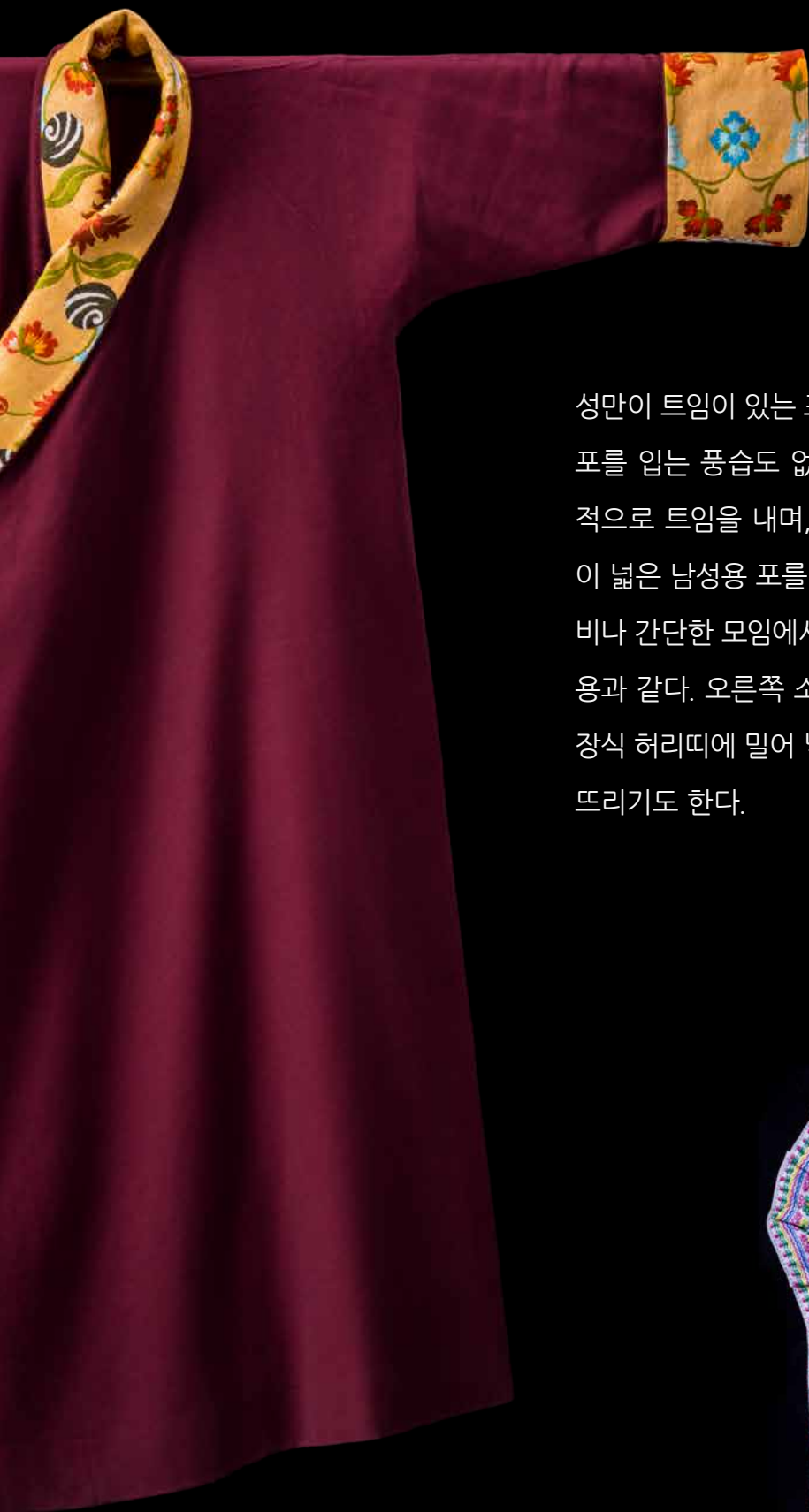
상체에는 분홍색과 백색의 견사 셔츠 두 벌을 겹쳐 입으며, 깃에는 비단 테두리 장식이 있고 소매가 긴 것이 특징이다. 바깥에는 흰색 셔츠를, 안쪽에는 분홍색 셔츠를 입는다. 안쪽 셔츠의 소매가 바깥 셔츠보다 약간 더 길다. 오늘날에는 일반 천이나 견사로 만든 흰색 셔츠 한 벌만 입는 대신 소매 끝에 한 뼘 정도 너비의 분홍색 천을 이어 붙여 그 효과를 낸다.





포

과거 여성들은 검은색 모직물로 만든 포를 입었으나, 현재는 푸루, 비지, 또는 천 소재로 만든 포를 주로 입는다. 포는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된다. 남성용 포는 대부분 몸통이 넉넉하고 소매가 길고 넓으며, 깃과 소매 끝 등에는 황색 비단으로 안쪽 테두리를 낸다. 여성용 포는 이보다 약간 작고 깃에 비단 장식이 있으며 소매가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로 나뉜다. 깃과 오른쪽 여밈 구조는 티베트식 상의와 동일하며 목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를 차례로 단다. 밑단 양옆에는 트임을 내고 그 가장자리를 비단으로 장식한다. 과거에는 트임이 있는 옷이 부유한 가정의 상징이었기에 소수의 여



성만이 트임이 있는 포를 입었으며, 여성이 폭이 넓은 남성용 포를 입는 풍습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용 포는 일반적으로 트임을 내며, 격식있는 차림을 할 때는 여성들도 폭이 넓은 남성용 포를 즐겨 입는다. 여성용 포는 대개 혼례 준비나 간단한 모임에서 착용한다. 여성용 포의 착용법은 남성용과 같다. 오른쪽 소매를 벗어 뒤로 넘긴 뒤 허리띠나 조각 장식 허리띠에 밀어 넣거나, 밀어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 뜨리기도 한다.





허리띠

허리에는 양모로 짠 자차 허리띠를 맨다. 과거에는 그 길이가 허리를 세 바퀴 감을 정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장식적인 형태로 변하여 허리를 한 바퀴만 감는 간소한 형태로 제작되며, 조각 장식 허리띠처럼 허리에서 직접 걸어 채울 수 있다. 엉덩이 좌우에는 ‘찰로’라 불리는 은제 꽃 모양 장신구를 다는데, 그 위에는 구슬과 터키석, 산호가 박혀 있고 아래로는 녹색과 분홍색 등 약 네 가닥의 실 술이 늘어져 있다.

앞치마

허리에는 ‘방법’이라 불리는 색띠 앞치마를 두르는데, 이는 가로 방향으로 무지개 무늬가 배열된 꽃무늬 천으로 제작한다. 앞치마의 상단 가장자리와 양쪽 모서리에는 황색 비단 테두리 장식이 더해진다.



신발

과거에는 현지에서 '갈람 호찌'라 불리는 가죽 장화를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구두나 천 신발을 주로 신는다.

기타 장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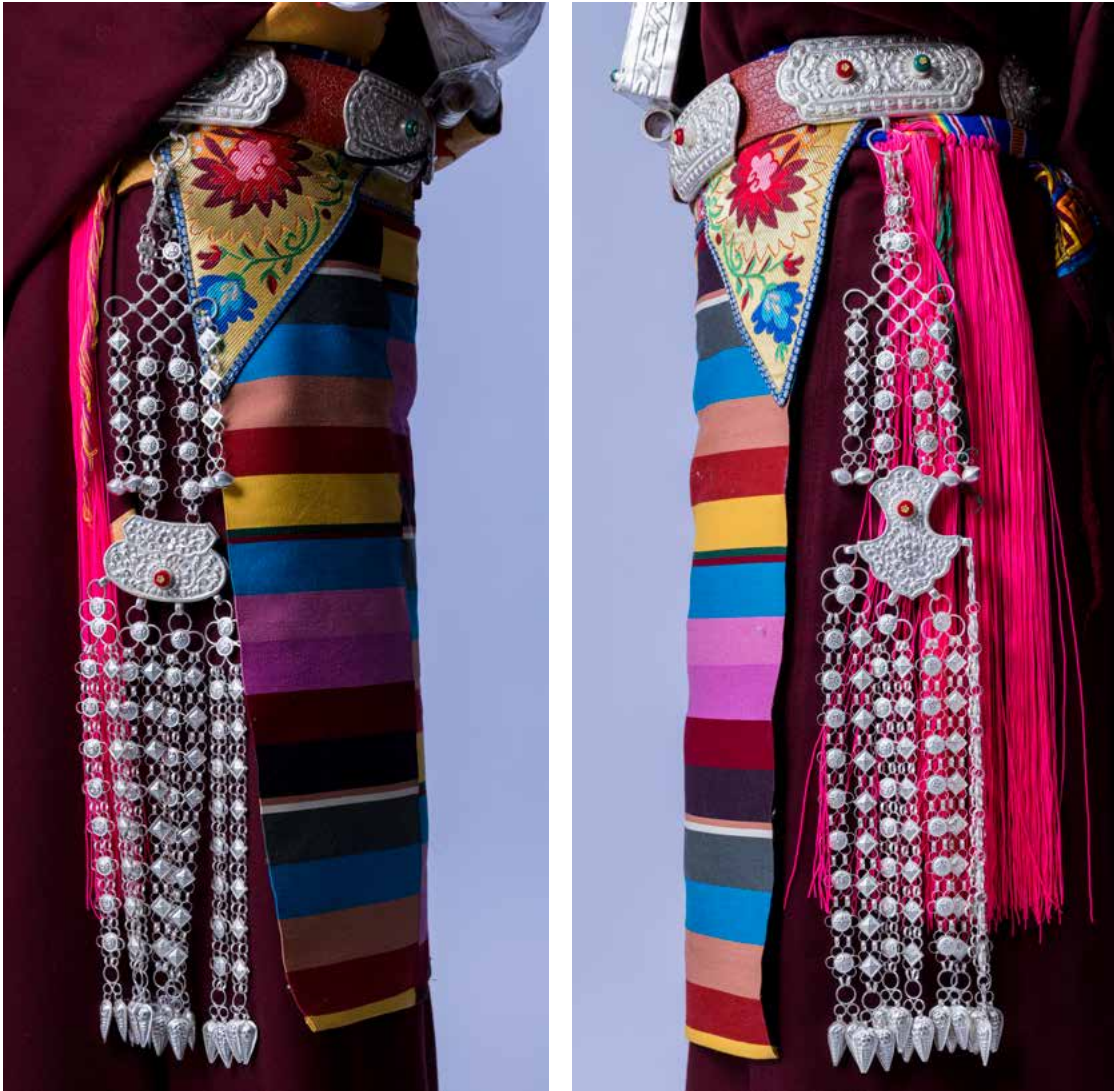
귀에는 산호 삼첩 귀걸이를 착용하는데, 이는 터키석, 산호, 마노 등을 층층이 쌓아 만든 것이다. 오늘날 여성들은 금이나 은을 두드려 만든 '나훔'이라는 이름의 룡탕(龙唐) 귀걸이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래 모양의 귀걸이를 하기도 한다.





목에는 터키석, 산호, 그리고 투각된 은구슬을 엮은 목걸이를 착용한다. 또한 현지에서 ‘부찌’라 불리는 납작한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이는 붉은색 바탕천 위에 여러 개의 작은 은방울을 배열하고 양 끝은 터키석과 산호가 박힌 꽃 모양 은방울로 장식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를 깃 단추로 사용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더 크고 길어져 복부까지 내려온다. 바탕천은 과거에 자ړ 푸루나 붉은 푸루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시장에서 구입한 일반 천을 주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터키석과 산호가 박힌 은제 십이지신 가우함이나 육각형 가우함을 착용하기도 한다.

이어 허리띠 위에는 ‘참마 짝탁’이라 불리는 조각 장식 허리띠를 착용하는데, 붉은 천을 바탕으로 그 위에 금방울이나 은방울을 꿰매 붙인 형태이다. 허리 앞쪽에는 은제 로종을 차고, 오른쪽에는 복주머니를, 왼쪽에는 바느질주머니를 매단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과거의 장신구는 작고 정교했으나, 이후 개인이나 가문 간의 과시욕으로 인해 점차 큰 장신구를 선호하는 풍조가 생겨나 오늘날의 장신구들은 대체로 크기가 크다고 한다.



또한 현지의 귀족 노랫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산호 삼첩 귀걸이는 우리 남자의 귀 장식이라네, 백 명 가운데 하나처럼 곱고, 이백 명 가운데 둘처럼 더욱더 아름답네. 십이지신 가우함은 우리 남자의 목 장식이라네, 백 명 가운데 하나처럼 곱고, 이백 명 가운데 둘처럼 더욱더 아름답네. 견사로 지은 셔츠는 우리 남자의 옷 장식이라네, 백 명 가운데 하나처럼 곱고, 이백 명 가운데 둘처럼 더욱더 아름답네. 포 위에 맨 자차 허리띠는 우리 남자의 허리 장식이라네, 백 명 가운데 하나처럼 곱고, 이백 명 가운데 둘처럼 더욱더 아름답네. 하늘의 무지개 같은 앞치마는 우리 남자의 치마 장식이라네, 백 명 가운데 하나처럼 곱고, 이백 명 가운데 둘처럼 더욱더 아름답네. 새 발자국 무늬 장화 끈은 우리 남자의 장화 장식이라네, 백 명 가운데 하나처럼 곱고, 이백 명 가운데 둘처럼 더욱더 아름답네.” 이와 같이 여성의 복식을 찬양하는 노래가 다수 전해진다.

양라 지역에는 셴쯔(弦子) 춤을 비롯한 풍부한 가무 문화가 있으며, 특히 혼례와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복식으로 단장함으로써 전통 복식을 훌륭하게 계승, 보존해가고 있다.



03

བདེ་ཆེན་ཚུང་གི་གོས་རྒྱ།

더친(德钦) 복식





① རྩོད་རྒྱུང་། རྩོད་བཅེངས།
퇴짱/퇴징

② རྩ་ཕྱེད།
나데

③ རྩ་ལོང་། རྩ་དགེ།
귀걸이(나찌)

④ རྩོང་བ།
텡와

⑤ འབྲུར་དགེ།
부찌

⑥ རྩོད་གོས། ཐུ་ཕྱུང་།
셔츠(띠괴/푸똥)

⑦ འབའ་ལྷ།
포

⑧ ཆབ་མ།
조각 장식 허리띠

⑨ རྩ་ཁ་སྐ་རགས།
자차 허리띠

⑩ བའ་བཀའ།
앞치마



① སོག་ལྷ།
속샤

② སྟོང་གོས།
셔츠

③ བདེན་གྱི།
장도

④ དབུལ་ཁྱུག།
돈주머니

⑤ སྒྱ་པ།
포

⑥ འབྲུ་རས་དོར་མ།
견사 바지

⑦ ཀོ་ལྷམ།
가죽 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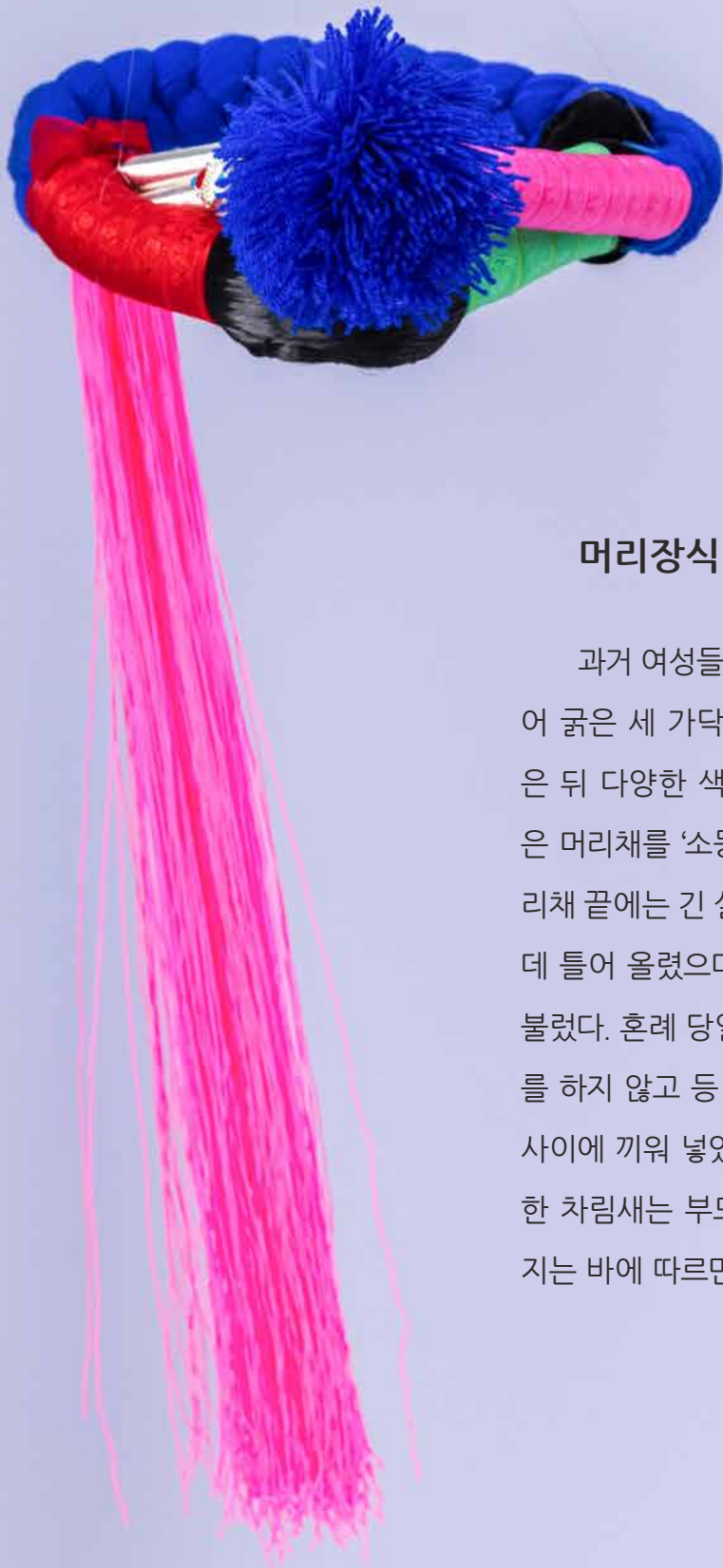
더친현(德钦县)은 메이리설산 기슭과 란창강 유역에 위치하며, 평균 해발고도 약 4,200m에 이르는 고원 산악 기후 지역으로,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더친현의 남쭈(南佐), 바디(巴迪) 일대 주민들은 성대한 의례적 자리에 특수한 복식을 갖춰 입는다.



여성의 복식

전체 복식은 셔츠, 포, 자차 허리띠,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머리장식, 귀걸이, 부찌, 조각 장식 허리띠, 찰로, 씽씨디라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과거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좌우 두 갈래로 균등하게 나누어 굵은 세 가닥으로 땋았으며, 끝부분에 실을 함께 엮어 넣은 뒤 다양한 색상의 실로 차례로 감아 장식하였다. 이어 땋은 머리채를 ‘소똥’이라 불리는 두 개의 은관에 끼워 넣고, 머리채 끝에는 긴 실 술을 달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머리 위에 한데 틀어 올렸으며, 이러한 머리 모양을 ‘퇴쭈’ 혹은 ‘퇴장’이라 불렀다. 혼례 당일, 신부와 손님을 맞이하는 이들은 퇴쭈 머리를 하지 않고 등 뒤의 머리채를 왼쪽 겨드랑이를 거쳐 허리띠 사이에 끼워 넣었으며 실 술은 몸 앞으로 늘어뜨렸는데, 이러한 차림새는 부모와 친지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퇴쭈의 오른쪽에 ‘나데’라 불리는



은 장신구를 착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원반 모양으로 중앙에 산호를 박았으나 오늘날에는 보기 드물다. 그 대신 시장에서 구매한 퇴종을 사용하는데, 그 위에는 분홍색, 청색, 녹색 등의 실이 차례로 감겨 있으며 오른쪽 귀 뒤편으로 긴 실 술이 늘어진다. 이마 위쪽에는 털실 술과 은 관 장식을 더하며 전체적인 모양은 소 코뚜레 형상으로 머리에 직접 쓸 수 있다. 이외에도 노년층은 분홍색 등의 색실을 꼬아 머리채를 만들거나 세 가닥으로 땀아 머리 위에 틀어 올리는데, 이러한 머리 모양을 ‘고찌’라 부른다.

셔츠

셔츠는 현지에서 ‘띠괴’ 또는 ‘푸똥’이라 불리며, 흰색 천이나 견사로 제작하고, 깃에는 비단 테두리 선을 두른다. 소매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걷어 올려 입다가, 더친 귀췌 춤을 출 때만 소매를 아래로 내려뜨린다.



포

셔츠 위에는 밑단 양옆에 트임이 있는 소매 있는 포를 입는데, 현지에서는 이를 ‘바라’라 부른다. 혹은 ‘한찌’ 또는 ‘칸젠’이라 불리는 소매 없는 포를 입기도 한다. 바라는 소재에 따라 푸루 바라, 천 바라, 자ړ 푸루 바라, 양모 바라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 오늘날에는 현지의 양모나 소의 솜털로 만든 바다가 매우 희귀해져서, 여성들은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 흑백 천이나 푸루로 만든 바를 입는다. 푸루로 소매 없는 포를 만들 때는 청색이 가장 유행했다고 전해진다. 『더친현 남쥬촌사(德钦县南佐村史)』(이하 『촌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신부와 들러리는 터키석처럼 푸른 푸루 장포를 걸치고, 상체에는 금선으로 장식된 살구빛 금사 벨벳 옷을 입는다. 색실과 함께 땀은 머리 위에는 금은사로 제작한 정교한 머리장식을 두르고, 양 귀에는 보석이 박힌



귀걸이를 늘어뜨리며, 가슴에는 보석이 집약된 삼격(三格) 가우를, 목에는 터키석과 산호로 이루어진 목걸이를 착용한다. 허리에는 오색무지개 같은 비단 허리띠를 매고, 좌우에는 금은으로 두드려 만든 복주머니와 바느질주머니를 매다니 그 아래 방울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낸다. 하의로는 비단 삼각 장식이 달린 앞치마를 두른다.” 더친 여성의 복식이 매우 풍부하고 화려함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전후의 옛 사진에서도 이러한 바라와 칸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차 허리띠

허리에는 양털로 엮은 자차 허리띠를 맨다. 과거에는 허리를 세 바퀴 감을 정도의 길이였으나, 오늘날에는 허리를 한 바퀴만 감는 평평한 모직 허리띠로 바뀌었다. 이는 조각 장식 허리띠처럼 허리에서 바로 여밀 수 있어 착용이 간편하다.

앞치마

과거에는 색띠 앞치마를 모직으로 제작하고 밑단에는 술 장식을 더하였다. 오늘날의 앞치마는 주로 비단이나 꽃무늬 천으로 제작하며, 상단 가장자리에 비단 테두리를 두르고, 좌우 양쪽 모서리에는 ‘나쪽’이라 불리는 삼각형 모양의 비단 장식을 더한다. 앞치마에는 여러 개의 무지개 무늬가 가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신발

과거에는 짚신, 가죽 장화, 자ړ 푸루 장화, 천 장화 등을 신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에는 격식있는 차림에서도 전통 티베트 장화를 신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그 대신 시장에서 구입한 티베트식 가죽 장화를 신는다.





기타 장신구

현지에서는 귀걸이를 ‘나찌’라 부른다. 그 중 ‘흰고래’라 불리는 은귀걸이가 있는데,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으며 꽃 모양의 은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착용 시에는 이 사슬을 머리카락 사이로 통과시켜 귀걸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목에는 ‘부찌’라 불리는 납작한 장신구를 착용한다. 이는 붉은 천을 바탕으로 그 위에 작은 은방울을 세 줄로 촘촘히 박고, 양 끝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힌 세 개의 약간 큰 은 꽃 장식을 한다. 과거의 ‘부찌’는 목걸이와 유사한 형태로 은방울이 두 줄로 장식되어 깃 부분에 채워 고정했으나, 오늘날에는 형태가 약간 더 크고 길어져 긴 목걸이처럼 아래로 늘어뜨린다. 바탕 재료 역시 과거에는 자ړ 푸루나 붉은 푸루를 썼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 천을 사용한다. 또한 목에는 터키석, 산호, 밀랍, 천주 등을 엮어 만든 ‘텅와’라는 목걸이를 걸며, 은제 사각형 가우함 등도 함께 착용한다.

허리에는 조각 장식 허리띠를 두르는데, 이는 붉은 모직이나 붉은 천을 바탕으로 하고, 청색 천으로 테두리를 두른 뒤, 그 위에 터키석과 산호가 박힌 은 장식 조각 다섯 개 정도를 꿰매 붙인 형태이다. 또한 ‘찰로’라 불리는 은 장식을 엉덩이 양측에 늘어뜨리는데, 꽃 모양의 길상 매듭 위에 구슬, 터키석, 산호가 박혀 있고 끝부분에는 녹색과 분홍색 등 색실로 만든 네 가닥의 술이 달려 있다. 이러한 장식은 과거에는 없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허리 좌우 양측에는 ‘쌍씨디라’라 불리는 은 장식을 늘어뜨린다. 그 위에는 터키석, 산호, 구슬 등이 박혀 있고 하단에는 여덟 줄의 꽃무늬 은 사슬 술이 달려 있으며, 끝에는 복주머니와 바느질주머니 등이 매달려 있다.

손목에는 ‘야눔’ 또는 ‘락녹’이라 불리는 은 팔찌나 상아 팔찌를 착용한다. 과거에는 손가락에 은 반지를 끼었으나 오늘날에는 금반지를 주로 낀다.

이러한 복식은 설날 같은 민속 행사에서만 성대한 차림으로 착용하며 노소를 막론하고 입는다. 반면 평상시에는 일부 연장자를 제외하고는 입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남성의 복식

더친 남성 복식의 전반적인 양식은 티베트 문화권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다. 머리카락을 실과 함께 세 가닥으로 땀은 뒤, 머리채에 상아 고리, 옥반지, 반지 등의 장식을 꿰어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

과거 머리에 쓰던 모자로는 여우 가죽 모자, 속샤(索夏), 서양식 모자인 양모, 금화(金花) 모자 등을 썼으며, "여름에는 양모를 쓰고, 겨울에는 금화 모자를 쓰네"라는 현지 민요의 가사처럼 계절에 따라 다른 모자를 착용했다. 귀족과 관원들은 장다(江达) 모자를 쓰기도 했는데, 모자 꼭대기에는 가는 산호 꿰미나 천으로 만든 속이 빈 매듭 장식을 달았다. 오늘날 혼례 등의 자리에서 신랑은 속샤를 쓰고 그 외 사람들은 금화 모자를 쓴다. 『춘사』에는 신부를 맞이하거나 보낼 때 부르는 모자에 관한 찬가가 기록되어 있다. "황색 모자 머리 위에 쓰니 그 빛깔 황금 태양 같고, 모자 술은 태양 빛 같네. 가장자리엔 금선을 두르고 꼭대기엔 붉은 산호를 장식하니, 이를 쓴 사내가 더욱 영웅답구나." 이를 통해 과거에 붉은 산호로 꼭지를 장식한 모자를 쓰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체 안쪽에는 깃에 비단 테두리를 두른 흰색 견사 셔츠를 입는데, 이를 '퇴괴'라 부른다. 셔츠 겉에는 깃과 소매 끝에 청색 천으로 테두리를 두른 푸루 포나 천으로 된 포를 입는다. 『촌사』에 "호랑이나 표범 가죽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푸루 포를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과거에는 동물 가죽을 덧댄 옷을 입었음을 알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풍습이 사라졌다.

허리에는 자차 허리띠를 매어 허리 뒤에서 매듭을 지으며, 끝자락의 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하의로는 백색 견사 바지를 입고, 발에는 금사 벨벳 장화, 가죽 장화, 송바(松巴) 장화 등을 신는다. 『촌사』의 기록에 따르면 "머리에는 속샤를 쓰고, 몸에는 푸루 포를 입으며, 발에는 알갱이 질감가죽 장화를 신는다"라고 되어 있어, 과거에 알갱이 질감가죽 장화를 신던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귀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은제 고리 귀걸이를 착용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목에는 '장갑'이라 불리는 원형의 작은 가우함을 걸며, 성대한 차림을 할 때는 길상팔보 문양의 커다란 가우함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비스듬히 맨다.

허리에는 가죽 바탕에 꽃 모양 은방울이나 산호를 박은 은판을 장식한 돈주머니를 차는데, 그 아래에는 은 사슬로 연결된 작은 가우함 모양 장식이 달린다. 허리춤에는 '답디'라는 장도를 꽂으며, 허리 옆에는 색실 술이 달린 단도 '독디'를 매단다. 다만 귀창을 출 때는 대개 칼을 차지 않고, 대신 현지 방언으로 '짹마'라 불리는 부싯돌을 매단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현지의 터키석, 산호, 귀걸이, 목걸이 등 일부 장신구는 과거 메이리 설산 기슭에 명주라카(明珠拉卡) 불탑을 건립할 때 복장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골동품 수집상에게 팔려나가 현재는 오래된 장신구가 매우 희귀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과거 현지인들은 식물 염료용 이용한 염색 등 뛰어난 수공예 기술을 보유했으나 생활 방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어떤 문화든 역사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 각 시대 삶의 흥망성쇠를 선명하게 비추어 준다. 더 친 지역의 복식과 풍습 또한 현지 문화와 생활의 굴곡진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04

མཐའ་ཚུའི་བུད་མེད་ཀྱི་གོས་རྒྱ།

타칭(塔城) 여성의 복식





① ལག་ཁྱིམ།
두건(락치)

② མགོ་དྲིལ།
고삐

③ རྗེ་ཁོག།
귀걸이(네콕)

④ གོང་སྟོང།
상의(공뵈)

⑤ སུ་སྐྱང་། ལག་སྟོང།
조끼(푸똥/각뵈)

⑥ གུ་ལྩ་རྩེ་ཉོན།
가우함

⑦ སྐུ་ཕ།
허리띠(꾸와)

⑧ བ་ཁོག།
조각 장식 허리
띠(파콕)

⑨ སིང་སི།
쌍쌍

⑩ རྩེ་མ།
치마(헤마)



타청진(塔城镇)은 디칭장족자치주 웨이시현(维西县)에 속하며, 평균 해발고도는 약 2,000m로 중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토번(吐蕃), 사단(萨丹), 남조(南诏), 대리(大理) 등의 왕조가 서로 다른 시기에 이곳을 통치하였기에, 장족, 나시족, 이족, 리수족 등 여러 민족이 이곳에서 공존하며 문화와 민속 방면에서 상호 융합되었다. 특히 현지의 복식은 공예 기술, 재료 및 구조 등의 측면에서 진사강 유역의 번즈란진(奔子栏镇), 우징향(五境乡), 튀딩향(拖顶乡) 등지와 대체로 유사하나, 의복과 장신구의 명칭 등에서는 여전히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전체 복식은 두건, 상의, 조끼, 허리띠, 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귀걸이, 가우함, 목걸이, 조각 장식 허리띠, 쌍쌍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고찌

과거 이 지역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가늘게 세 가닥으로 땔었다. 땔은 머리끝에는 다양한 색의 털실을 합사실로 엮어 넣은 뒤 땔은 머리를 머리 위에 감아 올리고, 끝자락은 왼쪽 귀 뒤로 늘어뜨렸다. 이러한 머리 모양을 ‘고찌’라 한다. 오늘날에는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 직접 머리를 땔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신 검정, 파랑, 분홍, 청색, 분홍색 등의 털실을 함께 땔아 머리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찌를 사용한다.



두건

전통적으로 고씨 위에는 ‘락치’라 불리는 길이 약 4m, 폭 약 8~10cm의 붉은 천 두건을 감아 두른다. 두건을 감을 때는 먼저 한쪽 끝으로 정수리를 덮은 뒤 한 바퀴씩 평평하게 감아 돌리는데, 그 방식은 번즈란, 튀딩, 우징 등지와 유사하다. 노년 여성은 검은색 두건을 사용하고, 중년 여성은 자홍색 두건을 감으며, 미혼 소녀는 붉은색 두건을 감았다. 오늘날 여성들은 두건과 고씨를 함께 꿰매어 머리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붉은색 두건을 착용한다.



상의

상의는 현지에서 ‘공뵈’라 불리며, 주로 적색이나 청색 등의 비단 천으로 제작한다. 밑단 안쪽에는 술 장식이 달린 흰 견사 천을 덧대어 장식하는데, 이를 ‘찌렌’이라 한다. 이는 과거 상의 안에 흰색 셔츠를 입던 풍습이 있었으나, 이후 이를 간소화하여 미관을 위해 장식용 테두리를 꿰매는 것으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조끼

상의 위에는 ‘푸똥’ 또는 ‘각뵈’라 불리는 조끼를 입는다. 깃과 밑단 부분에는 비단으로 가느다란 테두리와 금선 장식을 하며, 밑단 앞뒤와 좌우 양측에는 모두 트임을 낸다. 과거에는 주로 삼베 등을 재료로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비단이나 천을 많이 사용하며 황색, 적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을 쓴다. 연장자는 주로 소박하고 단아한 스타일을 입으며 젊은 층은 화려하고 선명한 색채를 선호한다. 또한 사람들은 흰색 하다(哈达)를 어깨에 걸쳐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비스듬히 매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길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허리띠

허리띠는 현지 방언으로 ‘꾸와’라 불리며, 조끼와 상의 위에 약간 느슨하게 맨다. 양 끝의 술은 허리 뒤에서 무릎 뒤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과거 허리띠는 모직물인 무즈 등으로 짚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 다양한 색상의 천으로 제작한다.



치마

하의로는 현지에서 ‘헤마’라 불리는 검은색 긴 치마를 입는다. 이는 천으로 제작하며 주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치마 허리 부분에는 천으로 된 끈이 달려 있어 허리에 직접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 이러한 치마는 양털이나 소의 숨털을 손으로 짜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천으로 제작한다.



신발

과거에 여성들은 여러 겹의 밑창을 덧댄 티베트식 장화나 천 신발을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 일반 가죽 신발을 신는다.

장신구

귀에는 현지에서 ‘네콕’이라 불리는 귀걸이를 착용한다. ‘네’는 귀, ‘콕’은 고리를 의미한다. 여성들은 주로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은귀걸이를 착용한다. 전통적으로는 귀걸이를 귓구멍에 직접 걸었으나, 오늘날에는 큰 귓구멍을 뚫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여성들은 두 귀걸이를 은 사슬로 연결하고, 이 사슬을 두건 속에 통과시켜 고정한 뒤 두 귀걸이는 양쪽 귀 옆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목에는 은으로 제작하고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사각형 가우함을 착용한다. 현지 방언으로 가우함은 ‘게 혼’이라 하며, 장식한 터키석은 ‘쥬룩 응오릴마’, 산호는 ‘쥬룩 마창마’라고 부른다. 또한 ‘텡와’라 불리는 목걸이를 함께 착용하는데, 이는 터키석과 산호를 차례로 꿰어 만든 것으로, 어떤 이들은 이를 가우함의 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허리에는 ‘파콧’이라 불리는 조각 장식 허리띠를 매는데, 붉은 가죽이나 비단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은방울과 은 조각을 장식한 형태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파콧의 은방울은 지금보다 크기가 작았다고 한다.

하체에는 또한 ‘쌍쌍’이라 불리는 은 장신구를 늘어뜨린다. 이는 은 사슬로 두세 개의 가우함 모양 장식을 위아래로 연결하여 조각 장식 허리띠에 매달아 늘어뜨리는 구조이다. 가우함 모양 장식의 좌우에는 세 줄 또는 네 줄의 은 사슬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끝은 각각 허리띠의 좌우에 고정된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유행한 양식이며, 전통적인 쌍쌍은 허벅지 좌우 양측에 직접 늘어뜨리던 복주머니나 바느질주머니 같은 작은 장신구를 의미했다.

이러한 복식은 주로 명절이나 민속 행사 등의 자리에 성대한 차림으로 갖추어 입는다. 일상생활에서 연장자들은 보통 허리에 주름이 있는 청색 또는 백색의 앞치마만을 매는데, 그 가장자리에는 백색 또는 청색의 테두리가 있고 길이는 무릎 정도에 이른다.

또한 타청 인근에는 스스로를 ‘마리마사(玛丽玛萨)’라 칭하는 나시족의 한 분파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제사 등의 의식에서 전통 복식을 갖추어 입으나, 혼례 시에는 타청 지역의 티베트족 복식을 입는다.

타청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민족이 공존함에 따라 이곳의 문화 또한 충돌과 모방, 융합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각 민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식 문화와 민속 가무가 상호 의존하며 공생 공영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05

འབའ་བློས་ཀྱི་གོས་རྒྱ།

바주(巴珠) 복식





- | | | | | |
|-------------------------------|-------------------|-------------------------------|-------------------------------------|--------------|
| ① ཆེ་རིང་སྒྲིན་ཁེབས།
금화 모자 | ② མགོ་དྲིལ།
고삐 | ③ སུ་སྤྱང་། རག་ག་སྟོང་།
조끼 | ④ ཨ་ལྷ། སྟོང་འཁོག
셔츠(알라/스뽀
복) | ⑤ སུ་པ།
포 |
| ⑥ ཁྱེན་བཏགས།
멜빵(갑딱) | ⑦ རག་རས།
손수건 | ⑧ སྤུ་མོ།
바지(남모) | ⑨ སྤུ་མ།
장화 | |



① ལག་བྱིས།
두건(락치)

② རྒྱུ་ཁྱེད།
귀걸이

③ ཨ་ལྷ། སྟོང་འཛོག་
셔츠(알라/스뛰
복)

④ སུ་སྤྱང་། ལག་ག་སྟོང་།
조끼

⑤ ལག་རས།
손수건

⑥ སིང་སི།
쌍생

⑦ རྩོ་ཐོ།
치마(로토)

바주(巴珠)는 웨이시현 타청진 동남 방향에 위치한 마을로, 평균 해발고도 약 2,500m이며 중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이 지역의 지명은 ‘바주(巴珠)’, ‘바취(巴綽)’, ‘바중(巴仲)’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비교적 널리 전해지는 설에 따르면, 과거 바탕(巴塘)에서 몇 가구가 난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해 왔고, 이후 점차 번성하여 지금은 200여 가구에 이르는 큰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바주’라는 명칭은 바로 ‘바탕에서 피난 오다’라는 뜻에서 따온 것이다.

바주 마을의 민속과 복식은 주변 지역과 비교할 때 다소 차이를 보이며, 고유한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특히 러바(热巴), 창두(唱嘯)와 같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가무가 매우 풍부하다. 창두무를 공연할 때에는 먼저 천신, 용신, 복신 등 여러 신들을 맞이하는 의식을 행하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시 천신과 용왕을 환송하며 복을 기원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춤을 추는 주된 목적은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 풍년을 기원하고, 귀신과 장애를 물리치기 위함이라고 한다. 창두무를 공연할 때에는 남녀 모두 반드시 특별한 복식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



남성의 복식

전체 복식은 금화 모자, 셔츠, 조끼, 포, 바지, 장화 등의 의복과 하다, 반지, 멜빵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고씨

예전에 남성들은 머리를 길게 길러 세 가닥으로 땀았으며, 끝부분에 붉은색 실을 엮어 넣고 머리 위로 감아 올렸다. 이러한 머리 모양을 '고씨'라 한다. 오늘날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이 드물지만, 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분홍, 파랑, 녹색 등의 실을 세 가닥으로 땀아 금화 모자 바깥쪽에 감은 뒤 머리에 쓴다. 이는 타 지역과는 다른 이곳만의 독특한 방식이다.

현지인들은 모자를 '화'라고 부르며, 과거에는 서양식 모자, 여우 가죽 모자, 금화 모자, 너구리 가죽 모자 등을 썼으나 현재는 주로 인조모로 만든 금화 모자를 착용하고 여우 가죽 모자 등은 거의 쓰지 않는다.

셔츠와 조끼

상체 안쪽에는 현지에서 '알라' 또는 '스퇴복'이라 불리는 흰색 천 셔츠를 입으며, 깃과 소매 끝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다. 셔츠 겹에는 검은색 조끼를 입는데, 겹감은 금사 벨벳이고 안감은 모직이나 청색 천을 사용한다. 깃과 진동둘레 부분은 비단 테두리를 두르고 밑단 좌우 양측에는 트임을 낸다.





포

가장 겉에는 천이나 푸루 등으로 제작한 붉은색 포를 입으며, 포의 가장자리에는 '샌짹'이라 불리는 푸른색 천 조각이 덧대어져 있다. 오늘날에는 활동의 편의를 위해 전통 티베트 포를 상하 분리형으로 개조하여 입기도 한다. 상의 밑단에는 고무줄을 넣어 옷을 조일 수 있게 하고, 하의는 짧은 치마 형태로 만들어 허리 뒤쪽에 주름을 잡고 허리 부분에 천 끈을 달아 허리띠 없이도 바로 맬 수 있게 하였다.

바지

하반신에는 현지에서 '남모'라 부르는 흰색 바지를 입는다. 천이나 견사로 제작하며 바지통이 넓고 바지 끝단을 따라 술 장식을 단다. 바지를 입으면 이 술이 장화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진다. 과거 창두무 등을 공연할 때는 무릎 아래에 흰 견사 한 단을 덧붙였다가 공연이 끝나면 다시 떼어 보관하기도 했다.

장화

발에는 '호찌'라 불리는 가죽 장화, 금사 벨벳 장화, 형겔 장화 등을 신는다. 오늘날 창두무 공연과 같은 성대한 공연 시에는 여러 겹의 천을 덧대어 밑창을 만든 가죽 장화를 신는 경우가 많다.



장신구

목에는 흰 하다를 걸어 양 끝을 가슴 앞에서 묶거나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데, 이는 길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전해진다. 남성은 혼례 등 성대한 자리에서만 가우함을 착용하며, 창두무 공연 시에는 일반적으로 착용하지 않는다.

남녀 모두 오른손에 흰 손수건을 드는 풍습이 있다. 이는 초기에 아리쉬안무(阿里宣舞)를 출 때 리더가 흰색 야크 털을 손에 들었던 것에서 유래하여 점차 하다와 손수건으로 변했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설로는 창두 춤이 밤새 이어지기 때문에 무용수의 땀을 닦기 위해 흰 손수건을 사용하던 것이 풍습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엄지손가락에는 상아 반지를 끼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활을 쏘 때 엄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에는 보기 드물다. 허리에는 장식의 형태로 오색 비단띠로 만든 멜빵인 '갑딱'을 매는데, 이는 창두무 공연 시에만 사용하며 명절 등에서는 착용하지 않는다.





여성의 복식

전체 복식은 두건, 셔츠, 조끼, 치마, 신발 등의 의복과 더불어 귀걸이, 가우함, 팔찌, 하다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과거에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세 가닥으로 땋고 머리카락 끝부분에 실을 넣어 함께 땋은 뒤 머리 위로 감아 올렸다. 오늘날에는 직접 머리를 땋는 사람이 드물며, 대신 황색, 청색, 분홍색 등의 털실로 땋은 가चे 머리를 머리에 두른다. 이 가चे 머리 위에는 현지에서 ‘락치’라 불리는 길이 약 2m, 폭 약 10cm의 검은 천 두건을 감는다. 두건을 감을 때는 먼저 한쪽 끝으로 정수리를 덮고 나머지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머리에 감아 돌린다. 두건의 색상과 재질, 감는 방식은 지금까지도 전통을 따르고 있다.



셔츠와 조끼

상체 안쪽에는 현지에서 ‘알라’ 또는 ‘스퇴복’이라 불리는 분홍색 셔츠를 입으며, 깃과 소매 끝은 꽃무늬 푸루로 테두리 장식을 하고 밑단 안쪽에는 술이 달린 흰 천을 꿰매 붙인다. 셔츠 위에 조끼를 입는데, 겉감은 금사 벨벳이고 안감은 푸루나 청색 천을 사용한다. 깃과 진동둘레 부분은 바단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밑단 좌우 양측에는 트임을 낸다.





치마

과거에는 ‘로토’라 불리는 주름이 많은 검은색 치마를 입었으며, 이는 양털이나 소의 솜털로 수공 제작하였다. 현재는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 천 치마를 입으며 그 양식은 주변 지역과 유사하다.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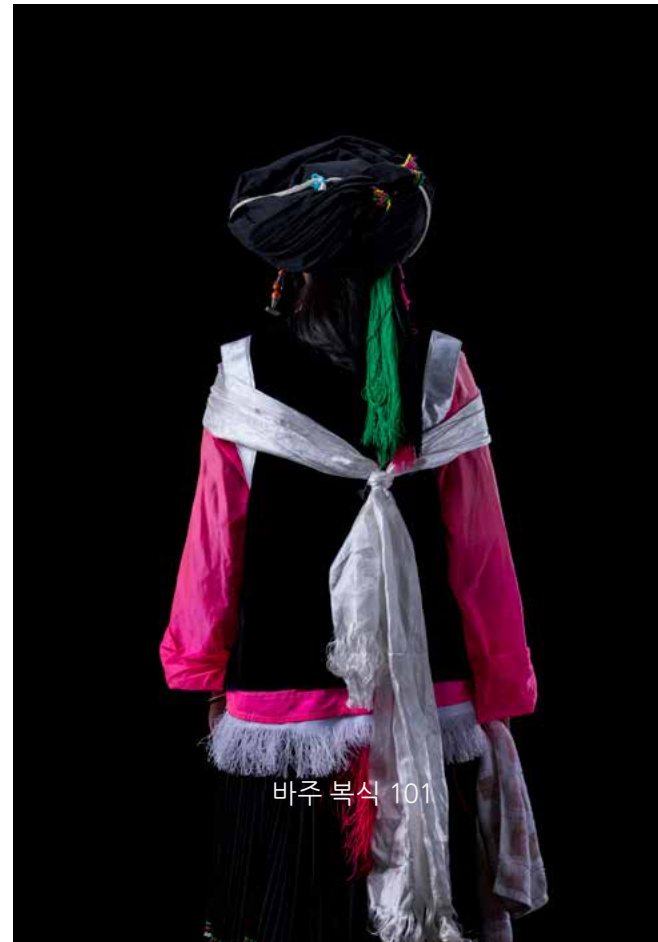
발에는 여러 겹의 천을 덧대어 밑창을 만든 티베트식 장화인 ‘호찌’를 신으며 가죽이나 금사 벨벳으로 제작한다. 현재는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 신발이나 천 신발을 많이 신는다.

장신구

귀걸이는 ‘산호 삼첩’이라 불리는 은제 귀걸이를 착용한다. 귓구멍에 직접 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귓구멍에 작은 고리를 끼운 뒤 그 고리에 귀걸이를 걸고 ‘나탁’이라 불리는 은 사슬로 양쪽 귀걸이를 연결한다. 이 사슬은 두건 위쪽을 통과하여 고정된다.

목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은제 육각형 가우함을 착용한다. 손목에는 ‘락녹’이라 불리는 상아 팔찌를 차는데, 이는 장식일 뿐만 아니라 중풍 등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사람들은 흰 하단을 가슴 앞부분에서 어깨를 거쳐 등 뒤로 넘겨 매듭지어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이는 인연과 길상을 중시하는 티베트인의 관념에 따라 마음의 순결무구함을 상징하며, 모든 이에게 순백의 하단을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혼례 등에서는 쌍쌍과 같은 작은 장신구를 착용하기도 하지만, 창두무 공연 시에는 대체로 착용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연장자 여성은 ‘락치’라 불리는 청색 천 두건을 두 겹으로 접어 머리에 감는데, 이 두건의 네 변에는 자수 장식과 술이 달려 있다. 두건은 청색, 분홍색, 검은색 등의 털실로 세 가닥 땀은 끈을 만들어 고정한다. 허리 뒤쪽에는 테두리 장식이 있거나 장식이 없는 청색 주름 앞치마를 맨다.

남녀를 불문하고 창두무를 공연할 때는 관자놀이에 ‘슈바’를 붙이는 풍습이 있다. 슈바는 송진을 바른 담배 종이로, 예전에는 밤새도록 춤을 추었기에 이를 붙여 어지럼증이나 중풍 등을 예방하려 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창두무는 풍요를 기원하고 서리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를 막는 특수한 효험이 있다고 여겨져, 과거에는 매년 한 번씩 공연하는 풍습이 있었다. 공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노랫말이 불린다. ”두건의 비단빛이 어우러지고, 귀걸이는 산호가 세 겹으로 겹치네. 가슴에는 하얀 하다가 빛나고, 가우는 몸을 보호하며 붉게 빛나네. 상의는 설산을 비추는 해와 같고, 허리띠는 무지개색을 다 갖췄네. 바지는 소라처럼 희고 술이 늘어졌으며, 가죽 장화에는 징이 서른여섯 개, 장화 끈은 한족 여인의 금실로 짰다네.” 이를 통해 이곳의 복식이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러바무와 창두무 등 춤 문화에 힘입어 바주촌의 복식은 외부의 혼입이나 영향 없이 잘 전승 및 보존되고 있다. 깊은 문화적 운취를 담은 이 아름다운 복식은 자연스레 사방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06

ཉི་ཤར་མོང་པའི་གོས་རྒྱ།

니시(尼西) 복식





① འཕན་སྒྲོ།
팬드로

② རྒྱུག་
귀걸이(나쿱)

③ ག་ཐུག་དཀར་དམར།
셔츠(샤툽 까마)

④ འཇའ་ཆོན་སྒྲོད་འཕོག་
조끼(자친 스펀복)

⑤ གུལ།
가우함

⑥ གཟན་ལྷ། གཟན་ཁྱེང་།
솔(샌라/샌풍)

⑦ ཆབ་མ།
조각 장식 허리띠

⑧ སིང་སི།
쌍쌍

⑨ སྒྲུ་མོ།
바지(남모)

니시향(尼西乡)은 현재 디칭장족자치주 상그릴라시(香格里拉市)에 속하며, 평균 해발고도는 약 3,000m이고 건열하곡 기후에 속한다. 주민들은 농업과 반농반목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향 내에는 탕두이(汤堆), 탕만(汤满), 싱푸(幸福), 난당(南当) 등의 마을이 있으며, 이들 마을은 의복 착용 방식, 장신구 양식 및 풍속 등에서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니시 복식은 진사강 유역의 번즈란진(奔子栏镇), 우징향(五境乡), 더룽(得荣)의 와카진(瓦卡镇) 등지의 복식과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복장의 형태와 착용 풍습 등에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낸다.



여성의 복식

전체 복식은 셔츠, 조끼, 자차 허리띠, 솔, 바지, 신발 등의 의복과 귀걸이, 목걸이, 가우함, 팔찌, 조각 장식 허리띠, 씽씽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팬드로

현지의 복장은 주로 비단, 금단, 천, 펠트, 가죽을 재료로 한다. 과거에 여성들은 격식있게 차려입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머리땃기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먼저 정수리의 머리카락 한 묶음을 취해 굵은 하나의 땃은 머리를 만들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여러 가닥의 가는 땃은 머리로 땃는다. 그런 다음 목뒤 부분에서 모든 땃은 머리를 합쳐 조금 더 굵은 세 가닥 땃은 머리를 만들고, 그 속에 검은색 털실을 함께 넣어 땃는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마다 다른 색의 털실로 단단히 묶고, 마지막에는 머리 위에 감아 올린 뒤 땃은 끝을 왼쪽 귀 옆에 늘어뜨리거나 머리카락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러한 머리 모양을 '팬드로'라 한다. 오늘날 60세 전후의 노년 여성들은 머리를 땃은 뒤 여전히 검은색 털실에 소량의 분홍색과 녹색 털실을 섞어 넣고 이를 함께 머리 위로 감아 올린다. 반면 젊은 층은 더 이상 직접 머리를 땃지 않으며, 격식 있는 차림을 할 때 녹색, 청색, 황색, 흑색 등의 털실로 미리 만들어진 팬드로를 머리에 직접 착용한다.





셔츠

상체에는 현지에서 ‘샤툽 까마’라 불리는 셔츠를 입는다. 이는 일반 천이나 견사로 제작하며, 깃 부분은 비단으로 테두리를 두른다. 현지 속담에 “남자는 순백의 옷을 입고, 여자는 선홍색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성은 견사 등으로 만든 흰색 옷을 주로 입고 여성은 적색이나 분홍색 등의 옷을 입는다. 셔츠의 소매는 긴 것과 짧은 것 두 종류가 있는데, 긴 소매는 땅에 닿을 정도이며 짧은 소매는 손목까지 온다. 법회나 혼례와 같은 자리에서 춤을 추어야 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차려입을 때 보통 긴 소매 셔츠를 입는다.



조끼 및 자차 허리띠

셔츠 위에는 현지에서 ‘자친 스펀복’이라 불리는 조끼를 입는다. 겹감은 금단으로, 안감은 모직으로 되어 있으며 신부가 혼례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복식이다. 조끼 위에는 장식용 자차 허리띠를 가지런히 매는데, 그 위에는 무지개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수

등에는 현지에서 ‘샌라’ 또는 ‘샌쥬’이라 불리는 직사각형 수를 걸친다. 이는 꽃무늬 푸루나 금사 벨벳 등을 바탕으로 하며, 좌우 양측은 꽃무늬 푸루로 테두리를 두르며, 상단은 폭이 넓은 자ړ 푸루로 선을 두른다. 중앙에는 사각형의 모직 조각이 장식되어 있고 밑단에는 붉은 실로 된 수를 단다. 이러한 수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 등 바람직한 품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법회, 축제, 스승 방문 및 손님 접대 등의 자리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나이 든 여성들은 ‘챵’이라 불리는 야크 털
솜을 걸치는데, 이는 방수 성능이 뛰어나다. 노
동을 할 때는 등을 보호하는 받침으로 쓰이며,
농사철에 없어서는 안 될 길상복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챵을 걸치고 농사를 지으면 그 해 풍년
이 들고 길상이 함께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유
로 나이 든 여성들은 언제나 챵을 등에 두르는
습관이 있다.





바지

하의로는 현지에서 ‘남모’라 불리는 바지를 입는다. 바지통이 매우 넓어 외관상으로는 헐렁한 흰색 주름치마와 유사하다. 바지 허리의 앞뒤에는 ‘빵숨’ 또는 ‘괴렘’이라 불리는 천 조각이 각각 달려 있으며, 이는 사리(인도의 전통 여성 의상)처럼 아래로 늘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바지의 솔기와 가랑이 부분을 가리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전통 예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뒤의 괴렘 위에는 ‘줄찰’이라 불리는 세 줄 가랑의 청색 가는 천 띠가 장식 형태로 늘어져 있는데, 이는 푸른 하늘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바지는 과거에 모직이나 삼베 등으로 제작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일반 천을 사용하여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대중적인 상의와 바지를 입으며, 등에 ‘찹’을 걸칠 때는 엉덩이 부위에 방덴과 유사한 청색 테두리 장식이 있는 천 조각을 두르는데 이는 허리 보호와 보온 기능을 겸한다. 다만 이 엉덩이 둘레 장식은 오래된 전통 복식은 아니며, 약 30여 년 전부터 점차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과거에 여성들은 비가 올 때 ‘고라’라 불리는 우비를 걸쳤다. 이는 양털이나 소의 숨털로 제작하여 머리와 상체를 완전히 가릴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사용하는 이가 거의 없다.

장화

과거에는 가죽과 금사 벨벳 등의 재질로 제작하고 여러 겹의 천을 덧대어 밑창을 낸 티베트식 장화를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다.

장신구

격식있게 차려입을 때 함께 갖추는 장신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귀에는 금이나 은으로 제작하고 터키석과 산호를 박아 넣은 ‘나콕’이라 불리는 귀걸이를 착용한다. 목에는 터키석, 산호, 밀랍 등의 보석을 차례로 펜 목걸이를 걸고, 여기에 육각형 가우함을 함께 매치한다. 손목에는 상아나 은 등으로 제작한 팔찌를 끼며 현지에서는 이를 ‘락녹’이라 부른다. 허리에는 금단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은방울을 박아 장식한 조각 무늬 허리띠를 매며, 은 사슬로 연결된 복주머니와 바느질주머니, 그리고 ‘쌍쌍’이라 불리는 작은 은 장신구를 함께 매단다. 오늘날 사람들은 은 사슬로 연결된 여러 개의 큰 가우함 모양 장식을 쌍쌍이라 부르며, 이것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몸 앞쪽으로 늘어뜨린다. 춤 공연 시에는 대개 큰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으나, 혼례나 설 등 중요한 행사에서는 기품과 부를 드러내기 위해 가능한 한 화려한 장신구를 많이 착용한다.





남성의 복식

과거 남성들은 여우 가죽 모자나 금화 모자 등 전통 모자를 즐겨 썼으나, 오늘날에는 인조 모피로 만든 금화 모자가 주류를 이루며 동물 가죽으로 만든 모자는 거의 사라졌다. 격식있는 자리에 남성들은 대개 푸루 포를 입고, 안에 견사 셔츠를 받쳐 입으며, 하의로는 견사 등으로 만든 흰색 긴바지를 입고 발에는 금사 벨벳 장화나 승마용 장화를 신는다. 또한 가슴에는 호신용 가우함을 착용하며, 허리에는 장도를 가로로 꽂거나 단도를 비스듬히 찬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의복과 장신구는 대부분의 티베트권 복식 양식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신년이나 새집 준공, 혼례 등의 자리에서는 현지 방언으로 ‘룽바샤러’라 불리는 춤을 추는데, 이는 역사 문헌에서 ‘니시(尼西) 연가’ 혹은 ‘니시 춤’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이는 니시 지역 민간에 전승되는 가무일 뿐만 아니라 디칭주 민간 문화 예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공연시 여성들은 니시 복식을 갖춰 입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라싸 성 안에 금화 모자 있네, 금화 모자는 오라버니 당신의 장식이라네. 바다 깊은 곳에 일곱 개 산호 있네, 일곱 개 산호는 선녀 언니의 장식이라네.”

이처럼 각 지역은 지리적 환경과 노동 활동,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복식의 재료, 제작 기법 및 미적 취향에서 저마다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니시 복식만의 독특한 품모가 형성되었다.



07

མོང་པ་ཤོག་ལཱ་འི་བྱད་མེད་ཀྱི་གོས་རྒྱ།

우징(五境) 여성의 복식





① **꺽꺽**
두건(락치)

② **꺽꺽**
귀걸이(나복)

③ **꺽꺽**
상의

④ **꺽꺽** **꺽꺽**
조끼(푸똥/각똥)

⑤ **꺽꺽**
가우함

⑥ **꺽꺽** **꺽꺽**
꺽꺽
조각 장식 허리띠

⑦ **꺽꺽** **꺽꺽**
바룩 갑슈

⑧ **꺽꺽**
쌈쌈

⑨ **꺽꺽**
치마(래갠)



우징향(五境乡)은 디칭장족자치주 상그릴라시에 속하며, 진사강 유역에 위치한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2,300m로 고원 산악 기후에 속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현지 주민 대다수는 과거 바탕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들의 후손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우징향의 복식은 진사강 유역의 번즈란 등지와 큰 차이가 없으며, 발전 과정에서 타 민족 복식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자신들만의 고유함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복식의 명칭과 착용 방식 등에서 완전하고 체계적인 민속 문화 체계를 형성하였다.

전체 복식은 두건, 상의, 조끼, 치마 등의 의복과 귀걸이, 조각 장식 허리띠, 바쿱캡슈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두건

머리에 두르는 붉은 두건은 ‘락치’라 하며, 길이는 약 2m, 폭은 약 50cm이다. 두건의 색상은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데, 과거에 여성은 14세가 되면 전통 티베트 복식을 갖추어 입고 붉은 두건을 두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혼인 적령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였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짙은 붉은색 두건을 사용하고, 60세 전후의 노년층은 검은 두건만을 두른다.

두건을 두르는 방식의 경우, 과거에는 한쪽 끝으로 정수리를 덮은 뒤 머리에 정성껏 감아올렸으나, 대략 21세기 초부터는 감지 않고 바로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간소화되었다.



머리 스타일

과거에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털실과 함께 두 가닥으로 땋아 머리 위로 감아 올렸으며, 땋은 머리 끝부분은 목덜미 뒤로 늘어뜨렸다. 이러한 머리 모양을 ‘까무’라고 한다. 오늘날 직접 머리를 땋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검정, 파랑, 분홍 등의 털실을 함께 세 가닥으로 땋아 두건 안쪽에 꿰매어 넣는다. 착용 시에는 끝의 술이 목덜미 뒤로 짧게 늘어지게 한다.





상의

상의는 황색, 적색, 청색 중 하나의 색상을 택해 금단이나 천으로 제작한다. 밑단 안쪽에는 술이 달린 흰 건사 천을 덧대어 장식하는데, 이를 '찌렌'이라 한다.



조끼

상의 위에는 금단으로 만든 조끼를 입는다. 깃과 밑단에는 금단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가는 금사로 레이스 장식을 하며, 밑단 좌우와 앞뒤에는 모두 트임을 낸다. 상의와 조끼를 합쳐 '따타 응아타'라 부르는데, 연장자 여성은 주로 소박한 단색을, 젊은 여성은 화려한 색상을 선호한다. 과거에는 주로 삼베로 제작하였다.



치마

현지 여성들이 하의로 입는 치마는 ‘래갠’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양털과 소의 솜털 등으로 직 접 짜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천을 사용하여 만든다. 치마 하단에는 가로 방향으로 아름다운 무지개 문양을 장식한다. 과거에는 귀족 등 신분이 높은 여성만이 검은색 치마를 입을 수 있었고, 평민 여성은 흰색 치마만을 입었다. 예컨대, 이 지역의 ‘낭단창(囊丹倉)’ 가문은 열한 명의 환생 라 마를 배출한 명문 집안으로, 그 가문의 여성들은 검은색 치마를 입을 자격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1940년대 전후부터는 평민 여성들도 점차 검은색 치마를 입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현지의 모든 여성이 검은색 치마를 입는다.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은 하체 앞쪽에 방덴과 유사한 검은색 천을 매고, 뒤쪽에는 흰색 천을 둘러 매는데 이 둘을 모두 앞치마라 부른다.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며 노동하기에 편리한 구조 이다.



장화

여성들은 가죽으로 제작된 전통 티베트식 장화를 신었으며 이는 과거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일반 가죽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아 전통 장화를 신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장신구

귀걸이는 현지에서 통칭 ‘나콕’이라 부르며, 대다수가 은귀걸이를 착용한다. 오늘날에는 귀걸이를 직접 컷구멍에 끼우지 않고, ‘나탁’이라 불리는 은제 귀걸이 사슬로 두 귀걸이를 연결한 뒤, 이 사슬을 두건 위로 지나가게 하여 귀걸이를 귀 옆으로 늘어뜨리고, 다시 실을 이용해 귀걸이를 귀 위쪽에 고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목에는 산호와 밀랍을 차례로 꿰어 만든 목걸이와 가우함 등의 장신구를 착용한다. 과거에 여성들은 비교적 작은 가우함만을 착용했으나, 시대의 변화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오늘날에는 중앙에 세 개의 구슬이 박힌 금, 은으로 만든 큰 가우함을 착용한다.



허리 장식에는 자차 허리띠, 모직 허리띠, 조각 장식 허리띠 등이 포함된다. 착용 시에는 먼저 조끼 위에 자차 허리띠를 가리런히 매고, 그 위에 커다란 은방울이 달린 조각 장식 허리띠를 두른다.

하반신 양측에는 꽃 모양의 은 사슬을 연결하여 만든 ‘바국갑슈’라는 은 장식을 늘어뜨린다. 허리 오른쪽에는 바느질주머니를, 왼쪽에는 복주머니를 찬다. 이외에도 ‘쌍쌍’이라 불리는 장신구가 있는데, 이는 은 사슬을 이용해 큰 가우함 모양의 금은 장식 세 개를 위아래로 차례로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허리 앞에 늘어뜨린다. 쌍쌍은 혼례나 꽃놀이 축제 같은 비교적 성대한 자리에서만 착용하며 일반적인 모임에서는 착용하지 않는다.

우징향은 복식, 음식, 언어 등 여러 방면에서 타 민족 문화와 서로 어우러지지만, 현지인들은 꽃놀이 축제 기간에 귀창무를 추고 센쯔를 노래하는 등의 민속 문화 활동을 통해 복식 문화를 지속적으로 중시하고 전승해오고 있다.





08

ཀྱུལ་ཐང་བུད་མེད་གྱི་གོས་ཀྱིས།

젠탕(建塘) 여성의 복식





① སྐམ་ལྷན།
수달 가죽 모자

② གཞོན་སྐྱེ།
논까

③ རེ་ཀོས།
자모구

④ གོང་སྟོང།
솔(공퇴)

⑤ ལྷགས་ཐག།
짜탁

⑥ གཤུ།
가우함

⑦ ལྷང་སྟུང།
장술

⑧ ཆབ་མ།
조각 장식 허
리띠

⑨ མ་གོས་སྟོང་འཛོག།
조끼(마괴 스피복)

⑩ རིལ་བྱ་ཁབ་ལྷུངས།
질부 갑슈



① **해뜨개'래**
화모

② **쑤'쌔'래**
금사 벨벳 모자

③ **쌔'곶'쌔'래'래'래**
조끼(마괴 스펀
복)

④ **쌔'곶'래**
자모구

⑤ **가'래**
가우함

⑥ **쌔'래'래'래**
짜탁

⑦ **가'래'래'래'래'래**
솔(쌔래/쌔래)

⑧ **쌔'래**
조각 장식 허
리띠

⑨ **쌔'래'래'래**
복주머니

⑩ **쌔'래'래'래'래'래**
질부 캡슈

⑪ **쌔'래'래**
모팬



① གླང་སྒོར།
래꼬

② རྩ་ཁེབས།
나셋

③ རས་གྲོས།
래괴

④ མ་གྲོས་སྟོང་འབོག
조끼(마괴 스펀복)

⑤ སྤུན་དགེས། བང་ཁེབས།
앞치마(응권찌/방법)

젠탕(建塘)은 현재 윈난성 디칭주 샹그릴라시에 속하며, 평균 해발고도 약 3,400m의 고원 온대 기후 지역이다.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이 주를 이룬다.

젠탕이라는 지명에 관해서는 몇 가지 유래가 전해진다. 본래는 중톈현(中甸縣)의 티베트어 명칭으로 쓰였으나, 이후 중톈이 샹그릴라로 개명되면서 현재는 젠탕은 진(鎭)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젠탕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과 설이 있다. 다른 명칭으로는 첫째, 과거 이곳이 편우(犏牛, 야크와 소의 잡종)를 방목하던 넓은 초원이었기에 그 의미를 담아 '좌탕(佐塘)'이라 불렀다. 둘째, 역사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부지는 '싸탕(薩塘)', 두 번째는 '양탕(央塘)', 세 번째 부지는 '지탕(吉塘)'이었는데 이 '지탕'이 바로 지금의 젠탕이라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설로는 토번과 당나라 사이의 충돌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젠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도 한다.

시대적 변화와 미적 관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동일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복식과 풍습이 나타난다. 젠탕을 예로 들면, 여성 복식은 색채와 명칭, 그리고 착용 계층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젠탕 및 인근 샤오중톈(小中甸) 등지의 여성 복식은 크게 장술 복식, 모팬 복식, 일상 복식, 그리고 연장자 복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지에는 여러 유형의 복식이 존재하는데, 그중 '장술'은 과거 부유한 가정의 여성들이 결혼할 때 입던 혼례복이다. 평범한 가정의 여성들은 주로 '모팬'을 입었으며 장술을 입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풍습이 변하여, 혼례에서는 신부와 들러리 등이 화려한 장술을 갖춰 입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장술 복식

전체 장술 복식은 수달 가죽 모자, 장술, 조끼, 비단 허리띠, 앞치마, 술, 신발 등의 의복과 귀걸이, 자모구(子母扣), 가우함, 짝탁, 조각 장식 허리띠, 질부 캡슈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과거의 머리 땋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머리카락을 세 묶음으로 나눈 뒤, 정수리의 한 묶음은 '위쪼'라 불리는 세 가닥 땋기 방식으로 땋고 좌우의 두 묶음 역시 각각 세 가닥으로 땋는다. 땋은 머리가 목덜미에 이르면 이 세 묶음을 하나로 합쳐 다시 다섯 가닥으로 땋아 등 뒤로 늘어뜨린다. 머리에는 '논까'라 불리는 머리장식을 쓰는데, 이는 은꽃 장식이 달린 은 사슬로 이마 부위에 고정하고, 산호가 박힌 타원형 은판을 뒤통수까지 연결한 구조이다. 은판 아래로는 두 개의 머리싸개가 양쪽 어깨뼈 부위까지 드리워진다. 이 머리싸개의 바탕은 비단이나 모직 등으로 만들고 그 위에는 터키석, 산호 가지, 큰 산호, 밀랍, 조개껍데기, 천주 등을 장식한다. 오늘날에는 비단 등을 바탕으로 제작한 논까 장식을 주로 사용하며, 머리싸개에는 밀랍이나 산호 가지 등을 드문드문 장식하고, 이마 부위에는 산호가 박힌 은꽃 장식을 달며, 양쪽 관자놀이 부근에는 진주가 꿰어진 금 사슬 등을 장식한다.



현지의 관념상, 목덜미에서 머리카락을 세 가닥 땋기 방식으로 땋는 것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평소에 이러한 방식으로 머리를 땋지 않는다.

수달 가죽 모자

수달 가죽 모자는 여타 티베트식 모자와 달리 형태와 양식 면에서 독특하다. 모자의 몸체는 비교적 작고 모자챙은 층계 모양을 띠는데, 앞뒤 두 챙이 각각 위로 치켜 올라가 있다. 그 위에는 오색 실로 수놓은 무지개 문양이 있는데 이는 오행(五行)을 상징한다. 모자 몸체는 짙은 청색의 모직으로 만들고 모자 덮개는 청색 천으로 제작하는데, 이는 각각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 모자 챙은 녹색 계열 모직을 겹감으로, 비단을 안감으로 사용하며 가장자리에는 얇은 수달 가죽으로 장식한다. 모자 꼭대기에는 '쩌뉘'라 불리는 술 장식이 달리며, 여러 색의 실로 만든다. 과거에는 모자 꼭대기 주변에 산호 등을 장식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술

수달 가죽 모자와 함께 갖춰 입는 것이 ‘장술’이라 불리는 깃 없는 포이다. 포의 상체와 소매의 절반은 붉은 모직으로 만들고, 하체는 녹색 모직으로 제작한다.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소매 부분은 검은색 금사 벨벳을 사용하며, 소매 끝에는 대여섯 가지 색실을 배열하여 봉제한 무지개 문양이 있고 가장자리는 수달 가죽으로 둘러 마감한다. 뒷자락 밑단에는 ‘뒤로’라 불리는 많은 주름이 잡혀 있으며, 그 아래에도 오색 실로 수놓은 무지개 문양이 있다.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은 뒤 ‘낭장’이라 불리는 허리띠를 맨다.



조끼

장술 위에 입는 조끼는 ‘마괴 스피복’이라 부른다. 겉감은 금단, 안감은 꽃무늬 천이나 모직 등을 사용한다. 깃과 진동둘레에는 금단 등으로 이중 장신선을 덧대고, 중간단추에서 겨드랑이 단추까지의 앞섶 가장자리에는 꽃무늬가 수놓아진 비교적 폭이 넓은 천을 덧대고, 물결무늬 금실과 다양한 색실로 테두리 장식을 더한다. 앞섶 밑단에는 한 뼘 정도의 트임을 낸다.





비단 허리띠

조끼 위에는 색상은 다르나 길이는 같은 두 개의 비단 허리띠를 이어 묶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 허리띠의 한쪽 끝에서 약 한 자 되는 지점을 매듭지어, 매듭 끝자락이 몸 한쪽으로 길게 늘어지게 한다. 허리띠를 허리에 감은 뒤 반대쪽 끝을 몸의 다른 한쪽에 묶어 그 끝자락 역시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좌우 대칭적인 장식 효과를 낸다.

앞치마

허리 앞에는 비단으로 만든 앞치마를 두르는데, 여러 색상의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위쪽 가장자리에는 천이나 비단으로 만든 끈을 달아 꿰맨다.

술

등에는 ‘공뿔’라 불리는 사각형 큰 술을 걸친다. 걸감은 비단, 안감은 모직이나 천으로 만든다. 술에는 서로 다른 색의 넓은 비단을 이어 붙여 가장자리 장식으로 사용하며, 평평하게 짠 직물 끈을 팔 위를 지나 가슴 앞에서 묶어 고정한다. 위쪽 가장자리는 금사 벨벳으로 둘렀고, 아래쪽 비단이 이어진 부분에는 약 다섯 개의 모자 구멍 모양 원형 장식이 있으며, 각각의 장식 아래에는 색실 술이 달려 있다.





신발

과거에는 가죽, 금사 벨벳, 천 등으로 만든 앞코가 위로 들린 색채가 화려한 장화를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티베트식 가죽 신발을 주로 신는다.

기타 장신구

귀걸이는 현지에서 통칭 ‘나콕’이라 부른다. 과거 여성들은 터키석을 박은 커다란 은귀걸이를 착용했는데 이를 ‘터키석 삼첩’이라 불렀으며, 오늘날에는 대부분 룡탕(龍唐)류의 작은 금귀걸이를 착용한다.

목에는 ‘페과’라 불리는 자모 단추 장식을 착용한다. 이는 네 손가락 너비 정도의 천이나 모직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꽃무늬가 수놓여 있다. 양 끝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은 장식이 달려 있어 목걸이처럼 채울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납작한 끈이 달려 있는데, 이는 조끼의 깃에서 등을 거쳐 안쪽의 낭징 허리띠까지 연결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두 은 장식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을 상징하며 오른쪽은 어머니를, 왼쪽은 아이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페마(佩瑪, 어머니)’와 페시(佩喜, 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끼의 중간단추 부분에는 ‘짹’이라 불리는 장신구를 매는데, 이는 은으로 제작된 여섯 줄 가량의 은 사슬로 그 위에 터키석과 산호 등을 박아 장식하며 끝부분에는 작은 고리가 달려 있다. 현재는 대부분 금으로 만든 짹을 착용한다. 이외에도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사각형 은제 가우함 등을 착용하며, 크기는 다양하다.



과거에는 손목에 은팔찌와 상아 팔찌를 찼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금팔찌를 차며, 손가락에는 금, 은 반지를 낀다.

허리에는 조각 장식 허리띠를 매는데, 비단으로 테두리를 두른 붉은 모직 바탕에 커다란 은방울을 박아 장식한 형태이다. 착용 시에는 단추가 뒤로 가게 하고 은 장식은 앞쪽으로 드러나게 한다. 오늘날에는 순금으로 제작하거나 은방울에 금도금을 한 조각 허리띠를 많이 착용한다.





허리 오른쪽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원형 은 장식을 차는데, 은 사슬로 복주머니와 질부 캡슈 등의 장신구를 연결한다.



모팬 복식

모팬 복식은 화모, 금사 벨벳 모자, 셔츠, 모팬, 조끼, 허리띠, 술, 장화 등의 의복과 귀걸이, 자모구, 가우함, 질부 캡슈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두 가닥으로 땋아 등 뒤로 늘어뜨리거나, 머리 뒤에서 교차하여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 반면 신부가 시집을 가거나 혼례 당일 머리를 땋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정수리 중앙에서 머리카락 한 묶음을 취해 ‘위쪼’라 불리는 땋은 머리를 만들고, 이어 좌우 양측에서 각각 한 묶음씩 취해 각각 다섯 가닥으로 땋는다. 머리채가 허리 부근에 이르면 이를 하나로 합쳐 세 가닥 땋기로 마무리 하고, 머리끝에 ‘팬드로’라 불리는 분홍색 실 술을 연결하여 허리띠 사이로 통과시켜 등 뒤로 늘어뜨린다. 이 위쪼는 신부가 혼례 때 하는 독특한 머리 땋기 방식이다.

화모(花帽)

모팬 복식과 함께 갖추어 쓰는 모자로는 화모 또는 금사 벨벳 모자가 있다. 그중 화모의 형태는 장술 복식의 수달 가죽 모자와 유사하며, 모자 겉면은 검은 천이나 금사 벨벳으로 제작하고, 안감은 청색 등의 천으로 봉제한다. 두 개의 모자챙은 두 겹의 천으로 제작하고 모자 몸체는 금사 벨벳을 사용하며, 모자 꼭대기는 붉은색 털실이나 비단실로 장식하는데 이는 붉은부리까마귀의 부리를 상징한다. 앞쪽 챙에는 여러 색의 자수 천을 덧대어 꿰매고, 뒤쪽 챙의 안감에는 문양이 있는 비단을 덧대며, 모자챙 양쪽 가장자리는 자수 천 띠로 감아 마감한다. 착용 시에는 먼저 폭 약 네 손가락 너비의 청색과 검은색 두 겹의 천을 이마 위에 가로로 놓는데, 이 두 천을 각각 ‘퇴응오’와 ‘퇴낙’이라 부른다. 이 천을 제대로 놓은 뒤에야 모자를 쓸 수 있다. 과거에 이 모자는 오직 혼례 때만 썼으나, 오늘날에는 각종 중요한 자리에서도 두루 착용한다.



금사 벨벳 모자

금사 벨벳 모자의 겉감은 금사 벨벳, 안감은 붉은 천으로 되어 있으며 앞쪽 챙이 비교적 길고 모자 덮개가 없다. 모자를 반으로 접었을 때의 모양이 붉은부리까마귀와 유사하다. 착용 방식은 화모와 동일하여, 먼저 두 겹의 천을 정수리에 가로로 놓은 뒤 이 간편한 모자를 쓴다. 쓸 때는 앞쪽 모자챙을 안으로 접어 넣어 정수리 부분에 붉은 천 안감이 약간 드러나게 하며, 마지막으로 모자 끈을 턱 아래에서 묶는다. 머리 위로 드러난 붉은 안감은 붉은부리까마귀의 부리를 상징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두 종류의 모자는 티베트 희극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격식있는 자리에 여성들은 금사 벨벳 모자와 화모를 겹쳐 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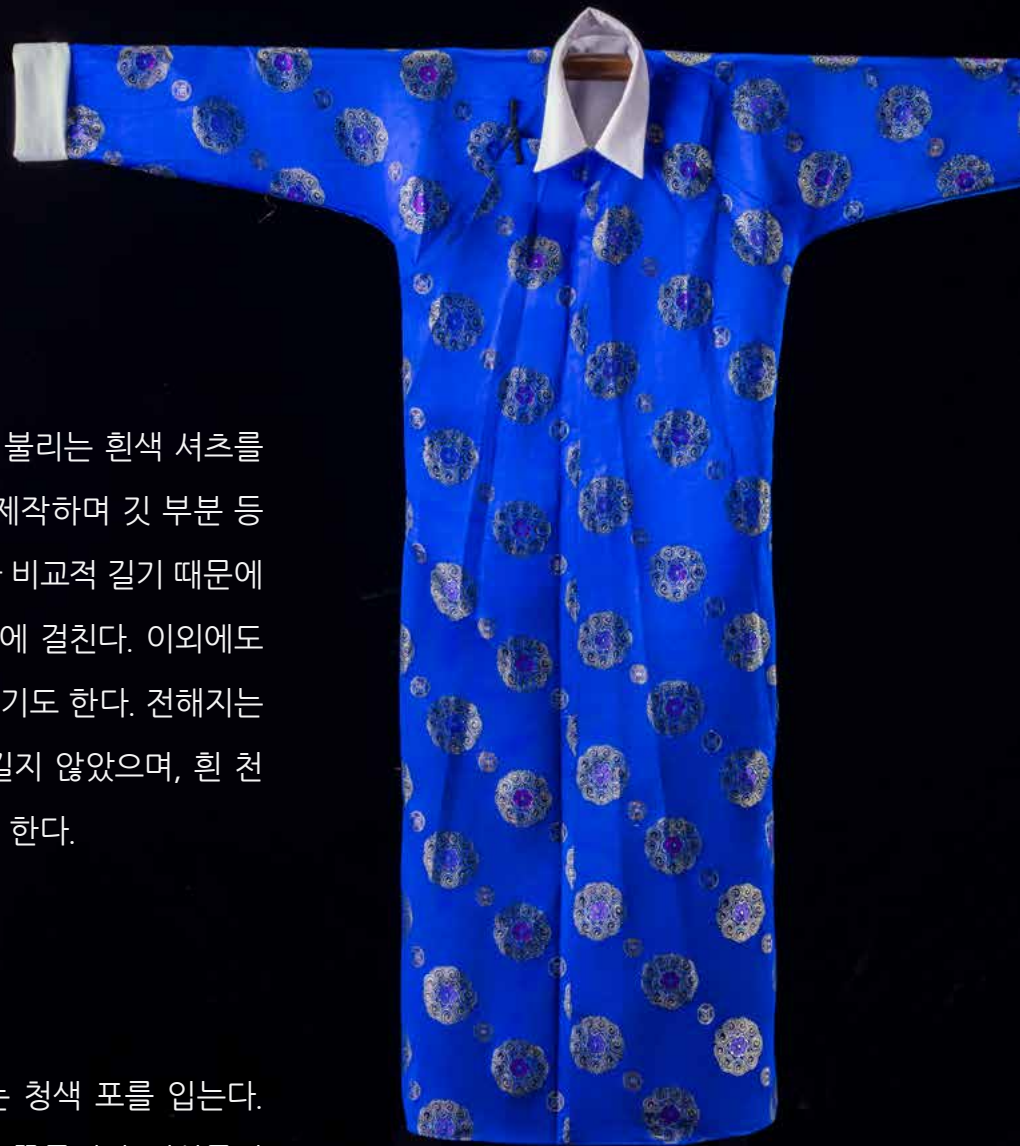


셔츠

상체에는 현지에서 ‘샤툽’이라 불리는 흰색 셔츠를 입는데, 이는 일반 천이나 견사로 제작하며 깃 부분 등은 서양식 재단을 적용한다. 소매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입을 때는 소매를 걷어 올려 포 위에 걸친다. 이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티베트식 셔츠를 입기도 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의 셔츠 소매는 길지 않았으며, 흰 천으로 만든 토시를 따로 착용했다고 한다.

모팬

셔츠 위에는 ‘모팬’이라 불리는 청색 포를 입는다. 이는 비단 등의 소재로 제작하며, 꽃무늬와 길상무늬 등이 장식되어 있다. 포에는 깃이 없으며 티베트식 셔츠 구조를 따라 쉼 가장자리에 목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를 차례로 달고, 허리 부분에도 약 두 개의 단추를 단다. 밑단 양측은 무릎까지 트여 있으며 가장자리는 검은색 금사 벨벳 등으로 둘러 마감하며 동일하게 단추를 단다.





조끼

모팬 위에는 ‘마괴 스피복’이라 불리는 조끼를 입는다. 겉감은 꽃무늬가 있는 분홍색 비단이며, 안감은 청색 모직 등을 사용한다. 깃은 검은색 금사 벨벳으로 감싸 마감한다. 중간단추에서 겨드랑이단추까지의 여밈 부분에는 폭이 넓은 자수 천, 물결무늬 금사, 다양한 색실 등으로 장식한다. 밑단 앞쪽에는 금사 벨벳과 흰 천으로 만든 두 줄의 선 장식이 있으며 양옆에는 비교적 큰 트임이 있다.



허리띠

조끼 바깥에는 먼저 폭이 약 다섯 손가락 너비의 자차 허리띠를 맨다. 이는 겉면에 흰 실로 문양을 수놓은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고, 안감은 청색 천 등으로 대었으며, 양 끝에는 가는 직물로 만든 끈이 달려 있어 허리에 두 바퀴를 감아 고정할 수 있다. 이어서 색상은 다르나 길이는 같은 두 개의 비단 허리띠를 이어 묶는다. 구체적으로는, 두 허리띠의 한쪽 끝에서 약 한 자 되는 지점을 매듭지어, 매듭 끝자락이 몸 한쪽으로 길게 늘어지게 한다. 이어 허리띠를 허리에 감은 뒤 반대쪽 끝을 몸의 다른 한쪽에 묶어 그 끝자락 역시 장식적으로 길게 늘어뜨린다.



솔

등에는 현지에서 ‘샌라’ 또는 ‘샌귀’라 불리는 커다란 사각형 솔을 걸친다. 겉감은 꽃무늬 푸루와 비단으로 제작하며, 안감은 모직이나 천을 사용한다. 솔은 사각형의 꽃무늬 푸루를 바탕으로 하고 상단 가장자리는 금사 벨벳으로 감싸고, 폭 약 네다섯 손가락 너비의 비단 장식을 덧대는데 이를 ‘탁까’라 부른다. 다른 가장자리에는 두 겹의 서로 다른 색상의 비교적 넓은 비단 장식이 덧대어져 있다. 두 겹의 장식이 이어지는 부분에는 일부 솔에 약 다섯 개의 모자 구멍 모양의 둥근 비단 장식을 덧붙이는데, 각 둥근 장식에는 서로 다른 색의 실로 만든 솔 ‘찌렌’이 늘어져 있다. 솔은 납작하게 짠 직물 끈을 어깨와 팔을 거쳐 가슴 앞에서 묶어 고정한다. 이 솔은 성대한 복식에서 반드시 착용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의 표시이자 오행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장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앞코가 위로 들린 화려한 색채의 장화를 신었다고 한다. 밑창은 여러 겹의 가죽을 겹쳐 만들고 장화 몸통 부분은 가죽으로, 목 부분은 금사 벨벳이나 천으로 제작했으나 현재는 시장에서 구입한 티베트식 장화를 주로 신는다.

장신구

모팬 복식에 갖추는 장신구는 장술을 입을 때와 대동소이하다. 현지 방언으로 귀걸이는 통칭 ‘나콕’이라 부르는데, 과거 여성들은 은으로 제작하고 터키석을 박은 ‘터키석 삼첩’ 귀걸이를 착용했으나, 현재는 룡탕형 귀걸이나 원형 귀걸이 등 작은 금제 귀걸이를 주로 착용한다.

목에는 ‘폐괴’라 불리는 자모구를 착용한다. 손가락 네 마디 폭의 천이나 니즈를 바탕으로 하여 꽃무늬 자수를 놓거나, 자수가 없는 좁은 폭의 천으로 제작하며 양 끝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은제 단추가 달려 있다. 착용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납작하게 짠 끈을 이용해 허리띠에 연결하거나, 허리띠에 연결하지 않고 목 부분에 고정한 뒤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방식이다.

조끼의 중간단추 부분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고 끝에 방울 등이 달린 은 장신구인 ‘짹탁’을 매는데, 오늘날 여성들은 주로 금제 짹탁을 착용한다. 또한 가슴 앞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은제 가우함을 차는데, 사각형이나 원형 등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다.

과거에는 손목에 은팔찌나 상아 팔찌를 착용했으나, 오늘날에는 금으로 된 납작한 팔찌가 유행이다. 손가락에는 금, 은 반지를 낀다.

허리 오른쪽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원형 은 장식을 차며, 그 아래로 은 사슬을 이용해 복주머니와 질부 캡슈 등의 장신구를 연결한다. 왼쪽에는 은제 로종을 차는데, 이는 붉은색 모직이나 천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터키석과 산호를 박아 장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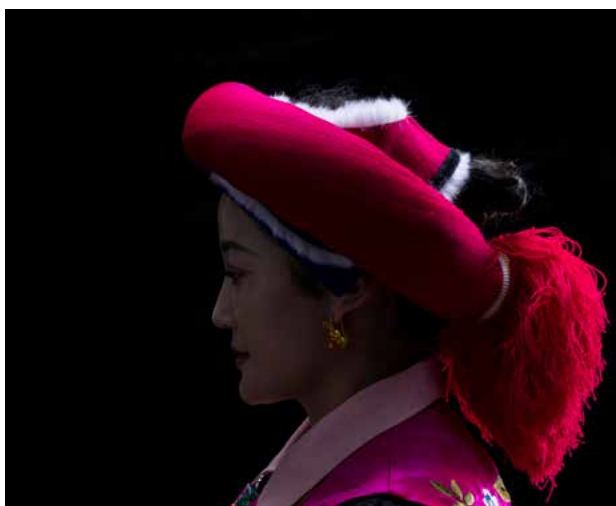
일상 복식

여성의 일상 복식은 간편함을 위주로 하며 장신구는 적게 착용하는 편이다. 머리 모양은 두 가지 전통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땋아 머리 뒤에서 교차해 틀어 올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갈래의 다섯 가닥 땋기를 한 뒤 끝부분에 실로 된 술을 달아 등 뒤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 젊은 여성은 더 이상 머리를 땋지 않고, 머리카락을 머리 뒤로 말아 올려 머리핀으로 고정한다.





머리장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나섭’이라 불리는 덮개 없는 모자를 쓰는데, 겉감은 꽃과 나뭇잎 무늬가 수놓아진 적색 또는 분홍색 비단으로 만들고 안감은 청색 천을 대며, 가장자리는 금사 벨벳으로 감싼 뒤 토끼 가죽으로 장식한다. 착용 시에는 두 개의 뾰족한 끝이 각각 양쪽 귀 옆으로 늘어지게 한다. 그 위에 ‘래꼬’ 장식을 얹는데, 이는 자홍색 천으로 자홍색 털실 뭉치를 감싸 원형으로 만든 뒤 머리 위에 얹는 것으로 착용 방식은 금사 벨벳 모자와 유사하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자홍색 천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의 ‘래꼬’보다 조금 가는 붉은색과 검은색 털실 뭉치를 머리에 직접 감았다고 한다.



안에는 흰색 셔츠를 입고 겹에는 ‘래괴’라 불리는 포를 입는다. 포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 천으로 만들며, 소매 끝에는 파란 천으로 테두리를 두른다. 전체적 형태는 모팬 복식과 유사하다. 허리에는 자수가 놓인 흰 천 등으로 만든 ‘낭징’ 허리띠를 맨다. 포 위에는 분홍색 비단 조끼를 덧입고, 다시 비단 허리띠 하나를 매는데 매듭은 좌우나 앞뒤 어느 위치에나 맬 수 있다. 등에는 ‘세땅’이라 불리는 술을 걸친다. 이는 양털이나 소의 솜털로 짠 것이며, 양쪽에는 색상과 폭이 각기 다른 모직으로 만든 무지개 띠를 꿰매 붙이고 하단에는 술을 단다. 술은 문양이 있는 것과 문양이 없는 소박한 것 등 형태가 다양하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장례가 있을 때 이웃 여성들은 모두 이 술을 걸쳐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한다.

허리 앞쪽에는 ‘응권찌’ 또는 ‘방법’이라 불리는 흰색 천 앞치마를 두르는데, 흰색 천 위에는 세로 방향으로 여러 줄의 주름을 잡고 위아래 가장자리에는 청색 천으로 선을 두르며 천 끈을 만들어 허리에 묶는다.



연장자 복식

60대 전후의 연장자 여성들은 보통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나누어 각각 세 가닥으로 땃은 뒤, 땃은 머리 끝부분에 가발이나 털실로 만든 ‘팬드로’를 잇는다. 그 후 두 갈래 머리의 끝부분을 서로 묶어 등 뒤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격식있는 자리에는 자홍색 또는 분홍색 두건인 ‘쿠래’를 머리에 감거나, ‘뢰낙’, 금사 벨벳 모자, 금화 모자를 차례로 착용한다. 때로는 ‘쿠래’ 두건을 금화 모자 위에 감기도 한다. 의복의 색상은 대체로 소박한 편이며, 디자인과 재질 등은 젊은 층의 복장과 유사하다. 여기에는 일반 천이나 견사로 만든 티베트식 셔츠, 푸루나 비단으로 만든 조끼, 그리고 일반 천으로 만든 ‘래괴’ 포 등이 포함된다. 등에는 두껍고 긴 ‘샌라’ 솜을 걸치는데, 이는 비단, 모직 또는 푸루 등을 겹감으로 하고 안감에는 털이 긴 양가죽을 댄 것이다.

오늘날 유행하는 착용 방식은 수건 위에 금화 모자를 쓰거나, ‘쿠래’ 두건을 수건과 ‘나셉’ 모자 위에 감는 것이다. 일부 연장자들은 ‘래괴’ 포를 입지 않고, 일상복에 짙은 남색 앞치마를 두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며, 그 외의 다른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임이나 명절 등의 자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대한 차림을 하며 지역의 복식과 풍습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 이러한 전통에 대한 고수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09

གཏེར་མ་རོང་གི་སྐྱེས་མའི་གོས་རྒྱ།

동왕(东旺) 여성의 복식





① ཚེ་རིང་སྒྲིན་ཁེབས།
금화 모자

② གཡོགས་གོས།
욕과

③ འབར་སྒྲག།
목걸이(바각)

④ གུ་
가우함

⑤ རྒྱ་ཁྱ་རགས།
자차 허리띠

⑥ ཆབ་བཅེངས།
조각 장식 허리
띠(잡징)

⑦ ཆབ་མོ་ལྷགས་ཐག།
참모짜탁

⑧ བའ་ཁེབས།
앞치마(방법)

⑨ གསེར་བྱ་ཀླང་དམར།
세자 깁마 장화

둥왕(东旺)은 상그릴라시 북부에 위치한 향(乡)으로, 시내에서 약 200km 떨어져 있다. 과거에는 바탕의 관할이었으나 현재는 상그릴라시의 관할로 편입되었다. 이 지역은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협곡 지대이기에 티베트어로 ‘광물이 풍부한 골짜기’라는 뜻의 ‘더마룽(德玛荣)’이라 불린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2,500m이며 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고,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이 주를 이룬다.

둥왕 지역 여성의 복식은 모자, 셔츠, 욕과, 앞치마, 자차 허리띠, 술, 신발 등의 의복과 귀걸이, 목걸이, 가우함, 조각 장식 허리띠, 참모짝탁 등의 장신구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 여성들은 이마 앞머리를 눈썹 라인에 맞춰 가지런히 잘랐으며, 나머지 머리카락은 앞뒤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뒷부분의 머리카락은 가로 방향으로 가느다란 세 가닥 땃기를 하여 연잎 모양으로 등 뒤에 늘어뜨렸는데, 반드시 108번을 땃아야 했다. 머리숱이 적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상의 실을 함께 넣어 땃아 풍성함과 장식성을 더했다. 이마 위 머리부분에는 밀랍, 터키석, 상아 고리 등을 꿰 장신구를 착용했다. 이마 양옆에는 ‘토쫂’라 불리는 장식을 달았는데, 산호로 만들거나 ‘메롱’이라 불리는 투각 은판 형태이기도 했다. 양쪽 귀밑머리에는 터키석이나 천주를 점을 찍듯 장식했다. 등 뒤로 늘어뜨린 땃은 머리에는 산호와 은꽃 장식을 더했으며, 머리카락 끝부분에는 터키석 꿰미나 한 쌍의 은 장식을 달았다.

이후 머리 모양이 변함에 따라 머리장식 또한 함께 변화하였다. 오늘날의 머리 모양은 과거처럼 복잡하지 않다. 혼례 등 성대한 자리에서 여성들은 대개 머리카락을 좌우 두 갈래로 나누어 세가닥 땃기로 엮어 등 뒤로 늘어뜨리며,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머리를 땃지 않고 머리 뒤로 틀어 올려 머리핀으로 고정한다.

모자

머리에 쓰는 모자의 종류는 서양식 모자, 여우 가죽 모자, 금화 모자 등으로 다양하다. 오늘날 명절 등 특별한 자리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은 금화 모자이다. 금화 모자는 남녀의 구분이 있는데, 남성용은 몸체가 더 높고 귀덮개가 큰 반면, 여성용은 몸체가 낮고 귀덮개도 남성용보다 작다. 현지인들의 관념 속에서 머리에 쓰는 모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에 타인과 바뀌어 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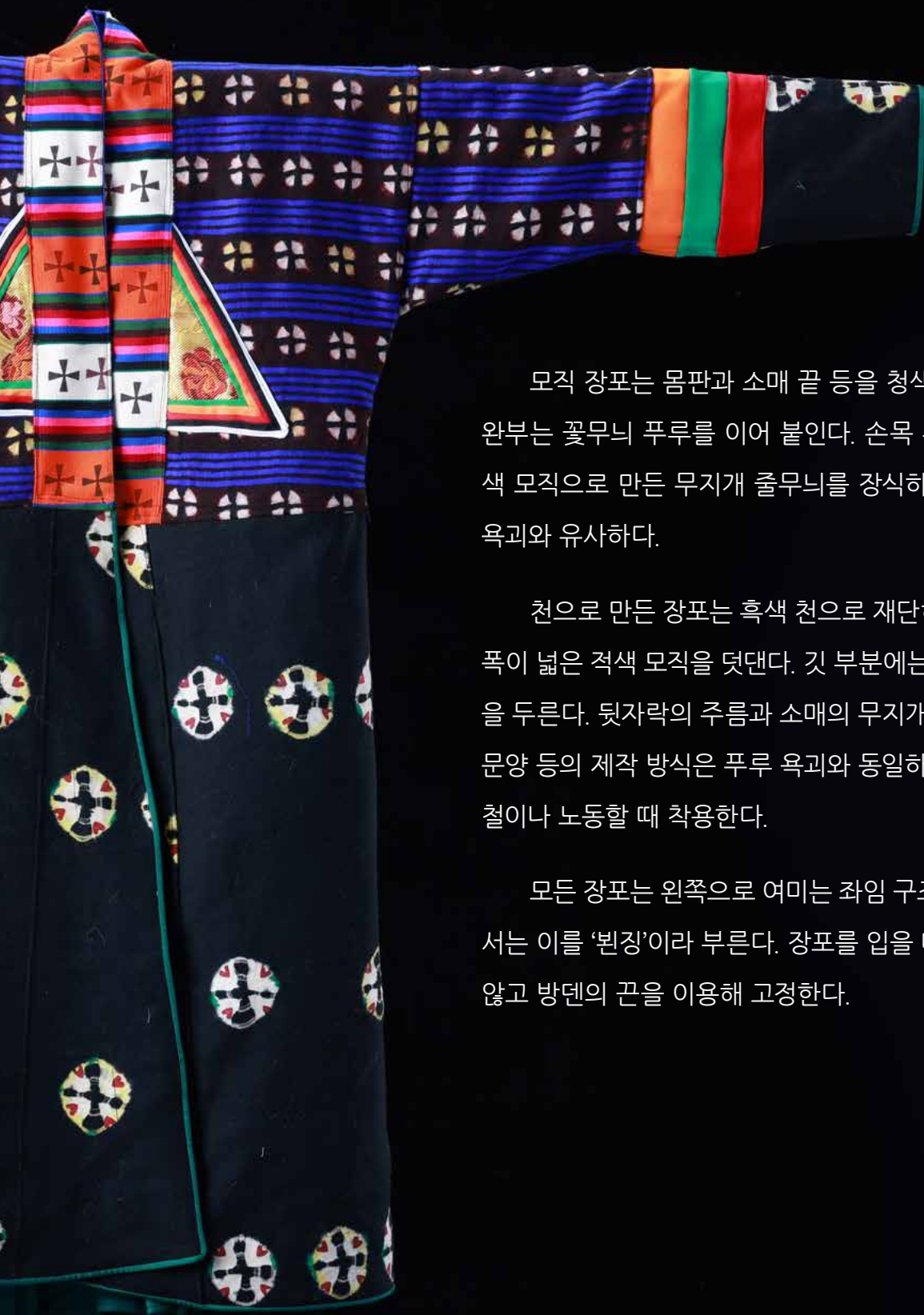
셔츠

상체에는 '샤툽'이라 불리는 흰색 셔츠를 입는다. 이는 일반 천으로 제작하며, 깃 부분 등에는 서양식 재단 방식을 사용한다.

욕괴

과거에는 일상적으로는 지역에서 수공으로 제작한 모직물 등의 옷을 입었고, 혼례와 같은 중요한 행사 시에는 푸루나 모직으로 만든 장포를 입었는데 이를 ‘욕괴’라 칭한다. 욕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특욕괴’는 푸루 장포, ‘고남욕괴’는 모직 장포, ‘래욕괴’는 천으로 만든 장포이다. 이 중 푸루 장포는 가장 격식 높은 예복으로 간주되며, 상반신은 청화 푸루를, 하반신에는 십자 문양의 흑색 푸루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욕괴 뒷자락의 주름 수는 과거 약 14개였으나 오늘날에는 16개 혹은 18개 등으로 잡으며, 그 수는 반드시 짝수여야 한다. 깃 부분에는 네다섯 손가락 너비의 자ړ푸루로 선을 두른다. 왼쪽 깃에서 오른쪽 앞섶 안쪽 및 밑단 안쪽까지는 청색 천으로 안단을 대어 장식하며, 등판의 안감 역시 청색 천을 사용한다. 가슴 앞쪽 좌우에는 ‘장댄’ 장식을 꿰매는데, 이는 중심에 삼각형의 비단이 놓이고, 가장자리에 서로 다른 색의 가는 천과 코듀로이 등을 사용하여 다섯 줄 내외의 홀수로 선을 두른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선들은 오행(五行) 혹은 불교의 네 가지 사업인 식(息), 증(增), 회(懷), 주(誅)를 상징한다고 한다. 전완부에는 황색, 적색, 녹색 등의 모직으로 만든 ‘자한괴’라 불리는 무지개 띠를 장식하고, 소매 끝은 검은색 푸루로 제작한다. 포의 밑단과 앞섶 가장자리는 청색 등의 색실로 가느다란 테두리를 두르나, 테두리 장식이 없는 소박한 형태도 있다. 착용 시 밑단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





모직 장포는 몸판과 소매 끝 등을 청색 모직으로 제작하며, 후
완부는 꽃무늬 푸루를 이어 붙인다. 손목 부분에는 황색, 적색, 녹
색 모직으로 만든 무지개 줄무늬를 장식하며 그 제작 방식은 푸루
욕괴와 유사하다.

천으로 만든 장포는 흑색 천으로 재단하며, 뒤팔의 접합부에는
폭이 넓은 적색 모직을 덧댄다. 깃 부분에는 네 손가락 폭의 푸루 선
을 두른다. 뒷자락의 주름과 소매의 무지개 줄무늬, 가슴 앞의 장식
문양 등의 제작 방식은 푸루 욱괴와 동일하며, 이 장포는 주로 여름
철이나 노동할 때 착용한다.

모든 장포는 왼쪽으로 여미는 좌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현지
에서는 이를 '빈징'이라 부른다. 장포를 입을 때는 먼저 허리띠를 매지
않고 방덴의 끈을 이용해 고정한다.

앞치마

격식있는 자리에 착용하는 앞치마는 줄무늬를 본뜬 푸루를 바탕으로 하여, 황색 등의 천으로 된 끈이 달려 있다. 앞치마 하단에는 청색과 황색의 사각형 비단 두 조각을 위에서 아래로 가로로 덧대어 바탕천을 덮는다. 두 색상의 비단이 만나는 지점과 상하 가장자리에는 두 손가락보다 조금 더 넓은 폭의 비단 테두리를 두른다. 앞치마 하단의 양 모서리에는 ‘송가례’라 불리는 삼각형 비단을 장식한다. 송가례의 가장자리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 여섯 겹의 서로 다른 색상의 비단 테두리를 차례로 덧댄다. 두 송가례의 상단 꼭짓점에서는 두 줄의 비단 선이 사선으로 뻗어 나와 가로 방향 테두리의 중앙에서 만나 마치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듯한 형상을 이룬다.

자차 허리띠

허리에는 납작한 모양의 자차 허리띠를 매는데, 좌우 두 부분은 너비와 색상이 서로 다르다. 비교적 넓은 부분은 약 한 뼘 너비로 청색, 흑색, 황색, 분홍색 등의 유색 털실을 위아래로 엮어 가로 방향의 무지개 무늬를 형성한다. 양측에는 서로 다른 색의 가는 색실을 남겨 길게 꼬아 술을 만들고 그 끝을 다시 짧은 술로 장식한다. 비교적 좁은 부분은 자홍색 털실로 엮으며, 양측에 마찬가지로 술 장식을 한다. 허리띠를 맬 때는 먼저 좁은 부분을 왼쪽 허리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감은 뒤, 다른 한쪽 끝을 허리띠 사이로 끼워 넣어 가장자리의 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지도록 한다.



솔

일상생활에서는 ‘쿨룩지’라 불리는 솔을 걸친다. 이는 소의 털이나 솜털로 자아 만든 것으로, 제작 과정에서 깃 부분을 미리 잘 접어 정리해두어 자연스럽게 정갈한 주름이 형성되도록 한다. 깃은 붉은색 금사 벨벳으로 가장자리를 감싸고, 백·황·적·녹색 등의 색실로 만든 무지개 문양이 깃에서부터 허리까지 솔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진다. 솔 밑단에는 여러 색의 털실로 약 네 손가락 폭의 무지개 문양을 만들고, 남은 실들은 밑단 좌우 양측과 등 중앙에서 아래로 늘어뜨려 짧은 솔을 형성하며 밑단 가장자리 역시 솔로 장식한다. 이 솔은 산에 오를 때 비를 막아주고 노동 시 등을 보호해주어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다.

신발

과거에는 푸루 장화, 세자 깡마 장화, 소털 신발, 짚신 등을 신었다. 그중 푸루 장화는 앞코가 위로 들린 티베트식 장화로 가죽과 소털 실로 밑창을 꿰매고, 뒷굽과 앞코는 붉은 소가죽으로 감싸 마감한다. 장화의 몸체는 푸루로 제작하며, 발등 부분에는 색실 등을 사용하여 약 두 손가락 너비의 무지개 띠로 꾸미고 발목 윗부분은 꽃무늬 푸루로 장식한다.

세자 깡마 장화는 여러 겹의 소가죽과 삼실로 밑창을 꿰매고 바닥에는 8~9개의 징을 박는다. 장화 몸통은 붉은색 푸루로, 장화 윗 부분은 청색, 적색, 녹색 등의 금사 벨벳으로 제작하며 뒷굽과 앞코 등은 붉은 소가죽으로 감싸 꿰맨다.

이 외에도 소털 신발, 알갱이 질감가죽 장화, 짚신 등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대개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 신발을 신는다.

이러한 장화를 신을 때는 장화 곁에 여러 색의 털실로 짠 약 네 손가락 너비의 꽃무늬 장화 끈을 매야 한다. 이 장화 끈은 젊은 남녀가 연애했을 때 서로 주고받는 최고의 사랑의 징표이기도 하다.

또한 과거에는 약 여섯 손가락 너비의 평평한 직물로 된 각반을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감은 뒤, 다양한 색의 가는 털실로 짠 끈으로 묶어 고정하였다. 각반을 두르면 노동 시 보온 효과가 있고 다리와 발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해지나, 오늘날 각반을 차는 사람은 드물다.



기타 장신구

과거에 현지 여성들은 ‘나우’라 불리는 은으로 만든 큰 귀걸이를 즐겨 착용했다. 이는 청보리 이삭과 유사한 형태이며 터키석과 산호를 박아 장식했다. 오늘날에는 일부 연장자를 제외하고 이러한 귀걸이를 착용하는 이는 드물며, 젊은 층은 주로 금제 원형 귀걸이 등을 착용한다.

목에는 ‘바각’이라 불리는 목걸이를 거는데, 이는 터키석, 산호, 투각 은구슬, 밀랍 등을 차례로 꿰어 만든 것이다. 또 중앙에 터키석이나 산호 한 알을 박은 은제 원형 가우함 등을 함께 착용한다. 손목에는 ‘락녹’이라 불리는 팔찌를 끼는데, 상아 팔찌와 은팔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허리에는 현지에서 ‘참장’이라 불리는 조각 장식 허리띠를 맨다. 이는 붉은색 모직과 비단을 바탕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황색 비단으로 테두리를 두르며, 그 위에는 산호 등의 보석을 박은 커다란 투각 은방울을 장식한다.

어느 시기부터인가 몸 앞쪽에 ‘참모짝탁’이라는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이 유행했다. 이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은 사슬로 네 개의 큰 가우함 모양 장식물을 위아래로 연결한 것이다. 착용 시에는 납작한 끈을 이용해 목에 걸고, 아래에서 위로 배열된 세 개의 가우함 모양 장식물 좌우 양쪽에 각각 다섯 줄의 은 사슬을 연결한다. 이 은 사슬은 골반 위치의 허리띠에 고정함으로써 장신구가 몸 앞쪽에서 수직으로 늘어지게 한다. 본래 참모짝탁은 혼례와 같은 성대한 행사에서만 착용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큰 행사에서도 이를 착용하는 사람이 드물며, 대신 복주머니나 바느질주머니 등이 달린 작은 은 장신구를 착용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현지인들은 삼베를 자아 옷을 만들고 대황으로 염색을 하는 등 우수한 수공예 기술을 보유했으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 수공예를 고수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각지의 지리적 환경, 풍속 습관, 생활 방식 등의 차이는 복식의 조합과 재료, 재단 등에서 독특한 양식을 형성하였다. 동왕향의 혼례 풍습, 건축, 가무 등 민간 문화의 보고 속에서, 그들의 복식 문화는 마치 보물과도 같이 선조들의 지혜와 미적 관념을 투영하고 있다.



10

ཕྱི་ལ་ཟུར་བུད་མེད་གྱི་གོས་རྒྱུ།

니루(尼汝) 여성의 복식





① **산양모 모자**
(라찌 샤모)

② **귀걸이(나흠)**

③ **목걸이(셜)**

④ **가우함**

⑤ **조끼(스띠복)**

⑥ **아롱개롱**

⑦ **샌페**

⑧ **탁옥괴**

⑨ **둥탁**

⑩ **빠따**

⑪ **바늘주머니**

⑫ **복주머니**

⑬ **바지**

⑭ **자라 고마 장화**

니루촌(尼汝村)은 상그릴라시 동북부에 위치하며, 시가지에서 약 75km 떨어져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2,700m이며 고원 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이곳은 자연 생태 자원이 풍부하며,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니루’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째는, ‘니루(尼汝)’로 지세가 험준하여 마치 눈고리와 같은 곳이라는 의미이다. 둘째는 ‘니루(拟汝)’로, 햇빛이 충분히 내리쬐는 길목이라는 의미이다. 셋째는 ‘미루(米汝)’로, 지형이 말밭굽과 닮은 곳이라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뉴루(牛汝)’, ‘무루(木汝)’ 등으로도 불리나, 현재는 ‘니루’가 통용되는 명칭이다.

전체 복식은 래고, 수달 가죽 모자, 금화 모자, 산양모 모자, 셔츠, 탁욕괴, 샤괴, 조끼, 허리 띠, 술, 바지, 장화 등의 의복류와 귀걸이, 가우함, 목걸이, 자모구, 아롱계룡, 차거 허리 장식, 바느질 상자, 빠따 등의 장신구류로 구성된다.



머리 스타일

과거에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나누어 각각 세 가닥 땋기로 땋아 등 뒤로 늘어뜨리거나 머리 위로 교차하여 감아 올렸다. 오늘날에는 혼례를 치르는 신부나 연장자 여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머리 모양을 거의 하지 않는다. 대개 한 갈래의 세 가닥 땋기로 땋거나 혹은 땋지 않은 채로 둔다.



모자

현지 여성들이 착용하는 래꼬, 수달 가죽모자, 금화모, 나섭 모자는 젠탕(建塘) 여성의 것과 대체로 동일하다. 오늘날 수달 가죽 모자는 착용하는 이가 드물지만, 산양털을 재료로 하여 현지의 전통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한 특색 있는 산양모 모자가 있다. 모자의 몸체는 '쉬포' 또는 '샤포'라 불리며 서양식 모자와 유사한 형태이다. 챙은 시원하게 펼쳐져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긴 털술이 장식되어 있다. 모자 끈은 붉은색 털실 등의 재료로 만들며, 모자 꼭대기에는 붉은색 원형 모직물이나 천으로 모자 눈 장식을 꿰매 붙이는데 이는 태양을 상징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장식은 낙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으며, 비를 맞을수록 모자가 더욱 견고해지고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주로 방목이나 노동을 할 때 착용하였다. 오늘날에는 챙의 털술이 더 길어졌고, 챙과 몸체의 경계 부분에 백색, 황색, 적색, 녹색 등 유색 털실로 만든 무지개 문양을 장식하며 주로 젊은 여성들이 화려한 차림을 할 때 착용한다.



탁욕괴

상체 안쪽에는 면직물로 제작한 서양식 흰색 셔츠를 입는데, 현지에서는 이를 ‘띠똥’이라 부른다. 그 위에 ‘탁욕괴’라 불리는 장포를 입는다. 이 장포의 상반신은 청색 꽃무늬 푸루로, 양쪽 가슴에서 깃 가장자리까지는 삼각형의 보강 천을 꿰매 붙였고, 소매 끝은 비교적 넓은 청색 천으로 선을 두른다. 뒤편에는 ‘뒤드로’라 불리는 약 16개의 주름이 잡혀 있다. 겹자락 허리부터 무릎까지, 그리고 무릎에서 안쪽 자락 가장자리까지는 모두 색색의 직물로 만든 무지개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겹자락 가장자리와 밑단은 적색 털실로 가느다란 테두리를 둘렀으며, 밑단 양측에는 트임을 냈다. 이 외에도 깃에 별도의 장식이 없는 간소한 형태의 탁욕괴도 존재한다.







샤괴

신부의 혼례복은 평상시에는 입지 않고 오직 혼례 시에만 착용한다. 장기간 옷장에 보관해야 하므로 '보관하는 옷'이라는 의미의 '샤괴'라 불린다. 이 의복은 모직이나 푸루로 제작하며, 상하 부분에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한다. 일부 장포는 밑단과 안쪽 자락에 안단을 대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뒷자락의 주름과 무지개 문양 등 장식 요소는 일상복인 탁욕과 장포와 대동소이하다. 착용 시에는 좌임 방식으로 입은 뒤 '낭징'이라 불리는 평평한 허리띠를 맨다. 현직인들은 녹색 의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녹색 도모(度母)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포 위에 입는 조끼는 젠탕 지역과 유사한 형태이나, 그 위에 '갑징'이라 불리는 평평한 허리띠를 매끄럽게 감아 두른다. 이 허리띠는 다양한 색상의 털실로 엮어 만들며 끝부분에는 술 장식이 달린다.

이 의복을 보관할 때는 주름이 생기거나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포를 안팎으로 뒤집어 주름 결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양 끝을 실로 꿰매어 고정한다. 그 후 장포 전체를 긴 막대 모양으로 말아 천 띠로 묶은 뒤 옷장에 보관한다.

솔

니루 여성의 솔은 세 가지 유형, 즉 샌페, 고라, 샌라로 나뉜다.

샌페 솔은 염색하지 않은 소털로 엮어 만든 직사각형 형태이다. 양측에는 크기가 다른 유색 털실로 짠 무지개 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상하단에는 좁은 폭의 무지개 문양과 짧은 솔이 달려 있다. 반으로 접으면 정사각형 모양이 된다. 솔 위쪽 양 모서리에는 금단이나 천으로 만든 끈 받침이 꿰매져 있는데, 모양이 다양하고 그 위에는 여러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이 받침으로 끈의 한쪽 끝을 눌러 덮은 뒤 함께 꿰매어 고정한다. 격식있는 차림을 할 때 샌페 솔은 푸루 장포와 함께 착용하며, 끈을 양 어깨를 거쳐 가슴 앞에서 묶는다.





고라 술은 소재와 직조 방법, 착용 방식이 샌페와 유사하나 위쪽에 모자가 달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자 가장자리에는 여러 가닥의 유색 털실로 짠 무지개 문양이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모자는 머리에 쓸 수도 있고 물건을 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일상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화려한 차림을 할 때 착용한다.

샌라 술은 젠탕 지역의 술과 유사하며, 혼례 시 신부와 들러리가 샤괴 장포와 함께 입는다.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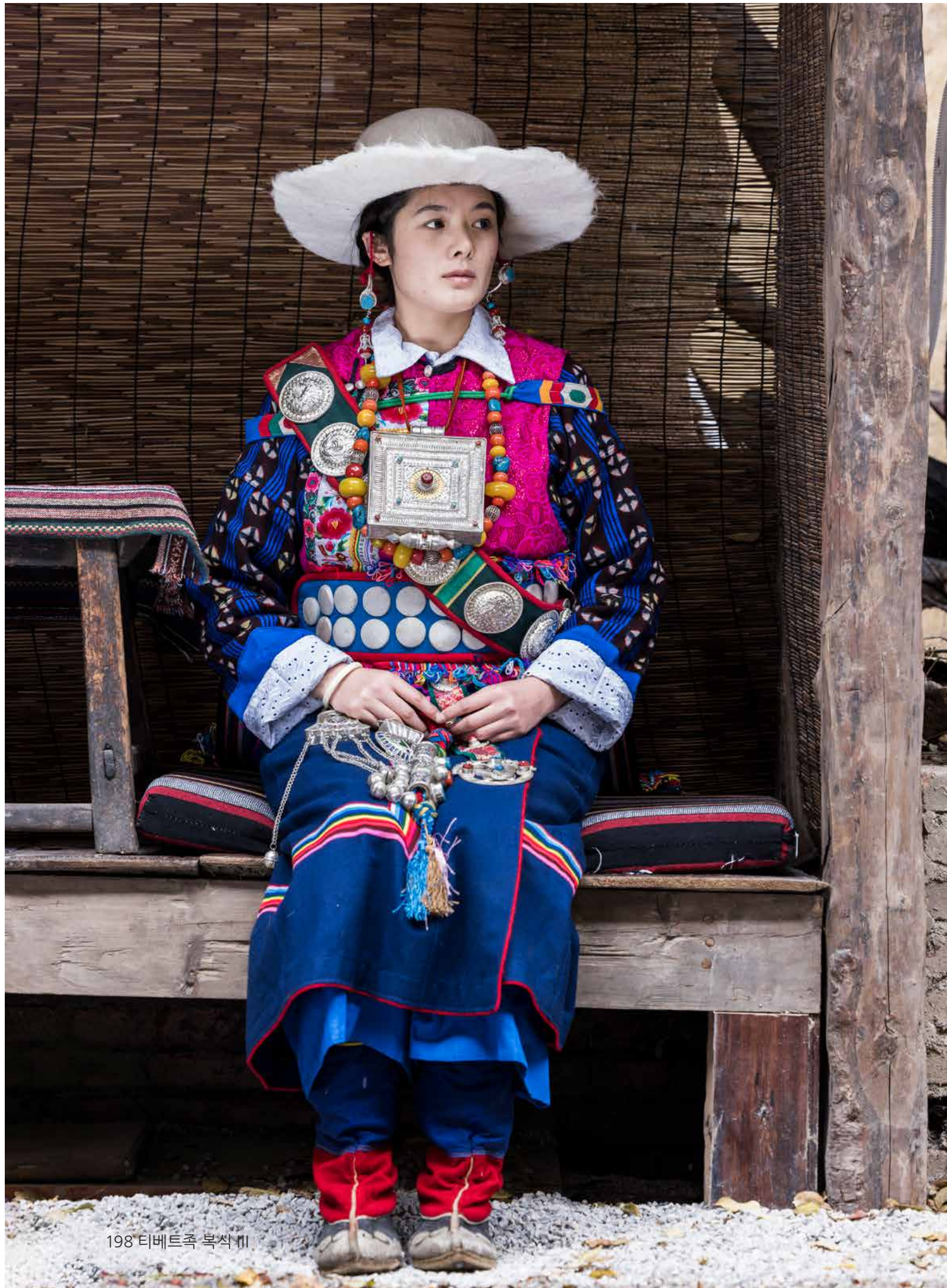
하반신에는 ‘래남’이라 불리는 청색의 통넓은 바지를 입으며, 일반 면직물로 제작한다.



장화

발에는 ‘자라 고마’라 불리는 장화를 신는다. 장화 밑창은 여러 겹의 천이나 가죽을 겹쳐 만들며, 약 10개의 징을 박는다. 장화의 몸체는 검은 가죽으로, 하부 갑피는 적색 코듀로이로 봉제하며, 상단 갑피는 모직이나 청색 천 등을 사용한다. 뒷굽과 앞코에는 회색과 적색 가죽을 사용하여 길상결 무늬를 수놓는다. 여기에 다양한 색상의 털실로 짠 평평한 장화 끈을 함께 사용하는데, 이를 ‘람각’이라 한다.





장신구

현지에서는 귀걸이를 통칭하여 ‘나홉’이라 부른다. 은으로 제작하고 터키석을 박은 원형 귀걸이인 ‘촉나’가 있으며, 이 외에도 끝부분에 은제 모래시계와 터키석, 산호를 매단 큰 귀걸이 및 작은 금귀걸이 등을 착용한다.

목에는 은제 가우함을 착용하는데, 중앙에는 커다란 적색 산호를 박고 네 모서리에는 작은 산호를 장식한다. 또한 터키석, 밀랍, 마노, 유리 등 보석을 꿰어 만든 ‘셜’이라는 목걸이를 걸기도 한다. 젠탕 등지의 ‘페구’와 유사한 자모구를 착용하기도 하며, 현지에서는 이를 ‘페보’라 부른다.







또한 ‘아롱깨룽’이라 불리는 장신구가 있다. 이는 손가락 4~5개 너비의 청색 또는 적색 모직을 바탕 띠로 삼고, 상하 가장자리를 서로 다른 색상의 모직이나 천으로 선을 두른 형태이다. 표면에는 팔길상 문양이 새겨진 투각 은방울 8개를 장식한다. 착용 시에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비스듬히 메어 양 끝을 등 뒤에서 묶으며, 은방울 장식이 앞쪽으로 드러나게 한다.



허리에는 ‘둥탁’이라 불리는 차거(砵礮) 허리 장식을 찬다. 모직이나 푸루를 바탕으로 하고 적색 천으로 선을 두른 뒤, 그 위에 두 줄 또는 세 줄의 차거를 박아 장식한다. 이 차거는 밤하늘의 별처럼 순수하고 무결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허리 왼쪽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은제 긴 바느질주머니와 복주머니 장식 등을 매다는데, 복주머니에는 투각 공법으로 제작된 잎사귀와 꽃 모양의 은사슬이 늘어져 있으며 끝부분에는 여러 개의 방울이 달려 있다. 또한 허리 앞쪽에는 ‘빠따’라 불리는 장식을 거는데, 이는 금단으로 만든 바탕 띠 위에 보석을 박거나 무늬가 없는 여러 개의 은꽃을 장식하고 끝부분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원형의 작은 은 장식을 연결한다.



이상의 복식은 주로 성대한 의식이나 특별한 자리에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젠탕 지역 여성과 유사한 래괴 장포를 입는다.

현지의 경마 대회 등 오락 활동 시 남성은 재봉 기술을, 여성은 방직 기술을 뽐낸다. 주민들은 누구네 집 혹은 누구의 옷감이 더 잘 짜였는지, 재단과 바느질이 얼마나 정교한지, 색상 조화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등을 논하고 비교하는 것을 즐기는데, 이는 현지 주민들이 복식 문화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11

སྐད་ཚག་བྱད་མེད་ཀྱི་གོས་རྒྱུ།

거잔(格咱) 여성의 복식





① ཚེ་རིང་སྒྲིན་ཁེབས།
금화 모자

② ན་ཏོག།
귀걸이(나훔)

③ ལུ་སྦྱང།
조끼(푸똥)

④ རས་གོས།
래괴

⑤ གཟན་ལྷ།
솔(샌라)

⑥ གུ།
가우함

⑦ རྩོང་ས་ཐེང།
종텡

⑧ བང་ཁེབས།
앞치마(방법)

거잔(格咱)은 상그릴라시 북부에 위치한 향(乡)으로, 역사적으로는 바탕의 관할하에 있었고 전해진다. 현지의 평균 해발고도는 약 3,200m이며 고원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이 주를 이룬다.

거잔 지역 여성의 복식은 전체적으로 젠탕 및 니루 등지와 유사하나, 착용 방식과 명칭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체 복식은 금화 모자, 두건, 셔츠, 라오괴, 조끼, 허리띠, 술,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류와 귀걸이, 목걸이, 가우함, 파콕, 종텡, 바쿱슈 등의 장신구류로 구성된다.



머리 스타일

과거에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좌우로 나누어 각각 세 가닥으로 땋았으며, 땋은 머리끝에는 다양한 색상의 실을 함께 넣어 엮었다. 머리를 다 땋은 뒤에는 땋은 머리채를 허리띠 안으로 집어 넣는데, 이러한 머리 모양을 ‘깨레’라 부른다. 오늘날에는 혼례 시의 신부나 일부 고령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머리 모양을 거의 하지 않는다.

격식있는 차림을 할 때 젊은 여성은 금화 모자를 쓰고, 연장자 여성은 쿠래 두건을 감는다. 두건은 길이가 약 3m, 폭이 약 한 뼘 정도이며 적색, 흑색, 녹색 등의 금사 벨벳으로 제작한다. 두건의 한쪽 끝 안쪽에는 청색 천으로 안단을 대어 꿰맨다. 착용할 때는 먼저 정수리를 덮은 뒤 나머지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머리에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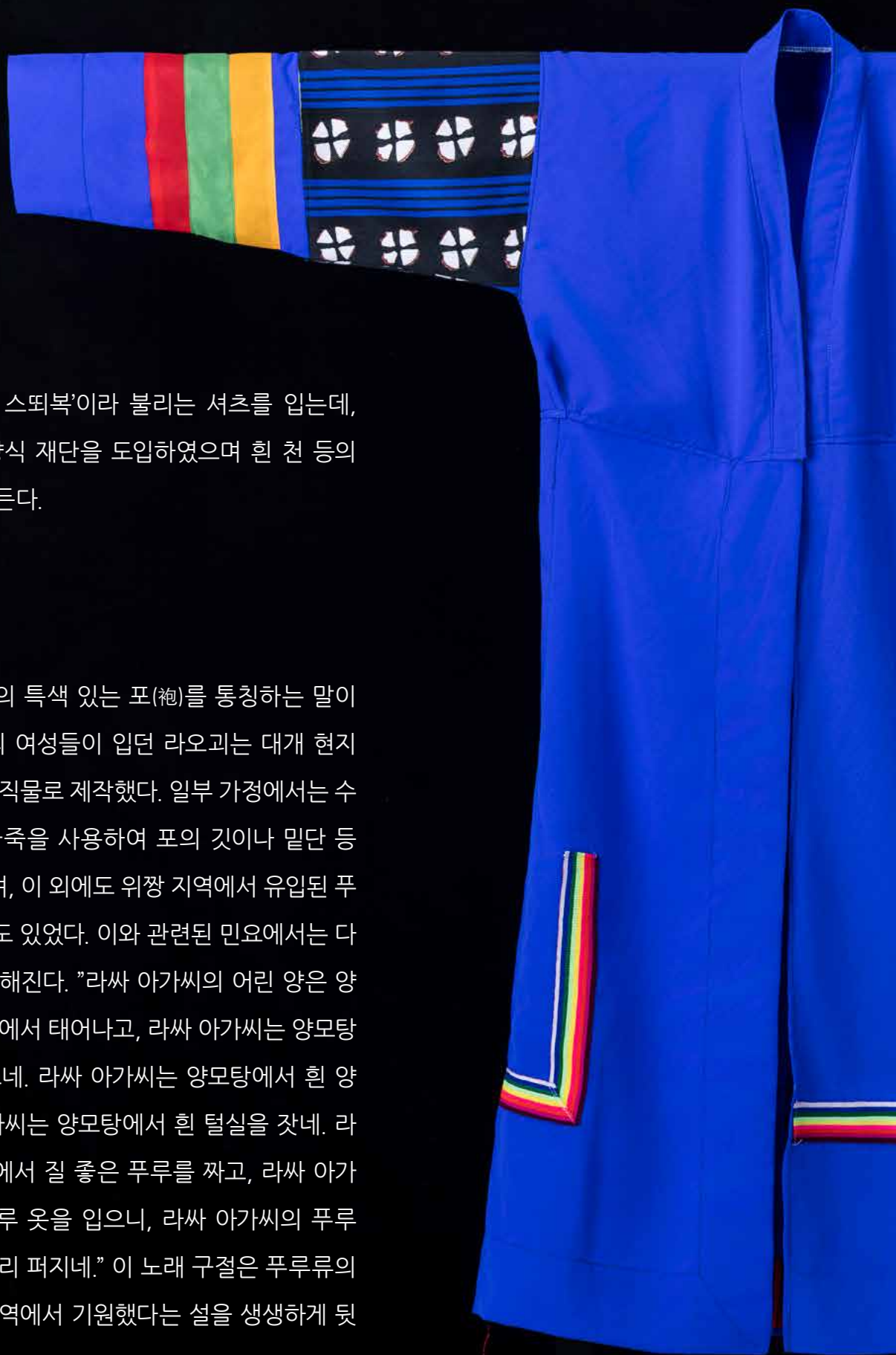


셔츠

상체에는 ‘래까 스피복’이라 불리는 셔츠를 입는데, 깃 등의 부위에 서양식 재단을 도입하였으며 흰 천 등의 재료로 봉제하여 만든다.

라오괴

‘라오괴’는 현지의 특색 있는 포(袍)를 통칭하는 말이다. 과거 일반 가정의 여성들이 입던 라오괴는 대개 현지에서 직접 짠 양모 모직물로 제작했다. 일부 가정에서는 수달 가죽이나 표범 가죽을 사용하여 포의 깃이나 밑단을 장식하기도 했으며, 이 외에도 위짱 지역에서 유입된 푸루로 제작한 라오괴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민요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라싸 아가씨의 어린 양은 양모탕(央莫塘, 지역명)에서 태어나고, 라싸 아가씨는 양모탕에서 어린 양을 기르네. 라싸 아가씨는 양모탕에서 흰 양털을 깎고, 라싸 아가씨는 양모탕에서 흰 털실을 잣네. 라싸 아가씨는 양모탕에서 질 좋은 푸루를 짜고, 라싸 아가씨는 양모탕에서 푸루 옷을 입으니, 라싸 아가씨의 푸루 옷이 설악 사방에 널리 퍼지네.” 이 노래 구절은 푸루류의 의복이 주로 위짱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설을 생생하게 뒷받침한다.





오늘날에는 푸루로 만든 라오괴와 모직 라오괴를 모두 입는데, 혼례와 같은 성대한 자리에서는 푸루 라오괴를 가장 격식 있는 복식으로 간주한다. 라오괴를 제작하는 재질과 재단 방식 등은 니루의 '탁옥괴'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겉에 입는 푸똥 조끼는 젠탕 및 니루 지역의 상의와 유사하다. 오늘날 여성 복식의 테두리 장식에는 동물 가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허리띠

과거에는 라오괴 위에 ‘벨 까락’이라 불리는 자홍색 양모 허리띠를 단정하게 둘렀는데, 그 폭은 한 뼘 정도였다. 직조할 때 양 끝부분에 백색, 청색 등의 털실로 가로 방향의 무지개 문양을 짜 넣었으며, 양측면의 가로실 술은 자르지 않고 짧게 남겨두었다. 반면 허리띠 양 끝단의 세로실 술은 술은 비교적 길게 남겼다. 오늘날에는 양모 허리띠를 매는 이가 드물며, 대신 자차 허리띠를 주로 사용한다. 자차 허리띠는 녹색 꽃무늬 천을 겹감으로 하고, 청색 천을 안감으로 하며 가는 천 띠를 끈으로 사용한다. 착용 시에는 허리에 두 바퀴 정도 감는다. 이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비단 등으로 만든 ‘실크 허리띠’를 사용하며, 양 끝에는 술 장식을 더한다.

술

과거에는 등에 ‘칭잡’이라 불리는 술을 걸쳤는데, 이는 야크 털로 짜서 만든 것이었다. 오늘날 혼례 등의 자리에서는 젠탕의 ‘샌라’와 유사한 술만 걸치는데, 이는 푸루나 모직 등의 재료로 제작한다.





앞치마

몸 앞쪽에는 흰 천 위에 세로 방향으로 여러 줄의 주름을 잡은 앞치마를 두른다. 위아래 가장자리는 청색 천으로 테두리를 두르며 꽃무늬 천 등을 끈으로 사용한다. 이 앞치마는 젠탕, 니루 등지에서는 주로 평상복과 함께 입으나, 거잔 지역에서는 화려한 복식과 함께 갖춰 입는다.

신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여러 겹을 겹쳐 밑창을 댄 가죽 장화나 천으로 만든 전통 티베트식 장화를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 구두를 신는다.



장신구

거잔 여성의 귀걸이, 목걸이, 가우함, 파콕 등의 장신구는 니루의 것과 유사하다. 또한 바각 목걸이를 가우함의 끈으로 사용하는 풍습이 있다. 손목에는 청옥 팔찌, 상아 팔찌, 은팔찌 등을 착용한다.





혼례 등 격식있는 자리에서 여성들은 ‘종
텡’이라 불리는 장신구를 착용한다. 이는 은
사슬로 두세 개의 가우와 유사한 금은 상자
를 위아래로 엮은 것이며, 좌우 양측을 다섯
가닥의 은 사슬로 엉덩위 부위의 허리띠에 고
정하거나, 끈을 이용해 허리에 매어 몸 앞쪽으
로 늘어뜨린다.

과거 현지인들은 삼(麻) 재배에 능했으며 삼 껍질 등을 이용해 옷감을 짰다.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삼 껍질을 벗겨 깨끗한 물에 씻은 뒤 내층을 제거하고 세밀하게 빗질한다. 그늘에서 말린 후 다시 일정 기간 물에 담가 둔다. 이어 이를 가늘게 찢어 실로 꼬고, 실타래로 감은 뒤 베틀에 걸어 날실과 씨실을 배열하여 직조함으로써 삼베를 완성한다. 이외에도 황토, 대황 등 천연 재료로 염색하는 기술도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 수공예 기술을 계승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며, 사람들은 대신 시장에서 기성 의류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과거에는 교통과 교역, 지역 간 교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복식 문화는 해당 지역의 생활 환경과 미적 관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문화가 상호 교류하며 공존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그 결과 각 지역의 복식은 제작 기술, 착용 방식, 장신구 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점차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

ན་མུ་ཡུའི་སྒྲིས་མའི་གོས་རྒྱན།

나무이(纳木依) 여성의 복식





① བོས་ལྷུས་ཀ
머릿수건(뵈위
까)

② བ་ལ།
파따

③ ཉེན་རྟོ།
귀걸이(원또)

④ ལན་ལག་ག།
영괘(랜각)

⑤ གྲི་ག།
허리띠(찌께)

⑥ ཏུ་ཁྱེག།
담배주머니

⑦ ཆོ་སུ་ན།
앞치마(찌뽕)

⑧ བར་གོས། བ་ཆོ་ར།
장삼(파치)

⑨ ཁ།
치마(차)

나무이(纳木依)는 청장고원 동부에 거주하는 티베트족의 한 분파로, 주로, 량산주(凉山州)의 멘닝(冕宁), 무리(木里), 시창(西昌), 염위안(盐源) 및 간쯔주(甘孜州)의 주룽(九龙)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 지역의 평균 해발고도는 약 2,500m이며 아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현지인들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한편 일정 규모의 목축업도 겸하고 있다.

나무이 집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하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나무이가 푸미족(普米族)과 기원이 동일하다는 설이다. 그들의 조상은 상부 아리(阿里) 지역의 강린포체(冈仁波齐) 부근에서 왔으며, 이후 멘닝 등지로 이주하였다가, 이후의 변천과 전란을 겪으며 앞서 언급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정착,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체 복식은 머릿수건, 보조, 장삼, 영괘, 허리띠, 주름치마, 앞치마, 신발 등의 의복류와 파따,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류로 구성된다.

머리 스타일

과거에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나누어 세 가닥으로 땋았으며, 머리끝에는 '춘쭈' 또는 '따따'라 불리는 털실을 함께 엮어 땋았다. 이 털실은 흑색, 황색, 적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었으며, 땋은 머리는 머리 위로 틀어 올렸다. 오늘날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한 갈래 세 가닥 땋기로 땋고 머리끝에 털실을 함께 엮어 넣는다.



머릿수건

머릿수건은 현지에서 '뵈위까'라 불리며, 검은 천으로 제작한다. 폭은 약 두 뼘, 길이는 약 3m이며, 교차하여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머리에 둘러 이마 부분에서 '인(人)'자 모양이 되도록 한다. 과거에는 '보조'라 불리는 두 겹으로 접은 머릿수건도 있었는데, 이는 땀은 머리로 머리에 감아 고정해야 했다. 여름철에는 오직 털실만을 머리에 감기도 했다. 오늘날 여성들은 간편한 형태의 머릿수건을 사용하는데, 원형 스펀지 링 바깥에 검은 천을 감아 만든 것으로 머리에 바로 쓸 수 있다. 땀은 머릿수건 뒤쪽에 가로로 감으며, 머리끝의 술은 오른쪽 귀 옆이나 등 뒤로 늘어뜨린다. 또한 머리끝에 털실을 함께 넣지 않고, 자색 등의 털실을 머릿수건 위에 직접 감아 좌우로 길게 늘어뜨리기도 한다.





장삼

상체에 입는 장삼은 '바괴' 또는 '파치'라 불린다. 과거에는 분홍색이나 검은색 비단으로 제작했으며,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 디자인에 깃 부분은 청색 천 등으로 선을 돌렸다. 소매 끝은 다양한 문양을 수놓은 천으로 봉제하고, 셔 안쪽에는 청색 천으로 안단을 대었다. 오늘날 여성들은 청색 천 등으로 제작한 깃 없는 장삼도 입는데, 소매 안감은 청색 천이며 겉감은 꽃무늬 등 다양한 도안이 수놓아진 천을 사용한다. 셔 가장자리를 따라 목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가 차례로 달려 있으며, 밑단 양옆에는 트임이 있다. 안셔와 겉셔의 길이는 티베트식 셔츠와 비슷하며, 뒷자락은 직사각형 형태로 오금 부위까지 내려온다. 밑단 가장자리와 양측에는 황색, 적색, 흑색 등의 천을 이용해 약 두 손가락 너비의 선을 두른다. 이 외에도 면직물이나 삼베 등으로 봉제한 장삼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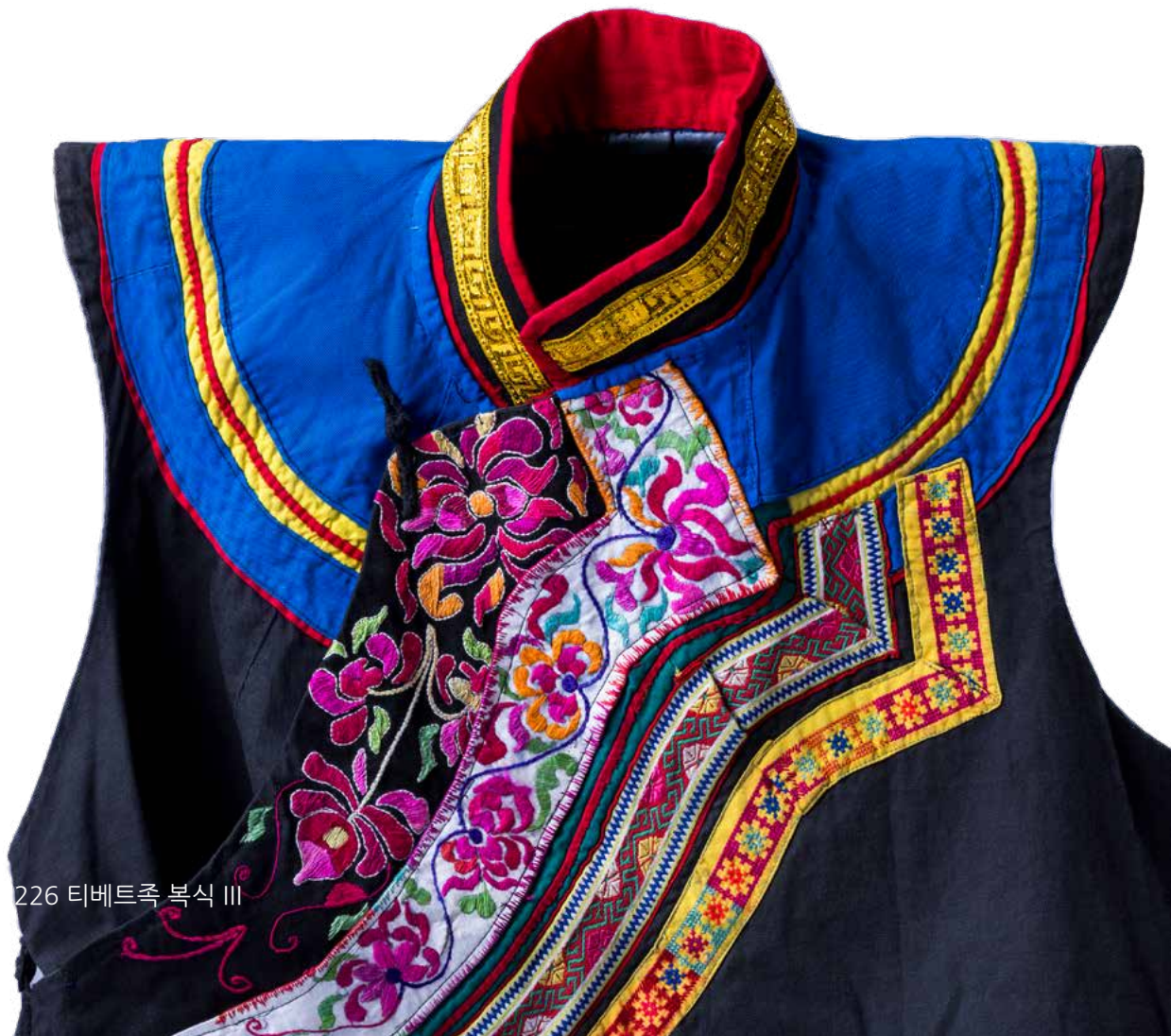
노년층이 착용하는 장삼은 자수 장식이 적고 전반적으로 양식이 소박하며, 중년 여성은 선 장식과 자수가 비교적 간결한 것을 선택한다. 반면 젊은 여성은 자수 문양이 복잡하고 화려한 양식을 선호한다. 지역에 따라 장삼의 제작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년 여성의 장삼은 안팎 두 겹의 소매로 되어 있다. 겹소매는 팔꿈치까지 내려오며 소매 끝에는 꽃무늬, 기하학 문양, 가는 선의 물결무늬 등을 수놓고 넓은 흑색 천으로 선을 두른다. 안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며 흑색 천으로 제작하는데, 팔 중간 부분에 청색 등 세 줄의 가는 천 띠를 장식하고 소매 끝에도 자수를 놓는다. 바깥 셔 밑단 중앙에는 뒷자락과 유사한 사각형의 작은 천 조각을 덧대어 꿰맨다.



영괘(領褂, 깃 달린 겹옷)

장삼 위에는 '랜각'이라 불리는 영괘를 겹쳐 입는다. 겹감은 흑색 천, 안감은 꽃무늬 천으로 이루어지며, 우임 방식의 사선 깃 형태이다. 깃이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깃이 있는 경우, 깃을 따라 은제 팔선(八仙) 장식을 배열하여 꿰매고, 양 끝에는 은제 원형 장식을 하나씩 단 뒤 그 아래에 반달형 갈고리 단추를 연결해 깃 단추로 사용한다. 깃이 없는 형태에는 이러한 장식이 없다. 영괘의 깃 유무와 상관없이 목단추에서 겨드랑이단추에 이르는 쉼 가장자리에는 폭이 넓은 꽃무늬를 수놓고, 안쪽은 자수가 놓인 흰 천 띠 등으로 선을 두른다. 깃 주변에는 폭 약 다섯 손가락 너비의 청색 천 선을 두르고, 선의 중심선을 따라 황색의 가는 천 띠를 장식한다. 그 가장자리에는 백색, 적색 등 약 네 줄의 천 띠를 차례로 장식하는데, 띠의 굵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자수가 있거나 없을 수 있다. 가장 바깥쪽의 넓은 자수 띠는 깃에서 시작해 쉼 가장리를 따라 겨드랑이단추 부위까지 이어진다. 무리 지역의 나무이 여성들은 영괘의 깃 부분에 자뿔 푸루 등을 이용해 선을 두르기도 하며, 선을 두르는 방식과 자수 기법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허리띠

과거에는 허리에 비단 등으로 만든 폭이 넓은 허리띠를 맸는데, 현지에서는 이를 ‘찌깨’라 불렀다. 오늘날에는 자주색이나 청색 등의 털실로 짠 허리띠를 매는데, 허리에 두 바퀴를 감은 뒤 끝부분의 술은 허리 뒤로 길게 늘어뜨린다. 또 다른 종류로 녹색 털실로 짠 허리띠가 있는데, 착용 전 양 끝을 가운데로 접는다. 이렇게 접으면 허리띠의 술이 중앙에서 길게 아래로 늘어진다. 이 허리띠는 허리에 한 바퀴를 감아 왼쪽에서 고정하거나 지게 허리띠 안으로 밀어 넣어 고정하며, 중앙의 술은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늘어뜨린다. 허리띠에는 보통 기하학 문양 등이 수놓아진 분홍색 정사각형 천으로 만든 담배주머니를 매다는데, 가장자리는 검은 천으로 선을 두르고 안감은 청색 천을 대며 밑단은 마주 보는 톱니 문양을 수놓은 천 띠로 장식한다. 전체적으로 사각형이며 몸 오른쪽 측면에 매단다.





주름치마

하반신에는 ‘차’라 불리는 주름치마를 입는다. 과거에는 삼베 등 무늬 없는 소박한 천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청색, 황색, 흑색, 녹색 등의 천을 세로로 이어 붙여 많은 주름을 잡으며 상단 가장자리에 천으로 만든 끈을 달아 허리에 직접 묶는다.





앞치마

과거에 여성들은 ‘찌뽀’이라 불리는 앞치마를 돌렸다. 주로 검은 천으로 제작하고 가장자리에 청색 천으로 선을 돌렸으며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왔다. 오늘날의 앞치마는 검은 천을 바탕으로 중앙에 커다란 꽃무늬를 수놓고 그 주위를 꽃, 나뭇가지, 잎사귀, 나비 등의 문양으로 둘러싼다. 상단 가장자리에는 자수가 놓인 청색 또는 백색 천을 끈으로 사용하며, 앞치마 전체 폭이 비교적 넓고 밑단은 무릎까지 내려온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색상의 털실로 짠 유색 앞치마나 무지개 무늬 푸루, 청색 천, 검은 천 등으로 제작한 다양한 양식의 앞치마가 있으며 자수 문양 또한 매우 다양하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무이 사람들은 검은색이 타인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여겼다.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검은색 의복이 유행하게 되었고, 검은색을 아름답게 여기는 풍조가 형성되었다.



신발

과거에는 주로 짚신이나 천 신발을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가죽 신발이나 자수가 놓인 천 신발 등을 신는다.

장신구

이마의 머리선 부분에는 ‘파따’라는 머리장식을 착용하는데, 붉은 천 등을 바탕으로 그 위에 열 개의 작은 은방울을 장식한 형태이다.

귀에는 ‘원또’라 불리는 은제 원형 귀걸이를 착용하는데, 그 위에는 은화와 유사한 네 개의 구멍이 뚫린 은판 장식이 달려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은귀걸이는 끝부분이 위로 말려 올라가 있으며, 그 위에 작은 산호 구슬을 박은 은제 꽃 장식과 앞사귀 모양의 은판이 아래로 늘어진다.



손목에는 은팔찌나 상아 팔찌를 착용한다. 손가락에는 말안장 모양의 은반지를 2~3개 끼는데, 산호나 터키석을 박은 것도 있고 장식이 없는 소박한 형태도 있다.

나무이 복식의 주요 특징은 자수 공예에 있다. 깃, 소매 끝, 앞치마 등에는 꽃, 산수, 기하학 문양 등 다양한 자수 문양이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복식은 멘닝현의 허아이장족향(和爱藏族乡) 및 인근의 리루(里汝) 티베트인 집단에서도 착용한다.

나무이 티베트인들은 비록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전통 풍습과 복식 문화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잘 보존되어 전체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보여 준다.



13

སྒྱིད་སྲིལ་གོས་རྒྱན།

지쑤(机素) 복식





① ཁོང་བསྐྱིད་།
포(콩쌈)

② སྒྲིང་གི།
허리칼(깨디)

③ དཔྱི་བྱ།
허리띠(찌자)

④ བཀའ་སྒྲུབ་།
장화(뵍까)



① ཁུལ་ལེན།
셔츠(응쿨렌)

② ཁོང་བསྐྱེད།
포(콩쌈)

③ སྤྱང་རས།
솔(칭래)

④ མེས་གཟན།
앞치마(메샌)

⑤ བཀའ་ཀླ།
장화(빍까)

지쑤(机素)는 무리장족자치현 동남부에 위치하며 현청 소재지에서 약 240km 떨어져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3,000m이며 고원 계절풍 기후에 속하는 비교적 외딴 촌락이다.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외부와의 교류가 매우 적으며, 식량 등의 물자는 대부분 자급자족한다. 의복 또한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이 직접 손으로 짜고 꿰매어 만든 것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독특한 생활 방식을 형성하였다. 현지인들은 지금까지도 원시 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지쑤 복식은 크게 남성 복식과 여성 복식으로 구분된다.





남성의 복식

남성 복식은 모자, 포, 조끼, 장화 등의 의복류와 귀걸이, 허리칼, 허리주머니, 담뱃대 등 장신구류로 구성된다.

과거에 남성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풍습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먼저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의 굵은 머리채로 땋은 뒤, 뒤통수 부분에서 이를 하나로 모아 다시 굵은 머리채 하나로 땋고 상아 고리 등의 장식물을 끼웠다. 이러한 땋기 방식을 현지 방언으로 '낙릴'이라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 남성들은 긴 머리를 목 뒤에서 간단히 묶을 뿐 과거처럼 머리를 땋지는 않는다.

모자

모자는 현지 방언으로 통칭 '뚝뚝'이라 부른다. 과거에 현지인들은 '세룽 뚝뚝'이라 불리는 금화 모자, '와빠 뚝뚝'이라 불리는 여우 가죽 모자, '목갑'이라 불리는 서양식 모자, 산양모 모자 등 다양한 모자를 썼으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서양식 모자이다.





포(긴 겹옷)

안에 입는 셔츠는 견사나 주단으로 제작하며, 깃 가장자리는 금단으로 선을 두른다. 예전에 남성들은 ‘콩쌍’이라 불리는 흑색 포를 겹에 입었는데, 이는 삼베, 푸루, 모직, 천 등으로 제작하였다. 오늘날 포의 재료는 주로 자주색 천이다. 포의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고 소매는 비교적 짧으며, 오른쪽으로 여미는 교차 깃

디자인을 채택하고 하단 양측에는 한 뼘 정도 길이의 트임을 낸다. 포에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목단추, 중간단추, 겨드랑이단추를 달며, 별도의 테두리 장식이나 술 장식은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승려, 지방 수령, 명망과 학식을 갖춘 연장자 등만이 깃이 있는 포를 입을 수 있었고, 일반인은 깃이 없는 포만 입을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규정이 사라져 모두가 깃이 있는 포를 입는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토번의 왕이 이곳을 방문하여 현지 수령 등을 접견했을 때, 토번의 영역을 확장한 공로를 치하하며 한 벌의 포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때 ”그대들은 종족의 명맥과도 같으니, 향후 ‘공쉴’라 불리는 이 의복을 제작하여 입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이후 사람들은 이 포의 양식을 본떠 의복을 제작하였으며, 그 명칭도 점차 ‘공썩’ 혹은 ‘공랑’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생명의 장구함과 굳건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입는 포는 티베트 다른 지역의 양식과 유사하며, 대체로 현지의 야크 털이나 양털을 이용해 제작한다. 일부는 비단 등의 재료로 제작하기도 하며, 깃과 소매 끝, 밑단 등에 유색 꽃무늬 푸루로 선을 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흰 양털로 짠 뒤 붉게 염색한 포는 ‘자취 추바’라 부르고, 시장에서 구입한 모직이나 비단으로 제작한 포는 ‘징마 추바’라 부른다.

허리띠는 현지에서 ‘찌쟈’라 불리며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현지 양털로 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구입한 유색 털실로 짠 것이다. 격식있는 차림에서는 끝부분에 술이 달린 유색 털실 허리띠를 주로 선택하는데, 이 허리띠는 허리의 전후좌우 어느 위치에서든 매듭을 지을 수 있으며 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린다.

조끼

노동 시에는 의복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산양 가죽, 바위산양 가죽 또는 노루 가죽 등으로 만든 견고하고 보온성이 뛰어난 조끼를 입는다. 이 조끼는 앞섶이 맞닿는 맞깃형 구조이며, 깃과 진동둘레 부분은 붉은색 모직 등으로 선을 두른다. 전해지기로는, 이러한 조끼 한 벌은 10여 년 이상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장화

장화는 현지에서 ‘빡까’라 불린다. 과거에는 주로 금사 벨벳 장화, 가죽 주머니 장화, 천 장화를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검은색 긴 가죽 장화를 일반적으로 신는다.





장신구

귀에는 ‘렉쿠’라 불리는 터키석이 박힌 은귀걸이를 착용한다. 허리에는 대개 현지에서 제작한 장도를 차는데, 칼자루는 뿔 재질로 만들고 칼집은 가죽이나 황동 등으로 제작한다. 허리에는 가죽으로 만든 다층 구조의 허리주머니를 매달아 담배와 부싯돌 등을 보관한다. 또한 허리띠에 현지 방언으로 ‘예레레’라 불리는 담뱃대를 꽂는 풍습이 있으며, 오른쪽 허리에는 단도를 매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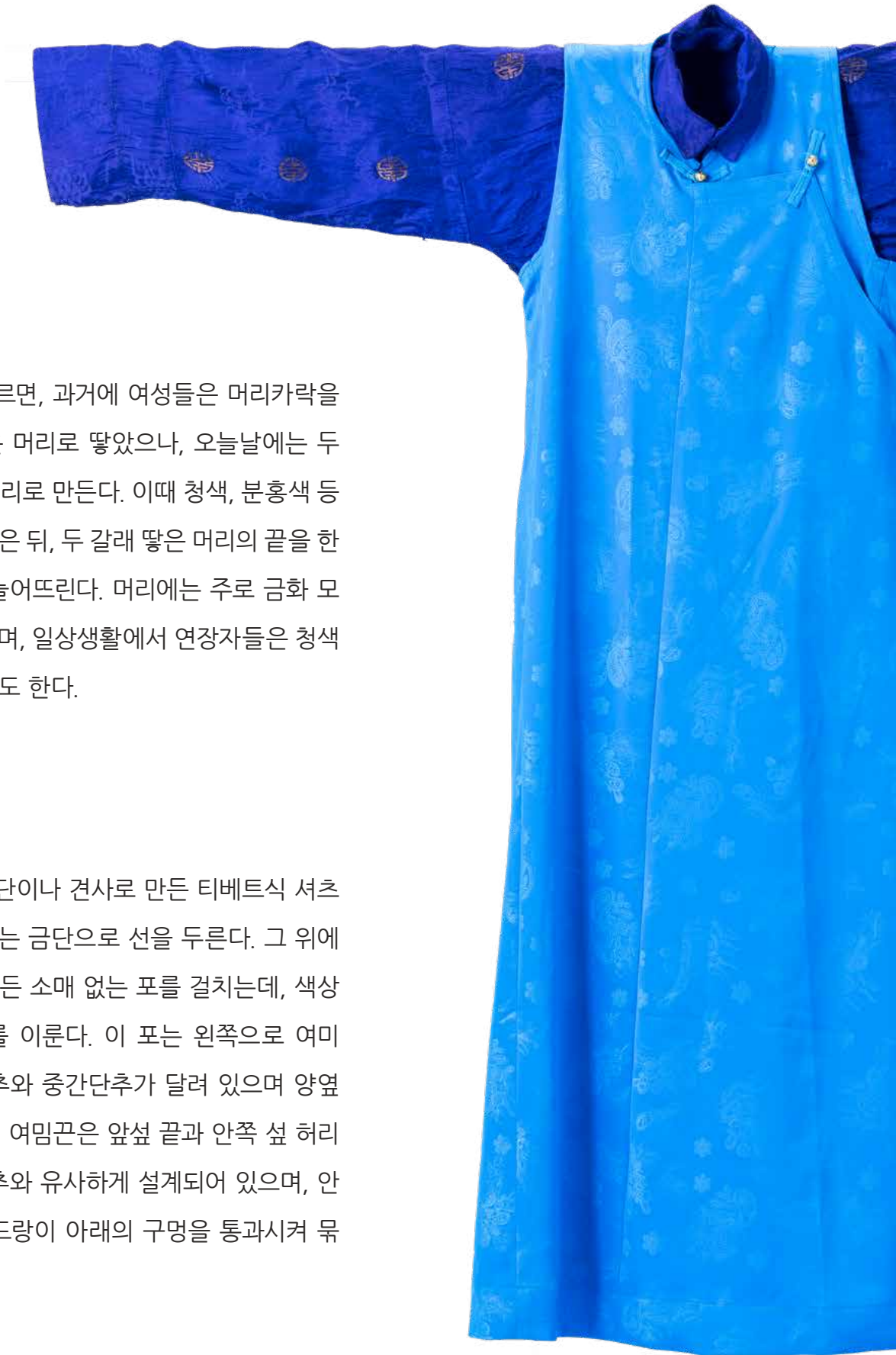






여성의 복식

여성 복식은 모자, 셔츠, 포, 앞치마, 솔, 신발 등의 의복류와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류로 구성된다.



모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의 가는 땃은 머리로 땃았으나, 오늘날에는 두 갈래의 세 가닥 땃은 머리로 만든다. 이때 청색, 분홍색 등의 색실을 함께 엮어 땃은 뒤, 두 갈래 땃은 머리의 끝을 한 곳으로 묶어 등 뒤로 늘어뜨린다. 머리에는 주로 금화 모자와 산양모 모자를 쓰며, 일상생활에서 연장자들은 청색 또는 흑색 두건을 쓰기도 한다.

셔츠 및 포

상체 안쪽에는 비단이나 견사로 만든 티베트식 셔츠를 입으며, 가장자리에는 금단으로 선을 두른다. 그 위에는 비단이나 푸루로 만든 소매 없는 포를 걸치는데, 색상은 녹색과 청색이 주를 이룬다. 이 포는 왼쪽으로 여미는 좌임 구조로, 목단추와 중간단추가 달려 있으며 양옆에는 짧은 트임이 있다. 여밈끈은 앞섶 끝과 안쪽 섶 허리 부분 두 곳에 매듭 단추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안쪽 섶 끈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의 구멍을 통과시켜 묶어 고정한다.



앞치마

앞치마는 현지에서 ‘메샌’이라 불리며, 비단이나 색줄무늬 푸루로 제작한다. 윗부분 가장 자리에는 네 손가락 폭 정도의 금단, 꽃무늬 천 또는 자수 천 조각을 덧대어 선 장식을 하고, 위 쪽 양 모서리에는 각각 삼각형 금단 장식을 덧붙인다. 고정용 끈은 주로 꽃무늬 천으로 만든다.

술

등에는 ‘칭래’라 불리는 검은색 술을 걸치는데, 야크 털이나 양털을 짜서 만들며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온다. 술의 윗부분에는 모자가 하나 달려 있으며, 가장자리 전체에는 백색, 황색, 적색, 녹색 등의 털실로 짠 무지개무늬가 둘러져 있다. 모자를 쓰지 않을 때 술은 직사각형 형태를 띠며, 윗부분 양 모서리에는 직물이나 천으로 만든 납작한 끈이 달려 있고 밑단은 술로 장식되어 있다. 과거에는 밭일 등 노동 시에 등을 보호하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 입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예복과 함께 착용한다.





신발

과거에는 짚신, 천 신발 또는 금사 벨벳 신발 등을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티베트식 자수 천 신발을 주로 신으며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한다.

장신구

귀걸이는 현지에서 ‘렉쿠’라 불린다. 일부는 타원형 터키석을 박은 은제 꽃모양 귀걸이를 하거나 터키석과 산호를 함께 박은 귀걸이를 착용하며, 은제 술이 달린 꽃모양 귀걸이나 순은으로 제작한 큰 귀걸이를 착용하기도 한다. 목에는 ‘꼬링’이라 불리는 목걸이를 거는데, 이는 터키석, 산호, 수정, 마노, 차거 구슬 등을 차례로 꿰어 만든 것이며 상아 장식 목걸이를 함께 걸기도 한다. 손목에는 ‘착꼬’라 불리는 은팔찌, 상아 팔찌 또는 옥팔찌를 착용한다. 손가락에는 ‘착뒤’라 불리는 금, 은 반지를 끼는데, 그 위에는 마노, 터키석, 루비 등이 박혀 있다.

현지에는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의식이 있다. 과거에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했으나, 오늘날에는 신년 모임 때 온 마을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의식 당일, 13세가 된 모든 청소년은 전통 복식을 갖춰 입고 마을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인다. 이는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며 이후부터 성인 복식을 착용할 수 있는데, 의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삼촌이 남자아이에게는 단도를 채워주고, 여자아이에게는 은팔찌를 채워준다. 이어 청소년들은 오곡과 ‘샤간’이라 불리는, 소금에 절여 1년간 보관한 육포를 향해 세 번 절하며 감사를 표한다. 그 다음 승려가 이들의 이마 위에 약간의 참파 가루를 바르고 각자에게 흰 양모 하다를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와 외조부모 등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올바른 품성과 근면함을 갖추 것을 훈계하면 성인식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부터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가정 내에서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현지 여성의 포는 왼쪽으로 여미는 좌임 방식인 반면, 남성의 포는 우임 방식인데, 이는 통상 여성이 화톳불의 왼쪽에 앉고 남성이 오른쪽에 앉는 관습에서 기인한다. 만약 집안에 상례가 발생하면 친지들은 삼베로 만든 흰 옷을 입어 애도를 표한다.

지쑤 촌락은 민속 문화의 전통이 깊은 마을로, 풍부한 전통 방직 기술과 석조, 목조 건축 문화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펫을 짜는 기술과 자넨친(扎念琴) 악기 제작 공예 또한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오늘날 마을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자넨친을 연주할 줄 알며, 무리(木里) 악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연 등의 자리에서 전통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 소중한 풍습들을 보존하고 전승해오고 있다.



14

འོ་ལུང་སྒྲིས་མའི་གོས་རྒྱ།

수뤄(水洛) 여성의 복식





- ① སེང་མགོ།
생고
 - ② ཆེ་རིང་སྒྲིན་ཁེབས།
금화 모자
 - ③ འབར་གཤ།
바각
 - ④ སྒྲེང་བ།
목걸이
 - ⑤ གཤུ།
가우함

수뤄(水洛)는 무리현 서부에 위치한 향(乡)으로 현청 소재지에서 208km 떨어져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2,900m이며 고원 산악 기후에 속한다.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이 복식은 주로 수뤄향에서 유행하며, 마이르향(麦日乡), 둥랑향(东朗乡) 등지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의 티베트족 주민들은 '가미(嘎米)'라고 불리는 데, 이는 '높은 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해진다.

전체 복식은 금화 모자, 답쌔, 조끼, 허리띠, 앞치마 등의 의복류와 머리장식, 바각, 가우함, 목걸이, 조각 장식 허리띠, 로중, 어타 등의 장신구류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과거에 여성들은 '생고'라 불리는 머리 모양을 했다. 먼저 정수리에서 머리카락 한 묶음을 잡아 앞뒤 두 부분으로 나눈다. 앞쪽 묶음은 여덟 가닥으로 땋는데, 이마 위쪽에 이르렀을 때 좌우로 네 가닥씩 가는 땋은 머리로 나누며 이를 '까쭈렌'이라 부른다. 양쪽 귀밑머리는 각각 '나까'라 불리는 네 가닥 땋은 머리로 만든다. 까쭈렌의 끝부분과 이마 앞쪽 머리카락을 함께 가는 세 가닥으로 땋고, 정수리 뒷부분의 머리카락도 나머지 머리카락과 함께 가는 세 가닥으로 땋는다. 마지막으로 이를 좌우 두 묶음으로 균등하게



나는 뒤, 이마 양측에서 시작하여 일정 간격으로 땀은 머리들을 청색과 백색 털실 다발 사이에 사선 방향으로 끼워 고정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곡선을 형성하며 등 뒤로 늘어진다. 끝부분에서 이 땀은 머리들을 다시 두 묶음으로 합치고, 여러 색상의 털실로 한 뼀 정도 길이의 머리 띠 형태가 되도록 감아올린 뒤 아래에는 붉은색 등의 털실 술을 늘어뜨린다. 이마 앞쪽의 땀은 머리와 귀밑머리에는 터키석, 산호, 밀랍, 각종 은 장식 등을 착용하며, 예전에는 눈썹 라인에 맞춘 앞머리를 내는 풍습도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연장자 여성들은 보통 머리카락을 두 갈래의 굵은 세 가닥으로 땀고, 땀은 끝부분에 다양한 색상의 실을 함께 엮어 땀은 뒤 머리 위로 교차하여 감아 올린다. 반면 젊은 여성들은 머리를 직접 땀지 않고 밀랍이나 터키석 등이 달린, 생고와 유사한 형태의 가발 띠를 직접 착용하거나 가발 없이 금화 모자만을 쓰기도 한다.



답쌈

격식있는 차림을 할 때 여성들은 자홍색 등의 천으로 제작된 포를 입는데, 이를 ‘답쌈’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주로 모직이나 코듀로이로 제작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일반 천을 사용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소매 끝과 밑단에 폭이 넓은 금단 선을 두르기 때문에 답쌈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깃은 두 손가락 폭의 금단을 이어 붙여 만들며, 앞섶 가장자리는 다른 색상의 가는 천 띠 세 줄과 ‘응권딱’이라 불리는 폭이 넓은 금단 띠 두 줄로 장식하고, 단추는 가운데 중간단추 하나만을 단다. 겹섶 가장자리와 밑단은 서로 다른 색의 가는 천 띠 네 줄로 선을 두르는데, 이는 ‘사대(四大, 지·수·화·풍)’를 상징한





다고 전해진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천 띠를 장식하는 풍습이 생겨, 이러한 포를 '오색 장식포', '육색 장식포', '칠색 장식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안섷을 제외한 옷 전체의 밑단 가장자리에는 '샌작'이라 불리는 두 뼀 폭의 푸른색 금단 선을 두르며, 그 안쪽은 세 손가락 폭의 붉은색과 노란색 천 띠 두 줄로 장식한다. 소매 끝에는 서로 다른 색의 가는 천 띠 네 줄, 한 뼀 폭의 푸른색 금단, '자'라 불리는 붉은색, 노란색 천 띠 두 줄 등 무지개무늬 장식이 차례로 배치된다. 어깨와 팔 부분에 댄 자ړ 푸루는 '바똥'이라 하며, 무지개 장식과 바똥 사이에 노출된 자홍색 포 천 부분은 '래딱'이라 부른다.

좌우 어깨 사이에는 '탁센'이라 불리는 노란색 직사각형 금단을 덧데는데, 폭은 두 손가락 정도이며 사방을 붉은색, 검은색, 노란색, 녹색 네 가지 색의 가는 천 띠로 장식한다. 상하 양변의 약간 긴 천 띠 사이에는 사방의 선 장식과 같은 색상이지만 길이는 서로 다른 화살촉 모양의 천 띠 4~5개를 겹쳐 꿰매는데, 이를 '뽕카'라 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탁센은 경전 함이나 멍에를 짊어진 모습을 상징하고, 뽕카는 경전함의 표식을 상징한다고 한다.



등 쪽 허리선 위 중앙 지점에는 사방에 가는 천 띠 선을 두른 직사각형 금단 조각을 꿰매 붙이는데, 이는 표식이 없는 경전 함과 비슷한 형태이며 현지 방언으로 ‘깨각’이라 부른다. 이는 경전 함이나 쟁기 끈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과거 민간에는, 현지 여성들이 나찰녀의 후손이며, 나찰을 제압하기 위해 옷의 어깨 부분에 멍에를 상징하는 천 띠를, 허리 부분에는 경전 함을 상징하는 천 띠를 꿰매는 풍습이 생겼다는 설이 있다. 또한 깨각은 혼인 여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이기도 하였다. 기혼 여성의 답샐에는 깨각을 꿰매지만 젊은 처녀의 것에는 꿰매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포의 뒷자락에는 ‘천부’라 불리는 주름이 있는데, 이는 밧고랑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각 주름의 끝부분에는 흰 실로 ‘적강’이라 불리는 바느질 땀을 뜨는데 이는 논밭의 모종을 의미하며, 또 두 개의 주름 바느질 땀이 서로 맞물리며 대칭적인 아름다움을 이룬다. 주름의 수는 옷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보관할 때는 옷을 오른쪽으로 접는다. 주름의 수를 셀 때는 차례로 ‘길(吉)’, ‘흉(凶)’을 읊조리는데, 바느질 과정은 짝수인 ‘흉’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홀수인 ‘길’에서 끝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길상의 인연을 얻는다고 믿는다.

일상에서 입는 답선은 검은 천으로 제작하며 왼쪽으로 여미는 좌임 구조이다. 소매 중간 부분에는 자ړ 푸루로 만든 바똥을 덧대고, 탁센과 께각은 간략하게만 꿰매 붙인다. 깃 가장자리의 선 장식은 자ړ 푸루와 유사한 천 띠로 봉제하며, 왼쪽 셔 가장자리와 밑단은 색실로 간단히 테두리장식을 두를 뿐 샌썩 등의 장식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답선은 주로 연장자들이 착용한다.

조끼

모임이나 명절 등의 자리에서 여성들은 답선 위에 ‘따각’이라 불리는 조끼를 겹쳐 입는다. 조끼는 금단이나 자ړ 푸루 등으로 제작하며,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 디자인에 밑단 좌우 양측에는 짧은 트임을 낸다. 깃, 진동둘레, 트임 가장자리 및 밑단에는 각각 세 줄의 서로 다른 금단 선을 두른다. 겨울철에는 안감에 어린양 가죽이나 인조 털을 덧댄 조끼를 입으며, 일상생활에서는 검은 천으로 만든 단순한 선 장식의 조끼를 주로 착용하고, 보통 다른 평상복과 함께 갖춰 입는다.





허리띠

허리에는 너비가 절반은 넓고 절반은 좁은 양모 허리띠를 맨다. 넓은 쪽의 겉면에는 회자문(回字纹), 연환웅중(联环雍仲, 만자문이 이어진 문양), 길상결(吉祥结) 등의 문양이 차례로 가로 방향으로 짜여 있으며, 위아래 끝에는 술이 달려 있다. 좁은 쪽에는 색실로 짠 가느다란 무지개 문양이 한 줄 장식되어 있고, 맨 끝에는 한 뼘 정도 너비의 술이 달린 것 외에 다른 장식 문양은 없다. 허리띠를 맬 때는 문양이 없는 면을 안으로 하고 문양이 있는 면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여 허리에 평평하게 감아 맨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허리띠 하나를 짜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정성과 공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수작업으로 허리띠를 짜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어, 격식있는 차림을 할 때도 사람들은 대개 시장에서 구입한 허리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형태는 전통 양식과 동일하며 보통 답쌔 복식과 함께 착용한다.



앞치마

현지에서 '응권징'이라 불리는 앞치마는 색줄무늬 푸루나 자ړ 푸루를 바탕 천으로 사용한다. 바탕 천의 상단은 약 한 뼘 정도 비워두고, 그 아래쪽으로 검은색과 노란색의 사각형 금단을 위아래 순서대로 이어 붙여 바탕 천을 덮는다. 두 색상의 금단이 만나는 지점, 검은색 금단의 상단 가장자리, 앞치마 양측 및 밑단 가장자리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천 띠 세 줄과 회자문이 있는 천 띠 등을 차례로 덧대어 장식한다. 앞치마 양측의 중간과 윗부분에도 서로 다른 색상의 천 띠 세 줄로 장식하는데, 위쪽 끝은 검은색 금단 아래 가장자리의 중앙에 모이고, 아래쪽 끝은 노란색 금사 아래 가장자리의 중앙까지 이어진다. 앞치마의 윗 가장자리는 폭이 넓은 금단으로 장식하며, 양 끝에는 허리에 맬 수 있도록 납작하게 짠 끈이 연결되어 있다.



기타 장신구

귀에는 ‘나찰’이라 불리는 은제 큰 귀걸이를 착용하며, 그 위에는 산호와 터키석이 박혀 있다. 목에는 ‘바각’이라는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목을 감싸는 듯한 형태이며 모직 등을 바탕으로 하고 청색 천으로 선을 둘렀으며, 바탕 중앙에는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투각 형태의 작은 은 장식이 꿰매져 있다. 이 밖에도 목에는 원형 또는 사각형 등의 가우함과 터키석, 산호, 천주 등을 차례로 꿰 목걸이를 착용한다. 좌우 손목에는 각각 은제 흰고래 모양 팔찌를 하나씩 찬다. 허리에





는 '갑징'이라 불리는 조각 장식 허리띠를 매는데, 폭이 약 다섯 손가락 너비인 붉은색 모직 천을 바탕으로 그 위에 14개의 원형 차거를 두 줄로 배열하여 붙였으며, 양 끝에는 중앙에 산호를 박은 사각형의 금, 은 장식물이 하나씩 달려 있다. 차거의 수량은 일정하지 않으며, 착용 시 차거가 허리 뒤쪽을 향한다고 하여 '갑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는 은제 로중을 늘어뜨리며, 그 끝에는 은제 술이 달린 바느질주머니 ‘바국갑슈’가 달려 있다. 허리 앞쪽에는 ‘응굴탁’이라 불리는 은 장식을 늘어뜨리는데, 본체는 원형 가우함과 유사하며 상단 및 양측이 은 사슬로 허리띠와 연결된다. 과거에 격식있는 차림을 할 때는 크기가 큰 은 장신구를 즐겨 착용했으나, 오늘날에는 혼례나 복식 공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에서 이와 같은 장식을 착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생활 환경과 생존 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의 필요와 미적 기준은 서로 다르며, 각 지역의 복식은 재단 방식, 디자인 및 문화적 배경에서 저마다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대표적인 지역 복식은 티베트족 복식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5

འབྲོག་ར་ཐང་གི་སྐྱེས་མའི་གོས་རྒྱན།

마오뉴핑(牦牛坪) 여성의 복식





① སྤ་མ།
파마

② ས་ཅི།
셔츠(파찌)

③ ཅང་ཁ་ད།
조끼(짱카다)

④ སྒྲ་མ།
치마

마오뉴핑(牦牛坪)은 무리현 남부에 위치한 향(乡)으로, 현청 소재지에서 105km 떨어져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2,900m이며 고원 산악 기후에 속한다.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복식은 셔츠, 조끼, 포, 망토, 주름치마, 자차 허리띠, 신발 등의 의복류와 머리장식,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류로 구성된다.





머리장식

과거에 현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가늘게 세 가닥으로 땋았으며, 머리끝에 실을 함께 넣어 땋은 뒤 머리 위로 감아 올리거나 등 뒤로 늘어뜨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미혼 여성은 머리카락을 굵은 세가닥으로 땋고 머리끝에 야크 꼬리털이나 실을 함께 넣어 엮은 다음 머리 위로 감아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파마’라 불리는 머리장식을 직접 착용한다. 이 장식은 머리 크기에 맞추어 검은 털실 다발을 약간 꼬아 원형으로 만든 뒤, 왼쪽 상단에 청색 실 한 가닥을 감아 연출한다. 실의 끝자락은 앞이나 뒤 어느 한쪽으로 길게 늘어뜨려 허리까지 닿게 한다. 머리에 두른 검은 굵은 털실 다발 앞부분의 장식은 ‘룩세’라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홍백색 구슬 네 줄이 곡선을 그리며 가로로 늘어져 있고, 그 위 중앙에는 진주나 산호를 박아 넣은 금·은제 타원형 장식이 놓인다. 또한 그 좌우에는 금·은으로 만든 꽃모양 장식이 하나씩 놓여 있다. 이 밖에도 전면에 밀랍이나 터키석 등을 고정한 다양한 형태의 ‘룩세’ 장식이 있다.



연장자들은 보통 머리카락을 두 갈래의 세 가닥으로 뿔아 머리 위로 교차하여 감아올린 뒤, 진주 장식이 있거나 혹은 장식이 없는 파마를 착용한다. 이때 검은색 머리술은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한다.

과거 인접한 닝랑향(宁朗乡), 어야향(俄亚乡) 등지의 여성들은 파마 위에 은화나 반지 모양의 장신구를 연결해 장식하거나 검은 두건을 감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마오뉴핑향에도 유사한 풍습이 있었으나, 오늘날 이곳 여성들 사이에서는 파마 머리장식을 하는 것이 주된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셔츠

상체에는 ‘빠찌’라 불리는 셔츠를 입는다. 이는 붉은색이나 분홍색 등의 비단으로 제작하며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 구조이다. 깃 부분에 세 개의 단추가 나란히 달려 있으며, 가슴 중간과 겨드랑이단추까지 합치면 총 다섯 개의 단추가 있다. 깃과 소매 끝에는 폭이 넓은 황색 금단으로 선을 둘러 장식한다. 소매 끝은 사선으로 재단하고 트임을 냈으며, 트임 부분에도 단추를 단다.

조끼

셔츠 겹에는 ‘짱카다’라 불리는 흰색 모직 조끼를 입는다. 깃 부분은 붉은 금사 벨벳으로 선을 두르며, 앞섶은 마주 닿는 대금형 구조이다. 섶 가장자리와 진동둘레는 여러 색상의 비단실로 자수를 놓아 장식하고 단단히 마감한다. 밑단에는 다양한 색상의 털실 술을 장식하고, 술 위쪽에는 손가락 네다섯 개 너비의 무지개 문양을 서로 다른 색상의 털실로 짜 넣는다.



포

겨울철에는 갈색의 거친 모직으로 제작한 소매 달린 포를 입는데, 이를 ‘파리’라 부른다. 포는 대금형 구조이며, 셔를 따라 네 개의 단추를 차례로 단다. 깃과 소매 끝 그리고 밑단에는 꽃무늬 푸루와 물결 모양 금실 장식을 덧댄다.

망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여성들은 금사 벨벳으로 제작하고 깃에 금단으로 선을 두른 우임형 상의를 입기도 했다고 한다. 노동할 때는 ‘푸찌’라 불리는 망토를 걸쳤는데, 이는 야크 털로 짠으며 깃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고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온다. 우비 대용으로도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입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름치마

하반신에는 ‘남’이라 불리는 주름치마를 입는다. 천으로 제작하며 밑단은 가는 천 조각으로 만든 무지개무늬 장식을 단다. 치마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치마 몸판과 같은 색의 천을 덧대고 양 끝을 끈으로 만들어 허리 좌우 어느 한쪽에서 묶는다. 치마는 흰색, 청색, 검은색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연장자는 청색이나 검은색을 입고, 젊은 여성들은 흰색 치마를 선호한다.





자차 허리띠

허리에는 너비가 약 한 뼘 정도 되는 자주색 허리띠를 반듯하게 두른다. 이는 털실로 짠 것으로, 허리띠의 위아래 가장자리에는 여러 색의 털실로 짠 무지개무늬 등의 문양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으며 양 끝과 측면 가장자리에는 술이 달려 있다. 이 외에도 양 끝에만 술이 있고 측면에는 술이 없는 흰색 허리띠를 매기도 하는데, 이 역시 무지개무늬 등의 문양을 짜 넣는다.

신발

신발은 현지에서 ‘뽕까’라 불린다. 과거에는 짚신, 천 신발, 가죽신 등을 신었으나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 신발이나 가죽신을 주로 신는다.

기타 장신구

귀걸이는 현지에서 ‘샤차’라 불리며, 은제 원형 귀걸이와 터키석과 산호를 박은 형태 등이 있다. 목에는 ‘텅와’라 불리는 구슬 목걸이를 착용하며 그 외에 다른 목장식은 하지 않는다. 팔찌는 ‘예귀’라 하며, 손목에는 ‘냥예귀’라 불리는 가는 은팔찌를 차고 손가락에는 은반지를 끼는 풍습이 있다.

과거 이 지역 주민들은 황토와 식물 등을 이용한 뛰어난 염색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황색과 붉은색 계열의 염색에 능했다. 그러나 현재 이 기술을 전승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예전에 이 지역의 의복은 주로 삼베나 양모로 제작하였으며, 의복에 번거로운 장신구를 많이 다는 풍습이 없어 전체적으로 소박했다. 마오뉴핑향은 대여섯 개의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복식은 외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 복식은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16

ལྷ་མ་འབྲུག་བྱེད་ཀྱི་གོས་རྒྱ།

러바무(热巴舞) 공연 복식





① རས་སྒྲ།
래까

② རོད་སྒོ་པ།
퇴꼬

③ ཏ་བ།
도고

④ རྒྱུ་བཏགས།
멜빵(갑떡)

⑤ གཟན་ཕྱོམ།
피단 끈(샌돔)

⑥ རོད་ལྷ། རོད་སྒོ་པ།
셔츠(보라/공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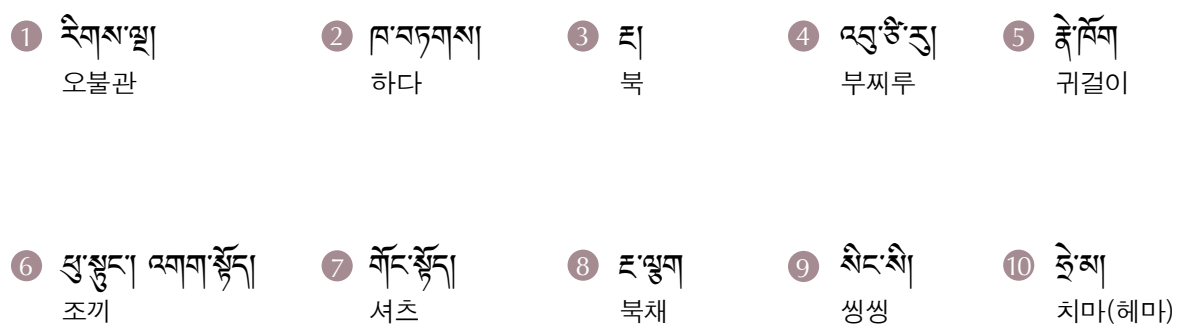
⑦ ལྷ་པ།
포

⑧ གཡག་ར།
야크 꼬리

⑨ རས་པའི་རྩལ་ཐག།
러바 술 끈

⑩ རོར་མ།
바지

⑪ ལྷ་མ།
장화



러바무(热巴舞)는 진사강 유역에 전승되는 오래된 춤으로, 주로 웨이시현 타청진을 중심으로 한 더친현 일부 지역과 샹그릴라시 우징향 등지에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평균 해발고도 약 2,000m로 한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며, 생활 방식은 반농반목을 기반으로 한다.

‘러바’라는 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한다. 한 설에 따르면, 이 춤은 밀라레빠(米拉日巴)와 그의 제자 레충 도르제 드라바(惹琼·多吉·札巴)의 시대에 나타났으며, 후대 사람들이 이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복식을 모방하고 공양의 형식으로 공연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러바’는 곧 밀라레빠의 ‘레빠(日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과거 상예사(桑耶寺)를 건립할 당시 각종 귀마의 장애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러바무를 추어 이러한 장애를 물리침으로써 사찰을 순조롭게 완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러바무는 길상과 번영을 가져오는 의례적 행위로 인식되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이를 공연하는 전통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천여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타청 지역의 러바 무는 ‘신천 러바(神川热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매년 한 번씩 밀라레빠 존자를 맞이하기 위해 러바무를 공연한다는 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외에도 러바무가 원시 종교 의궤의 전파와 관련이 있다는 등 여러 설이 존재한다. 어떠한 설을 따르든, 러바무는 예로부터 널리 전승되어 현지의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받아온 전통 무용임에 틀림없다. 또한 러바무 공연에 필요한 의복과 도구 등의 복식 또한 티베트 복식 문화에서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러바무 남성 복식

남성의 러바무 복식은 셔츠, 포, 건사 바지, 장화 등의 의복을 비롯하여, 래까 가체, 퇴꼬, 멜빵, 피단 끈, 가우함, 러바 술 끈, 북, 야크 꼬리 등의 도구로 구성된다.



상체 안쪽에는 '뵈라' 혹은 '궁뵈'라 불리는 흰 견사 셔츠를 입으며, 깃에는 비단 테두리를 두른다. 그 위에 푸루나 천으로 만든 적색 포를 입는데, 깃과 소매 끝에는 청색 천으로 안단을 댈다. 하의로는 비단이나 견사로 제작한 흰색 바지 등을 입는다. 과거에 발에는 현지에서 '호찌'라 불리는 티베트식 장화를 신었는데, 이는 천이나 가죽을 겹쳐 밑창을 만든 것이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은 시장에서 구입한 승마 부츠를 신는다.





과거에 현지 남성들은 대체로 머리를 길게 길렀으며, 러바무를 추는 남성은 머리카락을 실과 함께 세 가닥으로 땀아 머리 위로 틀어 올렸다. 하지만 현재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신 '래까'라 불리는 가체를 착용한다. 이는 여러 겹의 좁은 천 띠를 바탕으로 그 위에 검은 털실이나 가발 술을 장식한 것으로, 이를 머리에 감아 연출한다. 그 위에는 '퇴꼬'라 불리는 장신구를 엮는데, 이는 다양한 색상의 실이나 털실로 엮어 만든 것으로 그 위에는 반지 모양의 은제 장신구인 '줍보' 두세 개가 꿰어져 있으며 구슬, 터키석, 산호가 박힌 은방울 장식도 함께 꿰어져 있다. 일부 사람들은 터키석과 밀랍 등을 꿰어 넣은 가체를 착용하기도 한다.





또한, 등에는 허리띠를 이용해 다섯 줄 정도의 오색 비단 띠를 한데 묶은 멜빵을 비스듬히 메는데, 그 끝자락은 복사뼈까지 늘어진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는 밀라레빠 존자의 가사를 상징한다고 한다. 멜빵에는 청색 천을 안감으로 댄 긴 피단 끈이 달려 있어 러바무를 출 때 이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그 위에는 액을 막고 몸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닌 가우함을 매단다.

허리에는 ‘러바 술 끈’이라 불리는 장식을 두른다. 이는 약 13가닥의 색실 끈을 반 영락 형태로 엮은 뒤, 하나의 띠로 꿰어 허리띠에 묶는 방식이다. 이 장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전해진다. 한 설에 따르면, 레충바(惹琿巴)가 탁발을 하던 중 들판의 독수리와 까마귀가 코끼리 사체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코끼리의 폐와 간을 잘라 흑백의 창자 끝에 매달아 장식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유행하는 장식 양식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과거 오만했던 레충바가 우박이 쏟아지는 날 밀라레빠 존자의神通력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존자는 몸을 변화시켜 야크 뿔 속으로 숨었으나 레충바는 들어가지 못해 땅을 파서 숨으려다 결국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다. 이후 이 일은 러충파의 오만을 굴복시킨 상징이 되었으며, 러바 술 끈을 착용하는 풍습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과거에 러바 술 끈은 흑백의 소털을 꼬아 만든 끈으로 제작했으며, 순결한 마음을 상징하기 위해 끈 끝의 술 장식에는 흰 깃털을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끈으로 제작하며, 끝부분에는 털실이나 실로 만든 흰색 술 장식을 단다.

오른손에는 가죽으로 감싸고 나무 손잡이가 달린 도고(鼗鼓)를 드는데, 이는 러바무를 출 때 노랫말의 리듬에 맞추어 반드시 두드려야 하는 악기이다. 왼손에는 나무 자루가 달린 야크 꼬리를 든다. 과거에는 손목 부위에 사자 꼬리를 매달았으나, 현재는 야크 꼬리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러바무 여성 복식

여성의 러바무 복식은 두건, 오불관(五佛冠), 부찌루, 조끼, 허리띠, 치마 등의 의복과 귀걸이, 가우함, 목걸이, 조각 장식 허리띠, 씽씽 등의 장신구, 그리고 하다, 북 등의 도구로 구성된다.

과거에 현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세 가닥으로 땔었으며, 다양한 색상의 털실을 함께 엮어 땔은 뒤 머리 위로 감아 올렸다. 땔은 머리의 끝자락 술은 왼쪽 귀 뒤편으로 늘어뜨렸는데, 이러한 머리 모양을 ‘고찌’라 부른다. 러바무를 추는 여성들 또한 다양한 색상의 털실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고찌 형태의 머리 모양을 만든다.





고찌 위에는 길이 약 4m, 폭 약 8~10cm의 붉은 천으로 된 두건을 감아 두른다. 먼저 두건의 한쪽 끝으로 정수리를 덮은 뒤, 나머지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씩 평평하게 감아 올리는데, 이는 타청이나 우징 등지의 여성들이 격식 있는 차림을 할 때 사용하는 두건과 동일하다. 이어서 잘 감아진 두건 위에 ‘오불관’이라 불리는 장식을 얹는다. 이는 다섯 개의 토르마(제물로 바치는 보리 반죽) 모양의 장식을 앞부분에 차례로 배열한 것으로, 오방불(五方佛)을 상징한다. 과거에는 이 장식을 주로 목재나 가죽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카드보드지나 플라스틱판으로 제작하며 그 위에 팔길상, 육자진언, 각종 꽃무늬, 금강저 등 여러 길상 문양을 그려 넣는다. 오불관의 꼭대기에는 보통 흰색 하다를 매다는데 이는 오방불에게 공양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러바무 복식은 타청 지역 티베트족 여성의 성대한 복식과 대체로 유사하다. 상체에는 깃과 밑단에 비단 테두리나 금사로 가느다란 테두리를 두른 조끼를 입는다. 연장자는 주로 소박한 단색을, 젊은 층은 화려한 색을 선호한다. 과거에는 삼베나 금사 벨벳 등으로 제작했으나, 오늘날에는 황색, 적색, 녹색 등의 비단이나 천으로 만든다. 러바무를 공연할 때 무용수는 흰색 하다와 분홍색 허리띠를 양쪽 어깨에서 겨드랑이 아래로 교차하여 매는데, 이는 밀라레빠 존자의 가사를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그 다음 셔츠와 조끼 위에 현지에서 ‘꾸와’라 불리는 허리띠를 약간 느슨하게 매는데, 이는 모직물 등으로 제작하며 양 끝의 술이 허리 뒤로 자연스럽게 늘어진다. 오늘날에는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 다양한 색상의 천으로 제작한다.

하의로는 현지에서 ‘헤마’라 불리는 검은색 주름치마를 입는다. 과거에는 양털과 소털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직접 짜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기성 천을 사용하여 만든다.

장신구의 경우, 이마의 머리선 부분에는 ‘부찌루’라 불리는 장신구를 착용한다. 이는 모직물 등을 바탕천으로 하여 그 위에 작은 은 조각들을 장식한 것으로, 착용 시 끝자락이 등 뒤의 허리 띠 부근까지 내려온다. 귀에는 ‘터키석 삼첩’이라 불리는 은귀걸이를 착용하는데, 그 위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으며 중간에는 모래시계 모양의 ‘웅창’이 끼워져 있다. 전통적으로 귀걸이는 꿰뚫을 뚫어 직접 착용했으나, 오늘날 여성들은 대개 작은 고리에 귀걸이를 걸고 양끝을 은제 귀걸이 사슬로 연결하여 두건에 고정하며, 두 귀걸이는 귀 옆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오른손에는 나무 등으로 만든 북채를 들고, 왼손에는 가죽으로 감싸고 나무 손잡이가 달린 작은 북을 드는데, 북면에는 여덟 잎의 연꽃이나 쌍어(雙魚) 문양이 그려져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레충바가 크기가 다른 코끼리의 갈비뼈를 구부려 북과 북채를 만들었다고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색상의 장식으로 북과 북채를 화려하게 꾸민다.



목에는 현지에서 ‘게훈’이라 불리는 은제 사각형 가우함을 착용하며, 그 위에는 터키석과 산호가 박혀 있다. 러바무를 출 때 일부 사람들은 터키석과 산호를 차례로 꿰어 만든 목걸이를 착용하기도 한다. 허리에는 ‘파콕’이라 불리는 조각 장식 허리띠를 매는데, 이는 붉은 가죽이나 비단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은방울이나 은 조각을 장식한 것이다. 또한 허리에는 ‘씽씽’이라 불리는 바늘주머니와 북주머니 등 은으로 만든 작은 장신구들을 매단다.

과거 현지인들은 설날에만 러바무를 추었으며, 보통 저녁 7시경에 시작하여 밤새도록 이어졌다. 무용수들은 어지럼증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 관자놀이에 현지에서 직접 만든 고약인 ‘자깅’을 붙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낮과 밤 모두 러바무를 공연한다. 낮에 공연하는 관습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연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주로 혼례 등 각종 민속 행사에서 이루어진다.

러바무는 이 지역의 중요한 민속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그 복식 또한 선명한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복식은 현지인들의 풍습과 생활,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풍부한 상징적 의미와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다.



མིང་ཆེན་ཤན་སྤྱར་རེའུ་མིག

용어집

01

ཀོང་ཅེད་ར་བའི་གོས་བྱུང་།

번즈란(奔子栏)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མི་ཐེ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མྱ་ཉི་མ།	hrwa/ hri wa	화/히와
2	ཆེ་རིང་སྤྱན་ཁེབས།	tshe ring skyin khebs	체링 긴 셉
3	སྤ་ཁོག	sta khog	따콧
4	གོས་ཆེན་སྐ་རགས།	gos chen ska rags	괴첸 까락
5	འབྲ་རས་སྣོད་འབོག	'bu ras stod 'bog	부래 스펠복
6	རྩལ་སྐྱུང་།	rkang snam	강남
7	མགོ་དཀྲིས།	mgo dkris	고찌
8	ལག་རས།	lag ras	락래
9	ཆེ་ལེན།	tshi len	찌렌
10	ཕུ་སྤུང་། འགག་སྣོད།	phu stung / 'gag stod	푸똥/각뎠
11	སྐེ་ནོན།	ske non	깨논
12	སྐྱུང་མོ་རས་སྐྱུང་།	snam mo/ ras snam	난모/래남
13	སོག་རྩ།	sog ma	속나
14	རྩ་འདྲོགས།	rna 'dogs	나독
15	ལག་ཉོག	lag nyog	락녹
16	སིང་སིང་།	sing sing	썩썩
17	ཏུང་ཅེར།	tung tshar	똥찰
18	ཆབ་མ།	chab ma	참마
19	གཡམ་ཉེ། དངུལ་ཕྱ།	g.yas he/ dngul phra	애혜/응굴파

གཡག་རྩེ་བུད་མེད་ཀྱི་གོས་རྒྱན།

양라(羊拉)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ཙོར་མཐུད།	tsor mthud	조무
2	སྐ་གཙུག	skra gzhug	까죽
3	འཕན་འཇོག	'phan 'jog	팬죽
4	པང་བཀའ།	pang bkab	방법
5	ཚར་ལོ།	tshar lo	찰로
6	རྒྱ་ལྷ་མ་ཉོས་ཟེ།	rgya lham hos zi	갈람 호찌
7	རྩ་ཏོབ།	rna hob	나홉
8	འབུར་དྲི།	bur dkri	부찌
9	ཆབ་མ་ལྷགས་ཐག	chab ma lcags thag	참마 짝탁
10	གློ་བུངས།	glo zungs	로중

03

བདེ་ཆེན་རྫོང་གི་གོས་བྱུང་།

더친(德钦) 복식

	ཐོད་ཡིག	ལ་ཐིན་ཡི་གེ	མི་ཐེ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ཐོད་རྫོང་། ཐོད་བཅིངས།	thod rkyong / thod bcings	퇴종/퇴징
2	སོ་ཏུང་།	so tung	소똥
3	རྩ་སྡེ།	rna sder	나데
4	མགོ་དགེས།	mgo dkris	고찌
5	སྟོད་གོས།	stod gos	띠괴
6	འབའ་ལ།	ba' lwa	바라
7	མྱ་ཙེ།	hran tsi	헨찌
8	རྩ་ཙོག་	rna cog	나쭝
9	རྩ་དྲི།	rna dkri	나찌
10	རྩ་དྲི་ཆུ་ཐེན་དཀར་མོ།	rna dkri chu srin dkar mo	나찌 추진 까모
11	ཐེང་བ།	phreng ba	텡와
12	སིང་སེ་ཐེ་ར།	sing si ldi ra	썩씨디라
13	ཡ་ལུང་། ལག་ཉོག་	ya nyung / lag nyog	야눔/락녹
14	ཨ་ལོང་།	a long	아롱
15	བརྩ་གབ།	brang gab	장갑
16	དངུལ་ཁུག་	dngul khug	응굴꺾
17	བདད་གི།	brdab gri	답디
18	འདོགས་གི།	dogs gri	독디
19	ལྷགས་མ།	lcags ma	짜마

མཐའ་ཚུའི་བུད་མེད་ཀྱི་གོས་ཀྱི་ན།

타칭(塔城)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ལག་ཕྱིས།	lag phyis	락치
2	གོང་སྟོང།	gong stod	공띠
3	སྐུ་མ།	sku wa	꾸와
4	མྱེ་མ།	hre ma	헤마
5	རྩེ་ཁོག་	rne khog	네콕
6	གེ་ཏོན།	ghe hon	게혼
7	བྱུར་ལོག་སྟོང་རིལ་མ།	byur log sngo ril ma	쥬록 응오릴마
8	བྱུར་ལོག་དམར་ཚང་མ།	byur log dmar tshang ma	쥬록 마창마
9	པ་ཁོག་	pa khog	파콕

05

འབའ་བོས་ཀྱི་གོས་བྱུང་།

바주(巴珠)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ཨ་ལྷ། ལྷོད་འབོག	a lha/ stod 'bog	알라/스피복
2	ཤན་ལྷགས།	shan lcags	샌작
3	སྣམ་མོ།	snam mo	남모
4	ལག་རས།	lag ras	락래
5	རྒྱལ་བ་ཏགས།	rgyab btags	갑딱
6	ཧྲོ་ཐོ།	hro tho	로토
7	ཧོས་ཟི།	hos zi	호찌
8	རྣ་ཐག	rna thag	나탁

ཉི་ཤར་རིང་པའི་གོས་རྒྱན།

니시(尼西)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ཨི་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འཕན་སྒོ།	phan sgro	팬드로
2	ཤ་ཐུག་དཀར་དམར།	sha thug dkar dmar	샤톡 까마
3	འཇའ་ཚན་སྟོད་འབོག།	'ja' tshon stod 'bog	자천 스펜복
4	གཙན་ལ། གཙན་རྫོང་།	gzan lwa/ gzan krong	샌라/샌쥬
5	ཕྱར།	phyar	챵
6	པང་ཤུབས། གོས་ལེབ།	pang shubs/ gos leb	빵습/괴렘
7	འཇོལ་ཚར།	jol tshar	줄찰
8	མགོ་ར།	mgo ra	고라
9	རྩ་ཁོག།	rna khog	나콕

རོང་པ་ཞོག་ལྷའི་བུད་མེད་ཀྱི་གོས་རྒྱན།

우징(五境) 여성의 복식

	འོ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ཐེ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སྐྱ་མཐུད།	skra mthud	까무
2	སྟ་ཐ་རྟ་ཐ།	sta tha rnga tha	따타 응아타
3	རས་རྒྱན།	ras rgyan	래건
4	དངུལ་སྐྱ་རགས།	dngul ska rags	응굴 까락
5	འབའ་ཁུག་ཁམ་ཤུབས།	ba' khug khab shubs	바쿱 캡슈

ཁྱེལ་ཐང་བུད་མེད་ཀྱི་གོས་ཀྱི།

젠탕(建塘)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མི་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སྐམ་ལྷ།	sram zhwa	쌈샤
2	དབུས་ཙོར།	dbus tsor	위조
3	གནོན་སྒྲ།	gnon skra	논까
4	ལྷང་སུལ།	ljang sul	장술
5	དུས་རྩོ།	dus hro	뒤로
6	ནང་བཅིངས།	nang bcings	낭징
7	མ་གོས་སྟོད་འབོག།	ma gos stod 'bog	마괴 스펜복
8	ཕེ་གོས།	phe kos	페괴
9	ལྷགས་ཐག།	lcags thag	작탁
10	ཆབ་གདན།	chab gdan	참덴
11	དྲིལ་བུ་ཁབ་ཤུབས།	dril bu khab shubs	질부 캅슈
12	མེ་ཏོག་ལྷ།	me tog zhwa	메톡샤
13	སྤུ་མའི་ལྷ།	spu ma'i zhwa	뿌매샤
14	ཁྲོས་སྒོ། ཁྲོས་ནག།	hros sngo/ hros nag	뢰응오/뢰낙
15	ཤ་ཐུག།	sha thug	샤톡
16	མོ་བན།	mo pan	모판
17	ཐག་དྲཀར།	thag dkar	탁까
18	རྩ་ཁེབས།	rna khebs	나셉
19	ལྷང་སྒོར།	klad skor	래꼬
20	རས་གོས།	ras gos	래괴
21	ཤེ་ཏིང་།	she ting	셰팅
22	སྤུན་དྲེལ། བང་ཁེབས།	sngun dkris/ pang khebs	응권찌/방법
23	ཁུ་རས།	khu ras	쿠래

གཏེར་མ་རོང་གི་སྐྱེས་མའི་གོས་རྒྱ།

동왕(东旺)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མི་ཐེ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ཐོར་ཙོག	thor tsog	토조
2	མེ་ལོང་།	me long	메롱
3	གཡོགས་གོས།	g.yogs gos	욕괴
4	ཕུག་གཡོགས་གོས།	phrug g.yogs gos	툑 욕괴
5	འགོ་སྐྱམ་གཡོགས་གོས།	go snam g.yogs gos	고남 욕괴
6	རས་གཡོགས་གོས།	ras g.yogs gos	래 욕괴
7	བྲང་གདན།	brang gdan	장댄
8	འཇའ་རྟན་གོས།	ja' hran gos	자헨괴
9	གཡོན་བཅིངས།	g.yon bcings	빈징
10	སོང་ག་ལེ།	song ga le	송가레
11	ཁུལ་ཕུག་རྩིས།	khul phrug rdzis	쿨특지
12	གསེར་བྱ་རྩང་དམར།	gser bya rkang dmar	세자 깡마
13	རྩ་ལུ།	rna wu	나우
14	འབར་སྒྲག	'bar sgag	바각
15	ཆབ་བཅིངས།	chab bcings	참징

ཁྱིག་ཟུར་བུད་མེད་ཀྱི་གོས་བྱུང་།

니루(尼汝)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ར་རྩིད་ལྷ་མོ།	ra rtsid zhwa mo	라찌 샤모
2	སྟོད་ཐུང་།	stod thung	띠뚱
3	ཐགས་གཡོགས་གོས།	thags g.yogs gos	탁옥괴
4	དུས་སྒྲོ།	dus sgro	뒤드로
5	བཞག་གོས།	bzhag gos	샤괴
6	རྒྱབ་བཅིངས།	rgyab bcings	갑징
7	ཤན་པེ།	shan pe	샌페
8	མགོ་ར།	mgo ra	고라
9	བྱ་ར་མགོ་དམར།	bya ra mgo dmar	자라 고마
10	ལྷ་མ་བསྐྱགས།	lham bsgags	람각
11	ཚྭ་སྒྲ་རྒྱ།	tshogs rna	촉나
12	པད་སྐུངས།	pad spungs	패뿐
13	ཤལ།	shal	셜
14	ཕེ་བོ།	phe bo	페보
15	ཨ་ལོང་སྐེ་ལུང་།	a long ske lung	아롱깨룽
16	དུང་ཐག།	dung thag	등탁
17	པ་ཏྱ།	pa tra	빠따

སྐད་ཚག་བུད་མེད་ཀྱི་གོས་བྱུང་།

거잔(格咱)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ཐེ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སྐད་ཐེ།	sked sle	깨 레
2	རས་དཀར་སྟོད་འཕོག་	ras dkar stod 'bog	래 까 스펀 북
3	བལ་སྐ་རགས།	bal ska rags	밸 까락
4	སྟོང་སྐད་སྐ་རགས།	stong skud ska rags	통꾸 까락
5	ཕྱིང་ཕྱར།	phying phyar	칭 찰
6	རྩོངས་ཕྱིང་།	rdzongs phreng	중텅

ན་མུ་ཡུའི་སྐྱེས་མའི་གོས་རྒྱན།

나무이(纳木依)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ཚུན་ཚུ། ཏ་ཏ་སྐ་མཐུད།	tshun tshu/ ta ta skra mthud	춘쭈/따따 까무
2	བོས་ཡུས་ཀ།	bos yus ka	보위까
3	བོལ་ཚ།	bo'u co	보조
4	བར་གོས། པ་ཚེར།	bar gos/ pa tshir	바괴/파치
5	ལན་འགག།	lan 'gag	랜각
6	ཀྱི་ཀེ།	kri ke	끼게
7	ཁ།	khra	차
8	ཚེ་པུན།	tshi pun	찌뽀
9	ཕ་ཏ།	pha Ta	파따
10	ཡུན་ཏོ།	yun to	윈또

སྒྲིབ་སྐུ་གོ་སྐུ་རྒྱུ་

지수(机素)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ལྷན་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ནག་རིལ།	nag ril	낙릴
2	རྟོག་རྟོག།	tog tog	똑똑
3	གསེར་ལུང་རྟོག་རྟོག།	gser lung tog tog	세롱 똑똑
4	ཨ་སྤྱི་རྟོག་རྟོག།	wa spri tog tog	와삐 똑똑
5	རྩོག་གཤམ།	rmog gab	목갑
6	ཁོང་བསྐྱེང།	khong bsring	콩썩
7	རྒྱ་ཚོས་ཕུ་པ།	rgya tshos phyu pa	자최 추바
8	བྱིང་མ་ཕུ་པ།	bying ma phyu pa	징마 추바
9	དཀྱི་བྱ།	dkri bya	찌자
10	པགས་ཀ།	pags ka	빠까
11	ལེགས་ཁུར།	legs khur	렉쿠
12	ཡེ་ལེ་ལེ།	ye le le	예레레
13	མེས་གཟན།	mes gzan	메센
14	ཕྱིང་རས།	phying ras	칭래
15	སྐོར་རིང་།	skor ring	꼬링
16	ཕྱག་སྐོར།	phyag skor	착꼬
17	ཕྱག་འབྲུགས།	phyag 'grus	착뒤

ཞོ་ལུང་སྒྲེས་མའི་གོས་རྒྱན།

수륙(水落) 여성의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སེང་མགོ།	seng mgo	생고
2	སྐ་གཙུག་ལེན།	skra gtsug len	까죽렌
3	རྩ་སྐ།	rna skra	나까
4	དཔལ་ཤན།	dabs shan	답샐
5	སྒོན་རྟགས།	sngon rtags	응권딱
6	ཤན་ལྷགས།	shan lcags	샐작
7	འཇམ།	ja'	자
8	བར་སྤུང་།	bar stung	바똥
9	རས་རྟགས།	ras rtags	래딱
10	ཤག་ཤན།	phrag shan	탁샐
11	སྤལ་ཁ།	sbal kha	뻬카
12	སྐད་སྐག	sked sgag	깨각
13	ཆོན་བུ།	chon bu	천부
14	འབྲེག་སྐང་།	breg sgang	적강
15	སྤ་འགག	sta 'gag	따각
16	སྒྲུན་བཅེངས།	sngun bcings	응권징
17	རྩ་ཚན།	rna tshar	나찰
18	རྒྱལ་བཅེངས།	rgyab bcings	갑징
19	དངུལ་ཐག	dngul thag	응굴탁
20	ཁམ་ཤུབས་འབའ་ཁུག	khab shubs 'ba' khug	캡슈 바쿱

འབྲོག་ར་ཐང་གི་སྐྱེས་མཆོག་གིས་བྱས།

마오뉴핑(牦牛坪) 여성의 복식

	འབྲོག་ར་ཐང་གི་སྐྱེས་མཆོག་གིས་བྱས།	འབྲོག་ར་ཐང་གི་སྐྱེས་མཆོག་གིས་བྱས།	འབྲོག་ར་ཐང་གི་སྐྱེས་མཆོག་གིས་བྱས།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ལུག་སེ།	lhug se	룩세
2	ཕ་མ།	phra ma	파마
3	པ་ཌི།	pa tsi	빠찌
4	ཅང་ཁ་ད།	cang kha da	짱카다
5	པ་ལི།	pa li	파리
6	ཕུ་ཌི།	phu tsi	푸찌
7	སྐྱེས་མཆོག་གིས་བྱས།	snam	남
8	པག་ས་ཀ།	pags ka	빠까
9	ཤ་ཁྱེ།	sha khya	샤차
10	ཕེང་བ།	pheng ba	텡와
11	ཡེ་ཀུས།	ye kus	예꾸
12	ཉང་ཡེ་ཀུས།	nyang ye kus	냥예꾸

རས་པ་འཁྲབ་བྱེད་ཀྱི་གོ་ས་རྒྱ་

러바무(热巴舞) 공연 복식

	བོད་ཡིག	ལ་ཐིན་ཡིག	སི་ཁྲེས་དན།
	티베트어	와일리 전사	한국어
1	བོད་ལ།	bod lwa	뵤라
2	ཧོས་ཟི།	hos zi	호찌
3	རས་སྒྲ།	ras skra	래까
4	ཐོད་སྐོར།	thod skor	퇴꼬
5	མཚུབ་བོ།	mdzub bo	줍보
6	འབུ་ཙི་རུ།	bu tsi ru	부찌루
7	གཟན་སྒྲོན།	gzan sdom	샌돔
8	རས་པ་འི་རྩལ་ཐག	ras pa'i hrul thag	래패 홀탁
9	ར།	nga	응아
10	གཡག་ར།	g.yag nga	야응아
11	རིགས་ལ།	rigs lnga	릭응아
12	ར་ལྷག	nga lcag	응아짜
13	གཟའ་བཀག	gza' bkag	자각



khenposodargye.org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